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개역성경분석

저자 / 정동수

1판 1쇄 / 2006년 12월 6일, 2판 1쇄 / 2012년 12월 2일
3판 1쇄 / 2017년 10월 31일, 4판 3쇄 /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본서에 있는 성경구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킹제임스 흠정역 마케스티 에디션>(그리스도 예수안에, 2021)에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목 차



1부 개역성경 분석

1. 성경 문제	5
2. 우리말 성경의 역사	9
3. 두 종류의 성경 본문	13
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31
5. 개역성경 분석	42
6. 개역성경 분석 결론	110

2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7.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113
8.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127
9.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165
10. 신약 성경 역본 평가	176
11. 사본들의 99%가 킹제임스 성경 지지	204
12. 시내 사본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조작	209
13. 성경과 고문서의 차이	211
14.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215
15. 용어 정리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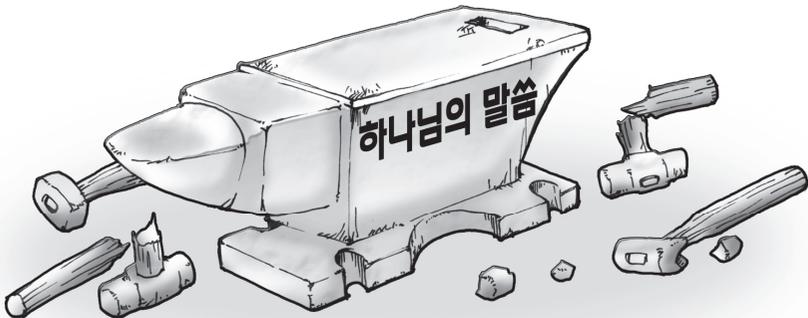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 책은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사실을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기준에 따로 출간되던 「개역성경 분석」과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를 합치고 파울러(E. W. Fowler)의 「신약 성경 역본 평가」를 추가하여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의 진리가 널리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합니다.





성경 문제

1885년 4월 5일,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왔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다른 나라 성도들처럼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므로 1877년부터 로스 등을 필두로 하여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11년에는 신구약을 완역한 성경전서가 출간되었고 그 뒤 1938년에 성경전서의 개정판인 성경개역이 출간되었으며 1961년도에는 성경개역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하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¹⁾

한국에서는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세를 형성하였는데 초기 장로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주일 성수나 금연/금주 같은 규칙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특히 성경에 관한 한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그들은 개역성경에 단 한 점의 실수도 없음을 성도들에게 주시시켰고 따라서 어떤 이가 사도행전 8장 37절같이 전체 구절이 삭제된 사례를 들며 그 이유를 묻거나 혹은 너무나 명백하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²⁾ 지적하면 그 일을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한마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역성경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제대로 입을 열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성경의 보존과 번역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다수 성도들이 교회나 교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다른 대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도 개역성경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이 성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와 프로테스탄트들의 교리와 실행에 여러 문제를 안겨 준 성경, 삭제 구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국문법 오류를 수없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을 무오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며 100여 년을 버텨 왔으므로 이로 인해 신학, 교리, 실행 등의 문제가 매우 컸음도

1) 이 책에서 언급하는 개역성경은 2011년 말에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이것에 대한 예로는 창1:2의 ‘하나님의 신’(the God of God)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이 되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 이슈

국내에서는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 교재 및 일반 크리스천 교양서적의 근간이 되고 5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성경 (*King James Bible*, KJB)이 단지 문헌을 통해 ‘제임스 왕이 제정한 성경’, 즉 ‘흠정역 성경’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영미 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치고³⁾ 문장이 수려하며 보수적인 성경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그것을 소장하여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출간된 문헌들을 통해서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같은 현대 역본들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엄청난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의 한글 성경들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 한글 성경들도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학계나 관련 출판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성경 논쟁이 일어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69-78년에 NIV가 출간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611년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성경’(Holy Bible)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에 NIV, NASB, NKJV,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였고 이것들의 맹공에 맞서기 위해 급기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⁴⁾가 전통적인

3)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와 영미 문학에 미친 공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나온 두 개의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것은 Benson Bobrick의 「Wide As the Waters : The Story of the English Bible and the Revolution It Inspired」(Simon & Schuster, April 11, 2001)이다. 이 책은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는 영어 성경의 역사를 잘 보여 주며 특히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한다. 둘째 것은 Alister McGrath의 「In the Beginning : The 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and How It Changed a Nation, a Language, and a Culture」(Anchor, February 19, 2002)이다. 흥미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NIV 편집자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과 미국말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책 모두 세속 출판사가 출간한 것이므로 읽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하므로 가치가 있다. 이 두 책은 모두 www.amazon.com에서 구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교회 사본에 근거한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 혹은 짧게 RV)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과 변호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 논쟁은 마치 진화론 논쟁과 비슷하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지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자들의 맹공으로 인해 성경의 토대인 하나님의 특별 창조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경 신자들이 창조과학회 등의 사역을 통해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진화론은 이미 온 세상에 마치 합리적인 과학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이 나올 때에 미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문제로 인해 교회가 쪼개지고 심각한 교리 문제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웬만한 크리스천 독자라면 성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 같은 성경 본문 문제를 접할 기회는 거의 얻지 못하였다. 그들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역본의 내용이 상이한 것은 본문은 같으나 번역이 다를 뿐이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유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교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지하는 대로 미국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가장 인본적이므로 이런 신학교에서는 이미 현대 역본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현대 역본의 기초가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을 귀중히 여기므로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경우 성경 문제 자체를 살펴볼 기회를 얻기 어렵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교회들에서는 어김없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성경 본문 논쟁도 실제로 침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례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등은 성경 본문 문제 등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따라서 대다수 한국인 유학생들이 침례교 신학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런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한국에서도 깨어 있는 성도들이 개역성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자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 “개역성경

4) 이들은 영국 성공회 학자들로서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을 근거로 만든 ‘수정 그리스어 본문’(Revised Greek text) 혹은 ‘비평 본문’(Critical text)은 1881년 이후로 출간된 대다수 현대 역본들의 본문이 되고 있다. 4장은 집중적으로 이들의 사상에 대해 다룬다.

은 사탄 성경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야말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신약교회이다.” 등과 같은 비상식적이고도 비논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어렵게 쌓여가던 킹제임스 성경의 명성과 권위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다.

한편 이런 현실과 성경 문제의 핵심이 성경 본문에 있음을 인식한 성경 신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심을 확고히 믿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부담을 갖고 차근차근 일을 수행하여 2000년 8월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는 우리말 성경을 펴냈고 꾸준히 교정 작업을 수행했다.

성경 문제의 핵심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원료에 의해 최종 산물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같은 원리는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번역의 대본으로 쓰인 신구약 본문과 성경 번역자들의 사상 및 문화적 배경이 최종 산물, 즉 번역된 성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개역성경과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성경들밖에 없었으므로 과연 그런 역본들이 바른지 그른지 비교하고 검토할 대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본들과 뿌리가 다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⁵⁾이 출간되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그 결과와 원인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번역의 핵심 요소들이 한국의 독보적 성경으로 자리를 굳힌 개역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성도들이 기존의 한글 성경들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간에 본문 및 교리적 차이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교회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서 나온 성경들을 버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해 준 성경, 로마 카톨릭교회의 허구와 미신을 와해시킨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필자는 개역성경이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안식과 위로를 주었음을 확실히 인정한다. 그러나 개역성경을 분석하는 5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번역 면에서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른 것을 제시해야 하므로 그것의 부족한 면을 부각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디 양식 있는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빛을 주실 줄 확신한다.

5)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우리말 성경의 역사

우리말 성경의 역사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H. R.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첫 선교사들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된 로스(John Ross)로 알려져 있다.⁶⁾ 그는 1874년과 1876년에 중국어 성경을 들고 한중 국경 지대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지 11년 뒤인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출간하였다. 로스가 스코틀랜드에 보낸 선교 보고에 따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을 위해 그가 사용한 본문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영국개역성경(ERV)과 중국어 성경이었다. 그는 또한 번역을 위해 형식적, 문자적 일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뜻만 통하면 된다는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실은 그가 1877년에 만주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 발간한 「조선어 첫걸음」(*Corean Primer*)이라는 소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한국인 번역자가 중국의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다.
2. 그 원고를 그리스어 신약 성경 및 영어 성경⁷⁾과 대조해서 수정한다.
3. 그리스어 성구 사전과 주석을 참조하여 어휘의 통일을 기한다.
4. 문자 그대로의 축자적 번역보다는 의미에 유의하고 조선어의 관용구를 그대로 살린다.⁸⁾

한편 1882년에 이수정은 일본에서 역시 중국어 성경을 사용하여 신약 성경의 일부를 번역하였으며 한국 프로테스탄트교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인천에 상륙하면서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개역성경>

국내에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지 8년 뒤인 1893년에 미국성경협회의 지원을 받아 주로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로 구성된 성경 실행 위원회와 성경 번역자 회가 설립되었고 이 두 기구의 주도하에 1906년에 구약 성경이 출간되었으며

6) 나채운, 「우리말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1990, p. 36.

7) 그들이 사용한 영어 성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영국개역성경(ERV)이었다(나채운, p. 37 주석).

8) 나채운, p. 37.

신구약을 다 담고 있는 한국어 성경(구역)은 1911년 3월에 신구약 3권으로 출간되었다. 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번역한 이 성경은 최초의 공식적인 한글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구역 성경 역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비평) 그리스어 본문에 근거한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25판)⁹⁾과 영국개역 성경(ERV)과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을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구역 성경의 구역은 영국개역성경의 미국판인 미국표준역을 가장 중요한 원전 중 하나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미국표준역의 영향을 받아 히브리어 사자음 문자 'JHVH'를 '주'(LORD)로 번역하지 않고 음역하여 '여호와'로 표기했다.¹⁰⁾ 사실 미국표준역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이 신성한 '사자음 문자'를 '주', 즉 'LORD'로 번역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한편 1938년에는 구역 성경을 개정한 성경 개역판이 출간되었다. 케이블(E. M. Cable), 스토크스(M. B. Stokes) 등의 미국 사람들과 남궁혁, 김인준 등의 한국 사람들이 개정에 참가하였으나 이번에도 여전히 오리겐의 70인역,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25판), 영국개역성경, 미국표준역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필요한 경우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 등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이 성경은 철자 수정과 얼마간의 본문 수정을 거쳐 1961년도에 '성경전서 한글개역판'으로 고정되었고 바로 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애독하고 애용하며 대다수 성도들이 막연하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고 있는 개역성경이다.¹¹⁾

간단하게 개역성경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개역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향을 받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통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아닌 '수정 그리스어 본문' 혹은 '비평 본문'(Critical text)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파생된 영국개역성경과 미국표준역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채운은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 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영국개역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밝힌다.¹²⁾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면서 우아하고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는 달리 개역성경 문장의 간결성 등은 본문의 정확성을 무시하면서 많은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에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⁹⁾ 1898년에 처음 출간된 네슬레의 신약 성경은 27번의 개정을 거쳐 2012년에 네슬레-알란드(혹은 독일식으로는 네슬-알란드) 28판으로 출간되었다(본서에서는 네슬레-알란드로 표기함).

¹⁰⁾ 나채운, p. 50.

¹¹⁾ 나채운, p. 57.

¹²⁾ 나채운, p. 50.

또한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본문 선택과 또 번역자들의 사상에 기초한 용어 선택을 살펴보면 개역성경이 기독교 교리와 신학 및 믿음의 실행 등에 폐해를 끼쳤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를 잘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문체와 운율 등을 통해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소중한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결코 개역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개역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선정된 천주교 편향적 본문과 번역자들의 이교도/사머니즘 사상으로 인한 번역상의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한 교리의 부패를 지적하려 할 뿐이다.

<표준새번역>

개역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는 동안 대한성서공회는 새로운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번역의 필요를 느꼈다. 또 동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번역을 통해 거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개역성경을 대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외국에서 공부한 국내 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1983년에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표준새번역이라는 새 역본을 발간하였다. 표준새번역은 연합성서공회가 1983년에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3판과 키텔(R. Kittel)이 수정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Biblia Hebraica)과 거의 유사한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67/1977, BHS)를 번역의 원전으로 삼아 만들어졌다.¹³⁾ 표준새번역 역시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했으므로 문체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번역>

1968년에 대한성서공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카톨릭교회의 연합 작품인 공동번역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사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종교일치 운동(Ecumenism)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¹⁴⁾ 1962년에 미국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의 니다(E. A. Nida)와 브래드록(W. J. Bradnock)이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번역 원칙을 제시하였다.¹⁵⁾ 그들은 ‘형식적 일치’보다는 ‘동적 일치’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동번역 위원회는 이런 원칙을 수용했다.¹⁶⁾ 공동번역의 구약은 1937년도에 발행된 키텔의 Biblia Hebraica

13) 대한성서공회, 표준새번역 서문, 1993. 나채운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우리말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1990, p. 460).

14) 나채운, p. 72.

15) 나채운, p. 72.

3판에서 번역되었으며 신약은 연합성서공회가 1966년에 발간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1판에서 번역되었다.¹⁷⁾ 이렇게 출간된 공동번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교회가 연합해서 만든 성경 중 둘째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의역 성경(Paraphrased Bible)이며 프로테스탄트판과 카톨릭판으로 출간되었는데 카톨릭판에는 외경도 정경으로 들어가 있다.¹⁸⁾

16) 성경 번역에서 ‘형식적 일치’란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수용 언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일치하게 번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동적 일치’란 단어 단어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상이나 뜻이 전달되도록 번역하는 것이며 이렇게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신국제역(NIV)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이런 번역의 원칙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보여 준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1년 치 봉급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NIV의 번역을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필자는 이 부분의 NIV 번역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 동안에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NIV의 번역은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장두만, 목회와 신학, 1998년 6월, 7월)

비평: 장두만 박사의 이런 주장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 등을 모두 ‘1년 치 봉급’, ‘10평’, ‘세 바구니’, ‘50센티미터’ 등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 부분만 ‘1년 치 봉급’으로 해야 한단 말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할 권한과 그에 필요한 영감을 그에게 주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단어, 단어에 숨을 불어넣으시고(축자 영감) 단어, 단어를 보존하시지 단지 뜻만을 보존하시지는 않는다. 성경을 번역할 때 300데나리온이라 두고 그것이 대략 1년 치 봉급이라고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단어 단어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독자들이 그 안에서 뜻과 사상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값싼 소설책이 아니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만화책이 아니다. 이런 책은 한 번 읽고 나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책이므로 계속해서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 필자는 결코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경이 뜻이나 사상만을 전달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God's word)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어, 단어를 보존하신다!

17)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서문, 1977.

18) 나채운, p. 75, 나채운은 또한 지난 200년간 로마 카톨릭교회가 한국어 성경을 발간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카톨릭교회의 성경관이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롬 10:17).



두 종류의 성경 본문

하나님께서서는 처음에 자신의 거룩한 사람들이 직접 쓴 자필 원본으로 성경기록들을 주셨다(벧후1:21).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자필 원본에서 필사하여 사본들을 만들었으며 처음의 자필 원본과 그 후의 많은 사본들은 수명을 다한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번역의 대본인 ‘본문’(Text)이 필요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을 담은 사본이 하나도 없으므로 누군가가 현존하는 사본들을 편집해서 ‘본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려다 보면 본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성경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다음 표는 상이한 본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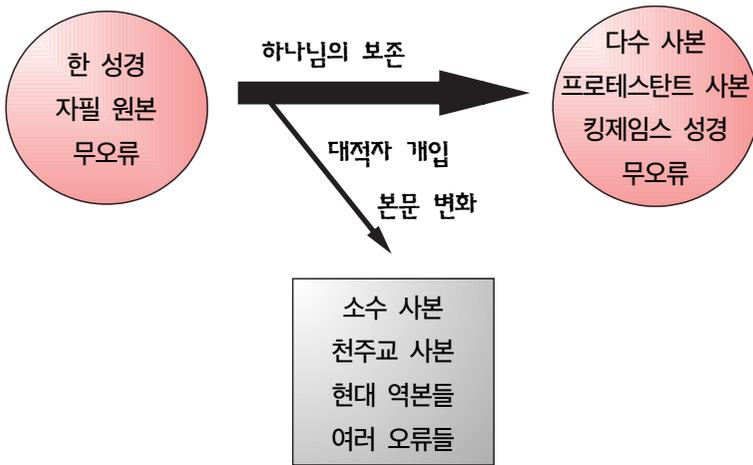
<내용이 완전히 다른 성경 구절들>

개역/공동/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19:26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시10:4-5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잠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1:14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사9:3	주께서 ...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나 이다.
...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10: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암4:4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없음	막9:44,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 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없음(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많은 차이들 중의 일부를 보여 준다.

성경 대적자의 개입

사본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구약 성경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개입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첫 사람 아담을 속여서 사람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은 뱀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은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을 주셨으나 뱀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인본주의 학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정해 왔고 그 결과 현재 두 종류의 본문이 존재하고 있다. 뱀이 늘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사14:12-14; 고후11:13-15). 다음 그림은 이 일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성경 본문 전달 과정 요약>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마16:18)는 유대교의 요람에서 탄생되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성도들로 구성된 그분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말씀들을 지켜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뱀은 초기 교회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변개하였고 드디어 313년에는 콘스탄틴(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소위 ‘기독교 공인’이라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 뒤부터 정치와 종교의

혼합물인 로마 카톨릭교회는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교도들의 각종 거짓 교리를 도입하여 순수한 기독교를 변개하였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천주교를 가리켜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불렀다.¹⁹⁾

이처럼 천주교회가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암흑 속에 가두었으나 마침내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 천주교회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들이 기독교로 복귀하게 하셨다. 이때에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때까지 로마 카톨릭교회가 지켜 온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심히 부패되었다는 사실과 바른 복음 선포를 위해 바른 성경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로마 카톨릭교회 밖에 있던 순수한 성도들이 전 유럽과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등의 지역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공인(共認) 본문’ 혹은 ‘수용(受容) 본문’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렇게 바른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인쇄술에 힘입어 온 세상을 휩쓸었고 로마 카톨릭주의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일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그토록 반대하던 로마 카톨릭교회와 일반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 주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서로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마디로 성경 본문들과 거기서 나온 역본들의 차이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같이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필자는 성경의 역사와 주요 교리 등을 다루면서 성경의 변화가 어떻게 교리를 바꾸어 천주교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구약 성경 본문

구약 성경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는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소라 본문(벤 카임 본문, *Ben Chayyim Masoretic Text*)이 거의 모든 성경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소명 의식을 가진 유대인 마소라들이 심혈을 기울여 본문을 보존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37년에 칼레는 전격적으로 전통 마소라 본문을 비전통 본문(벤 아셰르 본문, *Ben Asher Masoretic Text*)으로 바꾼 뒤, 1929년에 이미 죽은 키테의 이름을 붙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BHK) 3판을 출간하였다. 이 같은 본문 대체로 인해 약 20,000개의 수정 사항이 BHK 3판 본문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이 본문은 후에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개역성경, 신국제역(*NIV*), 신미국 표준역(*NASB*) 등 대다수 현대 역본들의 구약은 이 BHS를 기초로 하여 번역되었으므로 그 안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 어떤 마소라 본문을 대본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19)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

신약 성경 본문

신약 성경의 경우 로마 카톨릭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약 교회가 지난 1,900년간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 혹은 수용본문)을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 때문에 '다수 본문'이라고도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며 천주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동방) 본문'이라고 하고 루터와 칼빈 등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도 한다. 한편 로마 카톨릭교회는 '소수 본문'만을 고수해 오고 있는데 '소수 본문'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는다(전체 사본의 1% 정도).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전시용으로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변질된 내용 때문에 대다수 성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 두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인 본문을 5,604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개약된 '비평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한 단어는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에 해당한다. 그 뒤 1898년에 네슬레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티센도르프, 그리고 위마우스의 그리스어 본문을 조합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라는 본문을 만들었다.

세 도시 이야기²⁰⁾

성경 본문/사본 역사에 대해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 본문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금방 인정할 것이고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런 본문들의 출처임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또 이집트 본문을 채택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보존과 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성경 보존의 원리

세 도시 이야기를 펴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성경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 즉 '단어들'(words)²¹⁾을 영원토록

20) 세 도시 이야기는 리건(David F. Reagan)이 지은 소책자 「A Tale of Three Cities」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이다.

21) 우리말 성경은 'words'를 주로 '말씀들' 혹은 '말들'로 번역했으나 원래 이것은 '글자로 구성된 단어들'을 뜻한다. 하나님은 성경의 사상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시지 않고 자신의 말들, 즉 단어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셨다. 단어들(단어들)이 보존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책과 이 책자에서 '말씀들' 혹은 '말들'이 언급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들은 모두 '단어들'을 뜻한다.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배우며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확인된다. 하나님은 현대학자들의 주장대로 단지 사상만을 보존해 주시지 않고 단어 단어를 보존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말씀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 준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이 말씀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 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찾아서 믿고 순종해야 하며 절대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 부패의 원리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둘째 원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들을 수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자들이 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고후2:17)

둘째 원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 부패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역사를 통해 존재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있는 역본들이 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성경 부패의 원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한두 사람이 몰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아 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함

이 두 가지 원리를 합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계시며 마귀와 그의 천사들 역시 갖은 노력을 기울여 이 말씀을 수정하려 하고 있으므로 성경이라는 책을 단지 하나의 고대 문서를 대하듯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머(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본문을 비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또한 그런 고대 문헌을 비평하는 장치들이 성경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호머의 책에 있는 실수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책 안에 들어 있는 실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권능과 사탄의 부패시키

려는 영향 둘 다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본들의 증거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만큼이나 부정직한 것이 되고 만다.

세 도시의 개관

성경의 보존과 부패 원리에 대해 공부했으므로 이제 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세 도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세 도시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존재하던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도시들이 성경의 보존과 변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더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한마디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였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로마는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요 권력의 중심지로 그 영향력이 막강한 도시였다. 로마는 특별히 양식과 법률과 전통 등을 강조했다. 전통을 통해서 로마는 성경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로마는 성경에 외경이라는 고문서를 첨가했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신학 및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한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과학과 교육과 학자들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소위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었다. 필로와 오리겐 같은 학자들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그 주변의 이집트 및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신학과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현대 성경학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는 일을 행하였다. 여기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바로 현대 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역본들의 기초가 되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었다. 동쪽에 위치한 안디옥은 초기 사도들의 활동지였던 시리아와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의 신학과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안디옥은 대규모 도시였고 사치품으로도 유명했지만 영적 측면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고수한 곳이다. 현대 학자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 성경들의 근간이 되었다.

이 세 도시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라는 세 대륙의 중요한 세 국가의 중심지였다. 또한 이 세 도시는 야벳, 함 그리고 셈의 후예들로 구성된 세 인종을 대표하기도 했다. 도대체 이 도시들이 왜 중요한가? 도대체 이 도시들이 성경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며 동시에 대적자가 그 말씀을 부패시키려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보존된 그



<성경과 관련된 로마 제국의 세 도시>

말씀을 찾아서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그것에 순종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위해 순교할 각오도 가져야 한다.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대륙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 도시이다. 이 항구 도시는 성경에서 ‘함의 땅’으로 알려진 땅에 있다(시105:23).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설립한 이 도시는 점점 더 커지면서 고대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주전 1세기경에는 인구가 거의 백만 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치하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 문화와 과학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그 안의 대학은 그 당시 철학 및 사상계를 지배하였다. 저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오십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했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수학, 천문학, 시, 의학 등을 열심히 공부했다. 이집트에 위치하긴 했어도 알렉산드리아는 사상과 근간 철학을 살펴볼 때 그리스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그리스의 도시였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개방을 표명했으므로 온 세상의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이곳에서 집대성되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영토를 확장하고 죽은 뒤에 그의 왕국은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국과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여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고 특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 통치 때에는 유대교 탄압 등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이들은 곧바로 유대교와 그리스의 인본주의를 결합하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며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뜯어고친 이른바 알렉산드리아학파를 만들어 냈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필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그는 유대주의와 플라톤주의를 혼합하여 구약 성경을 모두 비유로 해석하는 학문 체계를 설립하여 비유 해석의 아버지가 되었다.

알렉산드리아학파

사실 필로는 유대 신학자라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자라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므로 그가 영향을 미친 부분은 유대교 관련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 철학을 세우기 위해 단순히 구약 성경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상이나 철학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기초를 세운 ‘영적 비유 해석’²²⁾을 이용하여 구약 성경을 왜곡시켰다. 그는 숨겨진 의미 혹은 영적 비유적 의미가 실제의 문자적 의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영적 성경 해석 방법’은 주후 2-3세기의 알렉산드리아학파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알렉산드리아 신학교는 주후 2세기에 판테누스라는 사람에 의해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되었으며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로 이어졌다. 이 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의 비유 해석을 으뜸으로 여겼고 그것만을 강조했다. 이 학파 출신으로 학문과 철학과 업적 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리겐(주후 185-254)이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같은 세속 문헌도 다음과 같이 알렉산드리아학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고도의 학문 연구를 위해 2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최초의 그리스도교 학파. 최초의 유명한 지도자들 - 판테누스,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 아래서 이 학파는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방법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절충하는 사상을 따랐으며...알렉산드리아학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학파는 안디옥학파로서 이 학파는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했다.

오리겐의 영향

대다수의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오리겐이 훌륭한 사람으로 미화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천재성과 종교적 열심에 대해 논하려 하지 아니하며 단지 그의 성경 지식과 해석 방법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리겐은 의복 한 벌만 소유했으며 신발도 없었고 고기도 거의 먹지 않았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모든 시간을 기도와 학문 연구에 바쳤으며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마룻바닥에서 잤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음을

22) 영적 비유 해석이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두 비유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 다르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성경 해석은 앞뒤 문맥이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 한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여 준다. 한편 그는 그 자신의 독특한 교리로 인해 바르지 못한 성경학자라는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성부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창조되었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께 복종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며 비성경적인 유아 세례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마귀들도 충분히 형벌을 받은 뒤에는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복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한편 그는 필로의 ‘영적 비유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신약 성경을 비유 해석으로 해석하고 가르쳤는데 사실 그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통해 위에 열거된 이상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리겐의 영적 비유 해석과 그릇된 교리들을 배척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의 본문 비평에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는 소위 올바른 그리스어 성경을 내느라 노력한 것으로 크게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그의 그릇된 교리들과 비유 해석이 그의 성경 본문 비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역사의 증거는 오리겐이 자기 생각에 맞추기 위해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음을 보여 준다.

오리겐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형성된 그리스어 본문을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하는데 현존하는 두 개의 사본이 이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 하나는 1844년 시내산 수도원 쓰레기 더미에서 티센도르프가 발견한 시내 사본(Aleph, 알레프)과 1481년 로마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바티칸 사본(B)이 여기에 속한다. 바로 이 두 사본이 1611년 이후에 나온 현대 역본들에서 삭제된 부분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기초가 되었다.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구성한 독본을 지지했으므로 현대 학자들은 현대 역본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부패된 본문’의 증인으로 주저 없이 그를 들고 있다.

오리겐이 죽은 뒤에도 알렉산드리아는 신약 성경 본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학자들에 의해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로 마

로마는 유럽 대륙의 이탈리아에 위치했다. 로마의 설립 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로마는 양식과 조직 그리고 법률 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는 주전 275년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했고 주전 133년에는 시리아로부터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세계 제국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로마는 인구가 백이십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로마는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주의의 근거지가 되었고 1871년에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다.

성경의 언급

로마는 성경에서 모두 아홉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1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으며 여기서 그는 특별히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유쾌하게 해 준 것으로 인해 그를 칭찬하고 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노니 이는 그가 자주 내게 새 힘을 북돋아 주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라(딤후1:16-17).

이런 구절을 통해 우리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곳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비록 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승인했지만 그 이후에도 로마는 계속해서 국가 교회를 유지하려는 자들의 손을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다.

또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로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시록 17장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 즉 창녀들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여인은 7년 환난기에 수많은 사람을 속일 단일 세계 종교 체제를 뜻한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계17:18)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의 정체에 대해 9절에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니라.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로마를 가리켜 '일곱 언덕 혹은 일곱 산 위에 놓인 도시'라고 말해 왔다. 그러므로 로마는 말세의 단일 세계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 교리의 발전

로마에서 교리의 발전은 세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비록 로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경을 번역하며 로마 카톨릭 방식의 성경 해석 체계를 세움으로써 로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인물은 키프ريان(주후 195-258년)으로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한 사람이다. 주후 1세기경의 교회들 중에서 대도시 교회들은 큰 위치로 부각되어 존경을 받고 권세를 쥐게 되었다. 그 당시 로마는 그런 도시들 중 하나에 불과했으나 키프ريان은 다른 교회보다 로마 교회가 우월함을 가르쳤고 카톨릭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쳤으며 궁극적으로 오직 로마 카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었다. 키프ريان의 가르침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근본 원리가 되어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카톨릭교회가 엄청난 정치권력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두 번째 인물은 제롬(주후 340-420년)으로 그는 특별히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했으며 후일에는 여러 여인들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에서 수도원을 창설했다. 그는 강력한 자기 부인(否認)과 성직자들의 독신 생활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주장했다. 주후 382년경에 로마 교황 다마스우스는 그에게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그는 오리겐의 작품을 이용하여 훗날 로마 카톨릭

보수주의 학자들은 참 본문에서 삭제한다!



이런 본문은 헤시키우스 본문 혹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한다.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 이 일을 통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구 라틴어 성경’, 즉 원래의 사본에 거의 일치하는 바른 역본은 궁극적으로 폐기되었고 그의 ‘신 라틴어 성경’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즉 제롬의 라틴어 성경²³⁾은 올바르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면서 강압적으로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강압적 성경이다.

세 번째 인물은 어거스틴(주후 354-430년)으로 그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히포의 감독으로 지냈다. 그는 연옥 교리 같은 사악한 교리를 창시한 장본인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성경 해석 체계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한다. 그는 소위 ‘서방 해석 방법’이라는 체계를 세웠는데 이것의 원칙은 성경 해석이 교회의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성경 해석이 교회의 전통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왜곡된 성경 해석 체계를 설립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 자들’(마15:9)이라 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비성경적 관행의 일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겼지만 로마에 의해 궁극적으로 영구한 전통으로 확립되었다.

성경 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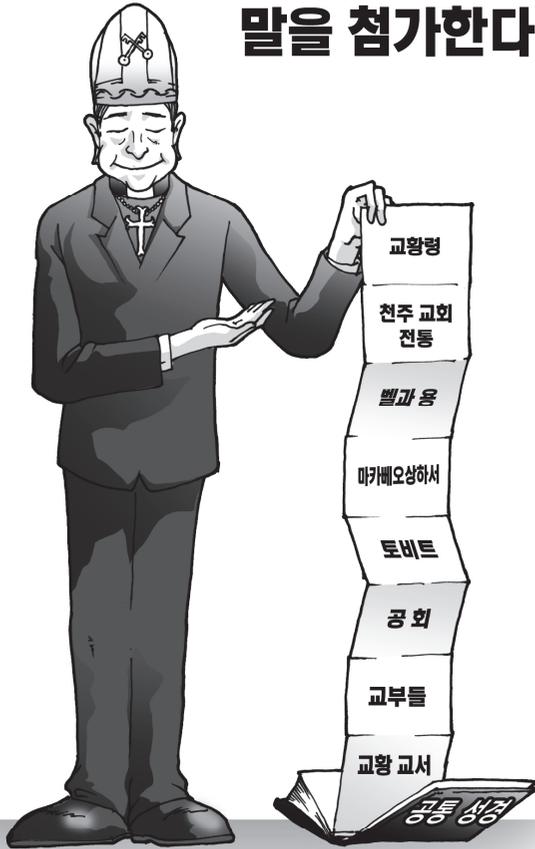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했지만 로마는 전통을 발미로 무엇인가를 첨가했다. 이 둘은 상반되는 듯하지만 사실 조화를 이루면서 로마 카톨릭 성경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 둘의 조합으로 인해 지금 온 세상에는 수많은 현대 역본이 존재하게 되었다. 비록 현대 역본들의 수는 많아도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역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불변하는 특징은 말씀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1546년에 열린 트론티 공회에서 교리로 추인되었다. 이 공회에서 이들은 외경과 사람의 전통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며 따라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전통을 위에 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한 사례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으로 유명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바티칸 사본은 1481년에 발견되었지만 초기 그리스어 학자들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조잡하므로 곧 이것을 무시해 버렸다. 이 사본은 발견된 지 약 400년이 지나서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친 로마 카톨릭 성향의 성경학자들이 1881년에 영국개역성경을 내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사본은 ‘바나바 서신’ 같은 위조문서를 첨가했으며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보여 주는 부분을 삭제했다. 즉 이 사본에서는 삭제와 첨가가 교묘히

²³⁾ 보통 라틴 벌게이트(Vulgate)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벌게이트는 ‘공통의’, ‘평민의’ 라는 의미의 라틴어 ‘vulgar’에서 나왔고 국내에서는 이것이 ‘불가타’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학자들은
참 본문에 자기들의
말을 첨가한다!**



**이런 본문은
서방 본문이라 한다.**

혼합되어 로마 카톨릭 교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각색되어 있다. 또 하나의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인 시네 사본은 1844년에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도 ‘헤르메스의 목자’ 같은 위조문서가 첨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약 성경은 심지어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완성되기도 전에 말씀을 정정해야겠다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부패되었다(고후2:17).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고후4:2). 이 같은 말씀 수정의 동기는 학식과 전통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고 로마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위조품을 자꾸 더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경이 수정되었고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나온 바로 이런 부패한 사본들로 인해 오늘날의 정결하지 않은 현대 역본들이 나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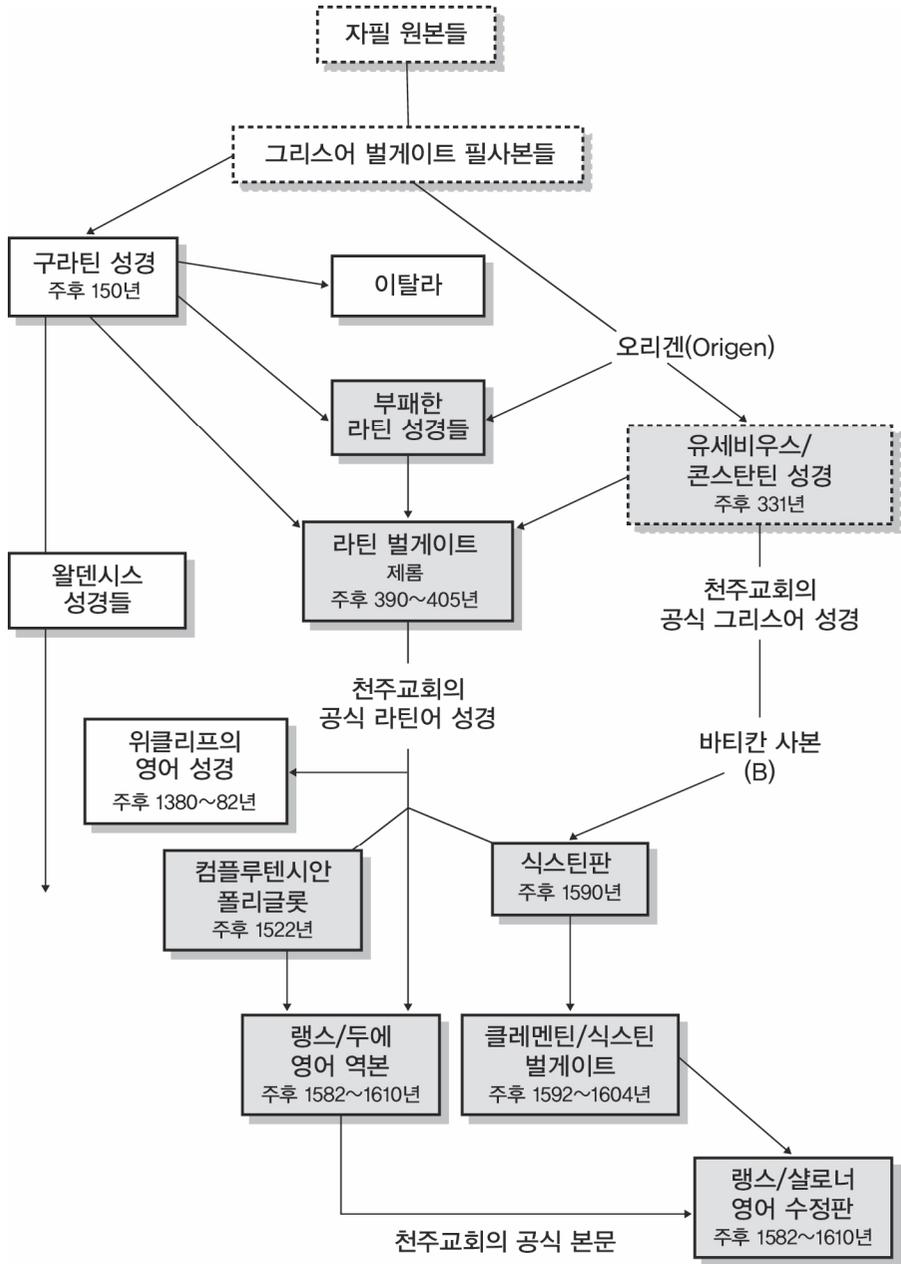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순수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까? 물론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나온 사본에서 번역된 성경이 바로 그 순수한 말씀이다.

안디옥

안디옥은 아시아 대륙의 시리아에 위치해 있었다. 안디옥의 원래 거주자들은 창세기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노아의 아들인 셈에게서 나온 아람이라는 인물의 후손들이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아벳의 후손들이나 아프리카의 함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지 아니하셨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분께서는 아시아의 셈족을 통해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점에서 노아의 예언 즉,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적절하다(창9:26).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셈의 후손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심을 보여 준다.

그분께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자신의 특별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요4:22). 실로 메시아 예수님 역시 셈의 후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보존한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롬3:1-2).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셈의 후손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서 역시 셈의 후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안디옥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신약 성경을 보존해 준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소아시아와 시리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야말로 초기 부흥과 선교의 중심지였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역사를 통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아주 중요한 곳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안디옥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요, 성경 보존의 중심지가 되었다.



<천주교 라틴 성경의 부패 과정>

어떤 성경 교사나 크리스천 그룹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로마는 교권적인 해석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교회의 과거 전통과 교회 신학자들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누차 말했듯이 알렉산드리아의 해석 방법은 영적 비유 해석이다. 그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서 자기가 원하는 철학이나 사상에 맞게 해석했다. 오직 안디옥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안디옥학파에 대해 브리태니커 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리아에 있던 그리스도교 신학 학파. 전승에 따르면 200년경에 세워졌다. 성서의 비유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강조한 알렉산드리아학파에 반대하여 성서의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의 완전함을 강조했다. 4-6세기에 번성했던 안디옥학파는 여러 명의 주요 신학자를 배출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 모프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 성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 등이 있다.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하면 성경은 말하는 것 그대로를 의미하며 의미하는 것 그대로를 말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므로 그것을 조작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어떤 도시에서 바른 사본이 나왔는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세 도시의 특징>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지리적 측면	크기	가장 큼	두 번째로 큼	세 번째로 큼
	위치	이탈리아(유럽)	이집트(아프리카)	시리아(아시아)
	인종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
역사적 측면	언급 횟수	9번	3번	19번
	특징	박해를 가한 곳	거짓 교리	성경적 기독교
	영향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소아시아 시리아
성경적 측면	성경 해석	전통적/교권주의적	학자적/비유 해석	성경적/문자적
	성경 처리	첨가	삭제	보존
	본문	서방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시리아 본문

성경의 언급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이 안디옥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아무리 역사적/지리적 특징이 바르다 해도 성경적 특징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안디옥에 대해 성경은 열아홉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였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초기 사역은 사도행전 11장 19-30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은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였고 증인이 되는 교회였으며 가르치는 교회였고 섬기는 교회였으며 남을 돕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으며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안디옥 교회는 여러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했음을 쉽사리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사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신약 성경의 보존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들은 약 6,000개이다. 이 사본들은 대개 서방 계열(Western family), 알렉산드리아 계열(Alexandrian family) 그리고 시리아 계열(Syrian family) 등으로 분류된다. 서방 계열은 로마와 관련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알렉산드리아와 관련이 있으며 시리아 계열은 안디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사본들은 다 서방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것들로서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소수 사본이라 불린다(1% 미만). 이 소수 사본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애지중지하고 공을 들여 수정한 것들이다. 반면에 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다수를 차지하여 자연스레 다수 사본, 보편적 사본, 종교 개혁 사본, 비잔틴(동방) 사본이라 불린다. 이 사본들이야말로 초기 순교자들과 중세 개혁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고 보존해 준 사본들이다.

성경의 판결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최종 권위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 경고하는 바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집트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판결이다. 그렇게 지혜가 많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집트에서 물건과 사람을 가져오다가 실족하여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가?(신17:16; 왕상3:1; 왕상10:28-29)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란 말인가? 부디 성경의 판결을 믿기 바란다. 예나 지금이나 이집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책들을 저술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보존하신다면 그분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쓰셔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것이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 일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최종 권위가 없이 살아야 한다.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실 수 없다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인류는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거친 세상을 곳곳이 살아갈 수 있다. 1611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선물로 주셨다. 이제 우리는 이 보물을 읽고 외우고 그것에 순종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항상 최종 권위의 본문이 있다!



이런 본문은 비잔틴 본문 혹은
공인 본문이라 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번역의 대본인 ‘본문’(Text)이 필요하다. 아무리 번역자들과 번역 기법이 우수해도 대본이 나쁘면 거기서 번역된 역본 역시 필연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다. NIV, NASB, 개역성경,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의 모든 현대 역본들은 기본적으로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 1825-1903년)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년)의 그리스어 ‘비평 본문’을 사용한다. 도자기를 만들면 기술자의 지문이 그 안에 남게 마련이다. 이와 동일하게 저술에도 저자의 사상이 배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중요한 두 사람의 행적을 통해 이들의 부패된 사상을 살펴보고 그런 사상이 그들의 그리스어 본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그리스어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만큼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인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그리스어 본문 연구에 지대한 발전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선전해 왔으나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단, 불신앙, 배교 등의 여러 죄목으로 이들을 고소했으며 참으로 이들이야말로 성경의 참 본문에 극심한 손상을 입힌 배도자라고 주장해 왔다.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람들과 또 성경 본문에 대한 그들의 이론들에 대해 알려진 바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학자가 성경과 그 안의 교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연구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의 발견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때때로 학식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위험한 권위를 만들어 내기에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웨스트코트의 아들이 지은 「웨스트코트의 삶과 서신들」과 호르트의 아들이 지은 「호르트의 삶과 서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장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자료는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책들로부터 직접 인용한 것들이다.²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본문 비평학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인물이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을 이집트와 로마 카톨릭교회의 ‘국지적 본문’으로 대체하였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지닌 우월성에 대해 매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산물인 ‘바티칸 사본’과 ‘시네 사본’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본이라고 믿었다. 비록 호르트가 ‘안디옥 본문’, 즉 ‘보편적 본문’의

²⁴⁾ 본 장은 김(Samuel C. Gipp)이 지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의 8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연대가 그 두 사본의 연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카톨릭 사본들을 신뢰했다.

‘보편적 본문’이 로마 카톨릭 본문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성경 역사에서 이 본문이 차지한 높은 권위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으며 종종 호르트는 자기의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냈다.

나는 그 야비한 공인 본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리스어 성경을 거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본문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적으로 후대 사본들에 기초를 둔 그 비열한 공인 본문을 생각하면 그런 초기의 것들 - 역자 주: 로마 카톨릭 사본들 - 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다.²⁵⁾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국지적 본문’인 소수의 영철(대문자) 사본들을 기초로 하여 ‘수정 그리스어 본문’(비평 본문)을 만들어 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왜곡된 로마 카톨릭 사본들은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자기들의 본문을 만들 때 이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공격한 역사를 지닌 사본 계열에 큰 중점을 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은 이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성경을 대하면서 그것을 이미 사라진 역사가나 철학자의 글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인간의 글인 고문서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번 베껴 쓴 모든 산문에서 거의 발견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 본문 안에도 생략에 의한 본문의 부패보다 삽입에 의한 부패가 훨씬 더 많다.²⁶⁾

우리는 그의 이런 생각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이 셰익스피어나 플라톤의 글과 비교하여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는가? 성경이 여느 사람들의 글과 다르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지 않을까?

사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성경의 권위자로 치켜세워지고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근본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

25)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 I, p. 211.

26)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p. 240.

호르트의 문제점

호르트는 에덴동산의 실재를 부인한다.

나는 에덴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울릿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²⁷⁾

우리는 또한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지 않은 호르트의 불신앙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약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²⁸⁾

심지어 그는 한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지지하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²⁹⁾

호르트는 같은 시대를 산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감명을 받지 않았지만 비성경적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C. Darwin)에 대해서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 동료인 웨스트코트에게 매우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다윈에 대해 읽어 봤소? 그 이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 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그리고 엘러톤(J. Ellerton)에게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그러나 나의 주의(注意)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어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요.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요.³⁰⁾

어떤 때 보면 호르트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 예로서 근본적인 성경 진리에 대한 그의 관점을 들 수 있다. 인격적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만일 마귀가 있다면 그는 단순히 부패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사악해야만 하며 또한 그의 이름과 그의 에너지와 행동이 다 사악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지지한다면 말씀의 거룩한 특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³¹⁾

27)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 I, p. 78.

28) 동일 문서, p. 400.

29) 동일 문서, pp. 420-422.

30) 동일 문서, pp. 414-416.

31) 동일 문서, p. 121.

호르트 박사는 또한 글자 그대로의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았다.

모리스의 편지는 우리가 미래의 처벌 기간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영원한'이란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나는 생각하며 또한 항상 불가능하게 생각되어 내 마음과 상치되는 것이 소멸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것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³²⁾

비록 고등 교육을 받은 호르트의 마음속에 글자 그대로의 마귀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지만 로마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연옥에 대한 거짓 교리는 그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1854년 엘러톤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세 가지 주요한 논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영원이 기간과는 상관없다; 2.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3.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영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시대 사람들이 이 중 두 번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즉 연옥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학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³³⁾

또한 한 젊은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그는 아래와 같이 편지했다.

나는 불로 깨끗하게 되는 연옥(煉獄)에서의 정화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성격도 역시 변해야만 한다는 이 교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 그 저주받은 연옥 교리가 크고 중요한 진리를 믿는 믿음, 즉 카톨릭 믿음을 유지시켜 주었으므로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조항에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³⁴⁾

호르트 박사의 의견들은 확실히 정통 교리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고집불통이며 제멋대로 행하려는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호르트 박사 자신의 글이 보여 주듯이 그는 몇몇 다른 기본적 진리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을 거부했다.

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³⁵⁾

32) 동일 문서, p. 149.

33) 동일 문서, p. 275.

34) 동일 문서, Vol. II, pp. 336-337.

사실 호르트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이단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³⁶⁾

사실 호르트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값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속죄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다고 믿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한 속죄 값이라는 그 원시적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혐오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것 말고는 속죄 값에 대한 교리를 조리 있게 변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속죄 값을 드린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낫다.³⁷⁾

호르트 박사는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 즉 유아 세례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는 가르침이 복음주의자들의 가르침보다 옳다고 믿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³⁸⁾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다.³⁹⁾

호르트는 자기의 맏아들 아더에게 그가 유아 세례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켰다.

너는 단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왕국의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태어났다. 하나님은 네가 아직 유아였을 때 세례를 통해서 너를 자신의 교회, 즉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위대한 성회의 '무의식적인 한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너는 그리스도인 영향권 내에서 자라났다. 즉 눈을 들어 너 자신의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도록 교육을 받았고 또한 이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그에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한 부분 또는 일원으로서의 놀라운 감격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너의 타고난 권리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네 몫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⁴⁰⁾

35) 동일 문서, Vol. I, p. 120.

36) 동일 문서, p. 430.

37) 동일 문서, p. 428.

38) 동일 문서, p. 76.

39) 동일 문서, Vol. II, p. 81.

40) 동일 문서, p. 273.

호르트는 사실 공산주의와의 접촉을 통해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대략 1850년경 그와 엘러톤 목사와의 계속적인 편지 왕래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여기서 앞으로 3, 4년간 공산주의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꽤 잘한 일입니다.⁴¹⁾

내가 공산주의를 연구한 것은 바로 정치 분야를 통해서였습니다.⁴²⁾

확실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예정을 받아 자기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복과 талан트, 즉 권력, 부, 영향력, 지위, 출신 등을 공산주의자들처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⁴³⁾

또한 호르트는 그의 좋은 친구였던 웨스트코트와 또 소위 유령 길드(Ghostly Guild)라는 단체에 속한 다른 이들과 같이 초자연적인 것에 깊이 몰두했다.

웨스트코트, 고햄, 스코트, 벤슨, 브래드쇼우, 루아드 등과 나는 유령과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결과들이 정말로 존재하며 또한 그것들이 속임수나 단순한 주관적 망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실제로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얻게 되어 행복해 할 것이다. 웨스트코트는 질문들의 목록을 짜고 있다. 코우프는 우리를 암탐과 수소 클럽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이 그룹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유령 길드라 할 것이다.⁴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이 정도로 비성경적이며 무신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못 된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설교자나 전문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그런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호르트 박사가 뛰어난 그리스어 학자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지식인이라 해도 스스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는 절대로 성경의 권위자가 될 수 없다(고전2:14).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지식인이었지만 성경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가 성경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아무도 그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대한 심성이나 능력을 소유한 것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보증 수표는 아니다. 비록 호르트 박사가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의 뛰어난 학벌이나 학식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관한 그의 이론을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목사가 복음 전도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호르트의 비기독교적 신앙에 버금가는 불신앙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면 당장에 그 모임을 취소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호르트의 신앙관이 매우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서도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41) 동일 문서, Vol. I, p. 130.

42) 동일 문서, p. 138.

43) 동일 문서, p. 139.

44) 동일 문서, p. 211.

그리스어 학자'로 옹호하며 자기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어 악의에 찬 그가 그것을 모욕하고 내던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호르트는 한때 성경이 차지했던 권위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목사/성도들의 무분별한 신앙 때문이며 또한 신학교 시절의 인본주의 교육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신학교들 또한 알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들은 영국을 다시 한 번 로마 카톨릭화하려는 예수회의 운동 아래 부각된 두 사람, 즉 호르트와 웨스트코트의 권위를 단순하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윌켄슨은 실제로 호르트가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호르트 박사는 본문 비평학의 아버지인 천주교도 시몬의 글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공간이 된 공인 본문과 같은 계열에 속한 사본들과 및 성경들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말한다.⁴⁵⁾

웨스트코트의 문제점

웨스트코트 박사의 신용장 역시 호르트의 신용장과 비슷하다. 웨스트코트는 창세기 1-3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믿지 못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까지 언급하신 모세나 다윗도 시적 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웨스트코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세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⁴⁶⁾

또한 그는 다윗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영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신학교의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의 처음 세 장이 모두 비유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 웨스트코트는 또한 기적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모두 의심했다.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어 본 적이 없으나 직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했다.⁴⁷⁾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45)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04.

46)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e Foss Westcott」, (New York, 1903), Vol. II, p. 69.

47) 동일 문서, Vol. II, p. 52.

역사적 믿음에 관해 기록한 나의 작은 책 안에서 주의 오심에 대해 내가 믿는 바를 간략히 말한 적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야말로 주의 말씀이 첫 번째로 성취된 재림이었다고 강하게 믿었고 그 외에도 다른 재림이 수차례 있었으므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⁴⁸⁾

웨스트코트 감독은 기본적인 천국의 교리를 부인했다. 실제로 그는 천국을 글자 그대로의 장소로 믿지 않았고 어떤 상태로 믿었다.

전례 법규의 언어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성의 임재를 실제의 장소와 연결 짓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 준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⁴⁹⁾

보이지 않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영역이다. 천국은 우리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생각, 회상 그리고 동경을 위하여 조용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상태, 즉 천국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천국을 숨 쉴 수 있다.⁵⁰⁾

우리는 인내, 확고한 결심, 믿음 그리고 노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천국, 즉 우리의 지상 생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바이다.⁵¹⁾

어떤 사람이 읽는 책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다. 웨스트코트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교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로마 카톨릭교회를 선호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지속된 공세로 인해 결국 웨스트코트는 많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례들과 자기의 사고가 일치하게 만들었다. 1849년 2월 그는 로마 카톨릭화하려는 자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성경의 영감’과 ‘로마 교황의 사도 계승권’,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주제를 단지 진리 추구를 위해 진정으로 연구하게 하소서!⁵²⁾

첫째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 웨스트코트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부인했다.

친애하는 호르트에게: 나는 당신의 글과 라이트푸트의 글을 보게 되어 기쁘고 또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 신념에 앞서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먼저 확립해야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의심들이 나의 무식함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 절대적 진리보다는 어떤 임의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48) 동일 문서, Vol. II, p. 308.

49) 동일 문서, Vol. II, p. 49.

50) 동일 문서, Vol. II, p. 253.

51) 동일 문서, Vol. II, p. 394.

52) 동일 문서, p. 110.

발견하고 있소. 나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란 단어를 부인하오.⁵³⁾

로마 카톨릭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드디어 영국 성공회에 속한 선한 감독 웨스트코트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잃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의 로마 카톨릭 성향은 결국 그에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의식’을 허락하게 만들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이미 인정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런 의식에 대해 그는 1900년 8월에 한 성직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몇몇 다른 감독들과 의논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예배에서 교회 전체와는 별개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도 때에는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⁵⁴⁾

우리는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미워해야 한다(유23). 웨스트코트 박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범의 가죽만큼이나 천주교의 얼룩얼룩한 점으로 오염된 사람이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그토록 충성했던 제롬과 비길 수 있는 신념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어 본문을 공정하게 수정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로마 카톨릭교회의 또 다른 교리는 마리아 숭배이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에 대한 웨스트코트의 감탄의 정도는 그의 아들 아더가 설명한 대로 심지어 자기 약혼녀의 이름을 마리아로 바꾸고자 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 어머니의 이름은 사라 루이사 위타드(Sarah Louisa Whittard)로 세 자매 중 장녀였습니다. 어머니는 후에 아버지의 요구대로 견진 성사 때 세례명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⁵⁵⁾

웨스트코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의심했지만 로마 카톨릭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에 있는 라살레트의 우리의 마리아라는 성물 함에서 자기가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⁵⁶⁾

글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아버지의 열렬한 에너지, 딸의 겸손한 감사,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구경꾼들의 빠른 눈초리, 사제의 만족감, 표정과 끄덕임의 이야기들이 19세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믿음의 시대가 고대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서 회복되었다. 우리는 굉장한 호의를 보여 준 젊은 신도에게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참여하게 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설명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없이 어찌 이 일을 설명할

53) 동일 문서, p. 110.

54) 동일 문서, Vol. II, p. 349.

55) 동일 문서, Vol. I, p. 8.

56) 참고로 라살레트는 마리아가 출현하여 기적을 베푼다고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장소이다.

수 있을까?” 이 장소의 중요성과 힘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⁵⁷⁾

웨스트코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적인 것이며 천국은 마음의 상태라고 믿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개인기도 시간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리스도가 국제적 무장 해제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었다. 그는 연옥을 믿었고 마리아를 숭배했으며 성경도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사람이 영국개역성경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으며 우리가 읽고 믿는 성경의 심판관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을 지지하는 ‘개약된 그리스어 본문’으로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두 명의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공통된 소망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 즉 ‘보편적 그리스어 본문’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여러 학자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이들의 노력은 ‘보편적 본문’이 정말로 성경의 참 본문이며 자필 원본이 보존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런데 이 두 학자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에 의해 교묘히 영향을 받았으며 자기들의 의무가 이 순수한 프로테스탄트 본문,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본문을 던져 버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눈에 드러나는 현저한 증거는 항상 하나님의 편으로 기울어 있다. 아무도, 심지어 로마 카톨릭교회조차도,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99% 이상이 보편적 본문인 이유를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인본주의자들의 ‘본문 비평’은 이러한 장애물이 극복될 때까지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로마 카톨릭교회의 본문을 살리기 위한 길을 터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호르트라라는 천재였다. 이 사람은 다윈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전복시키는 데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편적 본문의 권위를 뒤집어 버렸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학설’을 사용했다.

그의 학설은 다름이 아니고 자필 원본은 국지적 본문과 일치하는데 이 국지적 본문을 주후 4세기에 안디옥에 있던 시리아 교회가 마음대로 편집했고 그렇게 편집된 본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본문이며 그 이후에 교회의 공회가 이 본문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즉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이 변개된 것이고 현대 역본들의 국지적 본문이 올바르게 보존된 것임을 의미한다.

다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식과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의 이론의 부당함을 입증하였다. 다윈과 마찬가지로 그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편들을 모두 모아 뒤틀고 과장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론으로 만들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그의 학설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의 산물이며 결코 역사적 사실이나 증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하나님의 권위를 폐지할 길을 찾고

57) 동일 문서, Vol. I, p. 254.

있었던 지식인들은 그의 학설을 압도적으로 받아들였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에 분개한 과학자, 생물학자, 대학 교수들의 귀에 마치 달콤한 음악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자연스레 사람의 육체 안에 적개심과 반항심 같은 것을 불러일으켰다(롬7:18). 따라서 다윈이 세상에 그의 이론을 내놓았을 때 온 세상은 그 거짓말을 기꺼이 믿었다.

그런데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할 수 있으며 또 보존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분개해 왔다. 절망적인 과학자들처럼 그들도 역사의 증거나 사실이 킹제임스 성경의 편이라는 점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던 때에 웨스트코트 박사의 후원을 받은 호르트의 학설이 발표되자 그것은 곧 ‘본문 비평의 해방’으로 알려졌다.

다윈의 학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호르트의 학설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들은 결코 호르트의 지지자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고대의 것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성경이라는 생각을 없애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호르트의 이론과 다윈의 이론에는 또 다른 유사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론들의 오류가 입증된 뒤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한다는 점이다. 다윈의 이론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식 등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끈질기게도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 떠받들어 왔다. 그들은 다윈의 이론이 자기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들은 다윈의 이론이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 도망칠 수 있게 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교의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 현대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숭배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성경 신자들이 이 같은 구원의 도리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험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지하다니 정말로 슬픈 일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신앙심 없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 눈이 멀어 사실을 도외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 2-3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말했던 것같이 크리스천 학자들이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벤엘로 올라가야만’ 그런 부흥이 가능할 것이다.



개역성경 분석

개역성경의 본문

로스의 성경을 필두로 하여 한글 성경은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교회 소수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되었다. 개역성경의 구약은 1901년의 미국표준역(ASV)에 기초하여 번역되었는데 미국표준역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한 영국의 개역성경(ERT)과 내용이 같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도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집트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같으므로 문체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각주에 “더 좋은 사본에……”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우 더 좋거나 더 오래된 사본들의 대다수는 대한성서공회가 자신들의 성경 번역을 위해 대본으로 삼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들이다.

교황, 마리아, 연옥, 사제, 면죄부, 행위 구원 등 비성경적 요소로 가득한 기관이자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단체에서 성도들을 위해 올바른 성경 사본을 보존해 왔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대한성서공회를 움직이는 연합성서공회의 지도자가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⁵⁸⁾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판결을 믿기 바란다. 이집트 사상을 이어받은 로마(바빌론)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계17, 18장).

개역성경의 용어

성경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단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중국 및 인도의 이교도 사상과 토속 사머니즘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와중에 이런 비성경적 사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개역성경에는 기독교 개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다. 한 예로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우리말큰사전’은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넋’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중국 등에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바른 본문에서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 온 킹제임스 성경은 정관사 ‘the’가 붙은 마귀, 즉 유일한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마귀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58) 천주교 추기경인 마르티니(Carlo M. Martini, 1927-2012)는 밀라노의 주교이며 교황 성경 연구소에서 신약 성경 본문 비평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1967년부터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편집자 중 하나로 일했다.

다음은 성경 번역자들의 본문 및 용어 선택이 신학과 교리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1. 한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인가?

● 삼위일체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며 사실 이 교리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마땅히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할 성경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믿음을 가르친다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개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역번역: God is one person. 딤후2:5)

흠정역: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영어 KJV: There is one God).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며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뚜렷한 세 분으로 존재하시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

흠정역: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그런데 개역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개역성경에도 7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었으므로 원래의 7절은 삭제되었다.

개역: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가?

삼위일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이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 복음적인 교단의 목사나 지도자들 중 일부도 이런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곧 양태론이다. 또는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는 주장 역시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이다. 이렇듯 양태론의 핵심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단 교리라고 말한다. 한국에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한 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개역성경 때문이다. 이들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근거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

개역: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개역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해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르다.

흠정역: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흠정역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로 되어 있다. 즉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성경 본문의 작은 차이도 성경의 중요 교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개역성경의 뿌리가 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NIV 등도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임을 보여 주며 그 결과 예수 유일주의 같은 이단 교리가 발붙일 틈을 주고 있다.

NIV: I will remain in the world no longer, but they are still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the name you gave me—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한편 성경적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간을 생각해 보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x), 너비(y), 높이(z)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작은 것도 반드시 x, y, z 세 방향의 크기를 가지며 이로써 그 물질이(혹은 공간이) 구성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우주에 많이 만들어 두셨다.

● 하나님을 삭제한 구절들

한편 개역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삭제했다. 다음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삭제한 몇 가지 예를 보여 준다.

흥정역: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마2:12)

개역: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a)

흥정역: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마6:33).

개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b)

흥정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마21:12)

개역: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c)

흥정역: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4:4).

개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d)

흥정역: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눅21:4).

개역: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e)

흥정역: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롬15:19).

개역: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f)

흥정역: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서(갈1:15)

개역: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g)

흥정역: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상형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딤펴3:16)

개역: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h)

흥정역: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계14:5).

개역: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ⁱ⁾

흥정역: 하나님께서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계21:4)

개역: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j)

(d)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역성경은 대다수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삭제하였다. 그 이유는 번역의 근간이 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삼으려는 자들에 의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h) 용례에서 우리는 개역성경이 ‘하나님’(God)께서 육체 안에 오셨음을 보여 주는 성육신 교리마저 부인하려 함을 볼 수 있다(딤후3:16).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구절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한다.⁵⁹⁾ 도대체 개역성경의 ‘그’(he)는 누구란 말인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포함하고 있는 300여 개의 그리스어 사본 중에서 오직 다섯 개의 사본 - 9, 12, 13세기의 후대 사본 - 만이 ‘하나님’(God)을 삭제하고 있다. 시내 사본 등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God’으로 혹은 ‘who’로 추측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한편 주후 265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 등과 같은 초기의 증인들도 이 구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지한다. 이와 더불어 주후 110년의 이그나티우스 등도 이 구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주후 400년 이전에는 배교자요 이단인 오리겐만이 여기서 ‘하나님’을 삭제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 스페인의 발레라 성경, 포르투갈의 알메이다 성경, 루터의 독일어 성경 등 세계 전역에서 사용되어온 역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은 1881년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 - 이것은 연합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그리스어 본문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다 - 에서 이 단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삭제는 압도적인 사본들의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81년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의 교리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위원회에는 스미스(V. Smith)와 쉐이어(J. H. Thayer)라는 이름의 유니테리언 교도⁶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삭제되었다. 다음은 이들의 증언이다.

성경 개정자들은 - 스미스와 쉐이어 - 고대 사본들 중에서 이 구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지 겸손한 선생에 불과하던 예수를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바라보려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단 교리를 수용한 쉐이어는 지금도 대다수의 신학 대학에서 그리스어 시간에 참고 문헌으로 많이 사용하는 「쉐이어의 그리스어 어휘사전」(*Thayer's Greek Lexicon*)의 저자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신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59)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Section 8, Paragraph 2

60)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 이들은 하나님이 한 위(位)로만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예수의 인성에 대한 신학적 기반은 2-3세기의 단일신론과 아리우스 및 그 추종자들(아리우스파)의 가르침에서 발견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이단 교도가 지은 사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유니테리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심지어 성경 개정 위원회와 성경적 교회에도 이들이 침입하여 성경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자 더 이상 이것을 방관할 수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뜻있는 사람들이 트리니테리언 성경 공회⁶¹⁾를 조직하여 유니테리언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단의 활동은 무섭고 집요하다.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속기 쉽다. 그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가 이단 사상을 지녔으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단호히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나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요이10-11).

●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 독자는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한’(holy)을 삭제한 사례들>

개역성경/NIV 등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모든 천사	마25:31	모든 거룩한 천사
모든 형제	살전5:27	모든 거룩한 형제
사람들	벧후1:21	거룩한 사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계18:20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선지자들	계22:6	거룩한 대언자들
성령	마12:31	성령님
성령	요7:39	성령님
성령	행6:3	성령님
성령	행8:18	성령님
성령	고전2:13	성령님
개역성경의 ‘성령’은 원래 ‘영’(Spirit)인데 임의로 ‘성’을 넣은 것이고 흥정역의 ‘성령님’(Holy Ghost)은 원래 ‘Holy’가 있으므로 그대로 번역한 것임.		

61) Trinitarian Bible Society: <http://www.trinitarianbiblesociety.org>

2. 독생하신 아들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인가?

● 그리스도는 창조된 신인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을 제대로 알 때에 비로소 올바른 구원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개역: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요1:18)

흠정역: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여기서 ‘독생하다’는 말은 영어로 ‘only begotten’이며 이는 ‘유일하게 낳은’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개역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낳은 하나님’임을 보여 주며 이로써 또다시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를 지지한다. 성경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일2:22)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들’(Son)을 제거해 버린 현대 역본들은 성경의 증거에 따라 다 적그리스도이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같이 영존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나신’(begotten)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흠정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KJV: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매우 유감스럽게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원래의 문맥에서 변개되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리들의 밥이 되고 말았다.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종교와 윤리학 사전은 요한복음을 가리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반론’이라고 칭하고 있다.⁶²⁾ 결과적으로 역사는 발렌티누스라는 이집트의 영지주의자가 요한복음의 ‘독생하신 아들, 즉 유일하게 나신 아들’, 곧 ‘독생자’를 ‘유일하게 나신(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변개함으로써 요한의 일격을 봉쇄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발렌티누스는 파피루스 72와 66 같은 것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이 주장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사람들이 수용하게 했다.

이러한 투쟁은 4세기까지 지속되어 오리겐의 학생인 아리우스에게 전해 내려왔고 그는 ‘유일하게 나신 아들’, 즉 독생자를 신조로 삼는 아타나시우스 등과 싸워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 여겼다. 이러한 아리우스주의가

62)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p. 240.

대중에게 지지를 얻자 아리우스주의를 내심 추종하던 유세비우스는 주후 325년에 ‘예수가 모든 시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사 모든 창조물 중 처음이 되신 분’이라고 콘스탄틴의 교회 칙령에다 첨가했다.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이 점점 더 강성해짐에 따라 주후 330년에 콘스탄틴은 소극적 아리우스주의자였던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를 적극적 아리우스주의 신봉자인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Nicomedia)로 대체하였다. 그는 또한 주후 335년에 아타나시우스를 추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강력하게 옹호했기 때문이었다. 콘스탄틴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만들도록 명령한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요한복음 1장 19절을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띤 것이었다.

사실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용어는 대다수의 사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대해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인 주후 180년의 터툴리안의 기록도 이 용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심지어 연합성서공회(UBS)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편집자인 위크렌(Allen Wikgren)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많으며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전통 안에서 발견되는 초보적인 실수로 필사 시에 이루어진 실수일 것이다.⁶³⁾

그러나 연합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본문 비평 장치(Textual critical apparatus)는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클레멘트, 오리겐, 아리우스 등을 동원해 가면서 비록 이 증거들이 교리적으로 비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다.

이런 것을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이처럼 ‘창조된 하나님’은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의 여러 구절에서 발견된다.

흠정역: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whose goings forth)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개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whose origins) 상고에, 태초에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기원이 없다. 오직 창조물에게만 근본이 있으며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므로 근본이 없다.

● 낳다(beget)의 의미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므로 과거의 언젠가

63)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p. 198.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아들을 낳은 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위일체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으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창조물이 된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므로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낳다’(beget)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말에서는 ‘beget’을 ‘낳다’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beget’은 ‘get’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I got the book.” 혹은 “I got the cold.”라는 말은 “내가 책을 손에 넣었다.”, “내가 감기 들었다.”를 뜻한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손에 넣게 되면 그것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get’의 원래 의미는 ‘소유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마1:2) 등에서 ‘낳고’를 모두 ‘beget’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낳지 않았다. 단지 이삭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없으므로 ‘beget’을 어쩔 수 없이 ‘낳다’로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 ‘beget’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get’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낳다’(beget)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며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Beget: appli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Father to the Son in the Trinity; also to the spiritual relationship of God to man in regeneration.

이 사전은 분명하게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beget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다시 태어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아버지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편 2편 7절 말씀, 즉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I have begotten thee).” 역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낳았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32-37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즉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3-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으며 인성 면에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 수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 그리스도의 신성 경시

다음에서 개역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다.

개역: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아들에 관하여는(about the Son)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히1:5, 8)

흠정역: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unto the Son he saith), 오 하나님이며,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오 하나님이며!” 하고 말할 수 있었는가? 개역성경은 NIV 같은 현대 역본들과 보조를 같이하며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들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흠정역: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빌2:5-6)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位格)이시므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셨음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얼버무려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잘못 보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개역: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무소부재’, 즉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것이다. 사람 중에서 무소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무소부재 하시며 그래서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흠정역: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요3:13).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무난하게 번역하고 있다.

개역: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하늘에 있는’이며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무소부재를 증명해 주는 단서가 된다.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불신이다. 믿지 못하면 삭제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을 필사한 서기관들의 관습이었다.

● 그리스도를 부인함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요일2:22).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여러 곳에서 삭제했으며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보여 준다.

흠정역: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23:8).

개역: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a)

흠정역: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눅4:41)

개역: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b)

흠정역: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요4:42).

개역: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c)

흠정역: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 이다, 하매(요6:69).

개역: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d)

흠정역: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롬1:16).

개역: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e)

흠정역: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롬16:20).

개역: ...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f)

흠정역: 그러면 나의 보상이 무엇이나?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고전9:18).

개역: ...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g)

흠정역: 영원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고후11:31).

개역: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다...(h)

흠정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갈3:17)

개역: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i)

흠정역: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개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j)

흠정역: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살전2:19)

개역: ...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k)

흠정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살후1:8)

개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l)

흠정역: 그 일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딤후2:7).

개역: ...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m)

(e), (g) 용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요약해 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15:3-4)

(i) 용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것임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j) 용례도 매우 중요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은 그냥 불특정 인물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 본문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는가?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서도 개역성경보다 훨씬 더 낫다.

● 그리스도의 주(Lord) 되심 부인

신약 성경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Lord)라고 할 때 이것은 그분이 곧 구약 성경의 ‘주’ 곧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삭제하여 그분께서 마땅히

취하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찬탈하고 있다. 다음은 ‘주’를 삭제한 구체적인 예이다.

흥정역: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막9:24).

개역: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a)

흥정역: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므로(막 10:51)

개역: ...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b)

흥정역: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눅23:42)

개역: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c)

흥정역: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행9:6).

개역: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d)

흥정역: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4:10).

개역: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e)

흥정역: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갈6:17).

개역: ...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f)

흥정역: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딤후4:1)

개역: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g)

흥정역: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계19:1).

개역: ...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h)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눈먼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받기 전의 사울도 다 예수님을 ‘주’(Lord)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선생님’ 등으로 바꾸는 것은 주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하는 것이다.

● 임마누엘을 부인함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이다. 이사야서에서 처음 언급된 이 말(사7:14; 8:8)은 성경에 단 세 번 나오며 마태복음에서 성도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마1:23).

개역: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개역성경에 따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평범한 약속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구절을 주지 아니하셨다.

흠정역: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비슷하게 보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말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달리 번역했으므로 이런 구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단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요일4:3)라고 말했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적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금석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개역: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와 ‘육신 안에 오셨다’는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속임수로 인해 고통을 자초할 것이다.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피서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요이7-11).

지금까지 우리는 개역성경이 무려 12번 이상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삭제한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도 삭제되어 있다.

●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부인

한편 알렉산드리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마저도 공격한다.

개역: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눅2:33)

흠정역: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또한 마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무척이나 애쓴다.

개역: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5:22)

흠정역: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기관들에게 노하셨는데 만일 이런 구절에서 ‘까닭 없이’가 빠진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 그리스도의 피 부인

또한 개역성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삭제하였다.

개역: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1:14)

흠정역: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 그리스도를 격하함

마태복음 4장 10절은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한 하나님뿐임을 명백히 보여 준다.

흠정역: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 4:10)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에게 경배하러 하자 단호히 거절했고 바울 역시 이교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러 하자 즉각 거절했으며 천사도 요한이 경배하러 하자 단호히 거절했다.

흡정역: 그때에 그(천사)가 내(요한)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중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계22:9).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셨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흡정역: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므로(마8:2)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절하게 한다.

개역: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곳 외에도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구절이 나오면 개역성경은 대개 다 절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마9:18; 14:33; 15:25; 18:26; 20:20 등). 그런데 흥미롭게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개역성경은 동일한 그리스어를 ‘경배하다’로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개역: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계13:4)

예수님께는 절하게 하고 짐승에게는 경배하게 하는 번역이 과연 논리적으로 옳은가? 이것이 바로 성경 부패 뒤에 숨겨진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핵심 내용이다.

●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중요 사건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

흡정역: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마25:13).

개역: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흡정역: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계11:17).

개역: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즉 ‘뉴에이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들은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힌두교에서 도를 닦아 부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구루(선생)들과 짐 존스(Jim Jones)같이 집단 자살을 일으킨 이단 교주들이 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개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막13:5-6)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NIV 등도 이와 똑같이 “I am he.”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 있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3.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신인가?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혹은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등에 있는 성령님(the Spirit)은 구약 성경에 28회나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신’(god)으로 번역하여 구약에서 성령님을 제거했다.

개역: …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

흠정역: …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하나님의 신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god of God’이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아마 유니테리언 교도들만이 이런 번역을 취할 것이다. 구약의 ‘the Spirit’이 바로 신약의 ‘the Spirit’, 즉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속에서 형성된 그 당시의 보편적 사고 체계에 따라 소위 신이 내린다는 강신(降神)의 무속 신앙 개념으로 성경의 ‘성령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개역: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삼상10:10)

개역: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삿6:34)

따라서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신’은 틀리며 ‘성령’이 맞는다. 한편 개역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개역: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

개역: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빌1:19)

이런 구절은 다 ‘the Spirit of Christ’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번역자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흠정역: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마22:29).

4. 주인가, 여호와인가?

한국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4자음문자’(Tetragrammaton)라고 널리 알려진 히브리어 ‘JHWH’에서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출3:13-16; 6:2-8).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명령하셨다(출20:7).

흠정역: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분의 두려운 이름 ‘JHWH’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정작 읽을 때는 주(主)를 의미하는 ‘아도나이’(Adonai)로 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영어의 ‘Jehovah’는 히브리어 4자음문자 ‘JHW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 만든 ‘JaHoVaH’를 음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통 마소라 본문은 모음 부호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한편 개역성경의 ‘여호와’는 영어의 ‘Jehovah’를 우리말로 잘 음역한 것이다. 사실 대한성서공회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의 마소라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아도나이)라 표기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할 때도 그 이름을 ‘주’(큐리오스)라고 기록했으며 루터의 독일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헤르)로 그리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로드)라 번역했고 개역성경 신약도 이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개역성경의 구약을 번역하면서 신약을 번역할 때와는 달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그대로 음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무려 6,400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취함으로써 그 이름의 위엄과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도할 때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개역성경의 구약이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JHVH'를 '주'(LORD, 전체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표기한 미국표준역(ASV, 1901)에 근거하여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미국표준역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과 마찬가지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로마 카톨릭 소수 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20세기 초반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고 애용한 성경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이후에 나온 신미국표준역(NASB, 1971)은 급히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원래의 성경 전통으로 돌아가 '여호와' 대신 '주'(LORD)를 쓰고 있다. 참고로 NIV, NKJV, RSV 등 대다수의 영어 성경과 주요 유럽어 성경이 모두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보여 준다.

흠정역: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시고...(창2:4)

개역: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KJV: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ASV: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Jehovah God made earth and heaven.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LORD'로 번역한 단어(스트롱 번호 3068)를 다 여호와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변형인 '여호비'(스트롱 번호 3069)도 대개 여호와로 번역했는데 이것 역시 미국표준역(ASV)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단어는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에 많이 나오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다 대문자 'GOD'으로 표현해서 사람이 무의식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흠정역: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뻔뻔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겔2:4).

개역: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KJV: For they are impudent children and stiffhearted. I do send thee unto them; and thou shalt say unto them, Thus saith the Lord GOD.

ASV: And the children are impudent and stiffhearted: I do sent thee unto them; and thou shalt say unto them, Thus saith the Lord Jehovah.

유대인들은 이럴 때 ‘여호와’를 ‘엘로힘’으로 읽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앞에 대개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가 오므로 ‘여호와’를 다시 ‘아도나이’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여호와’를 피하려고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조심스레 이것을 대문자 ‘GOD’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GOD’은 성경에 309번 나온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는 것임은 다음의 용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그리스어 큐리오스)라고 번역해야 함을 친히 보여 주신다.

흠정역: 주(LORD, 그리스어 큐리오스)께서 내 주(Lord, 그리스어 큐리오스)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마22:44)

개역: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구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다.

흠정역: 주(LORD, 히브리어 여호와)께서 내 주(Lord, 히브리어 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시110:1).

개역: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고 이런 용례를 남기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큐리오스’, 즉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분께서는 ‘여호와’라는 자신의 신성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중요한 구절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개역성경은 여기서 ‘여호와’를 ‘주’라 번역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게 했다. 또한 마태복음과 시편 구절을 동일하게 번역하지 않았고 또 ‘발 받침’(footstool)을 그냥 ‘발’로 바꾸었으며 ‘원수들’이라는 복수를 ‘단수’로 바꾸었다.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경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또한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구약의 ‘주’(LORD)를 ‘여호와’로 표현하면 성경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주의 날’, 즉 재림의 때에 관한

개념이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하면 그것들이 동일한 날을 가리키고 있음을 독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예로 사도행전 2장 20절을 살펴볼 수 있다.

흠정역: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개역: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성도 누가가 요엘서 2장 31절을 인용한 것이다.

흠정역: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개역: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개역성경을 본문으로 한 관주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0절의 관주가 분명히 요엘서 2장 31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주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어 독자는 혼동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모두 ‘주의 날’로 되어 있으므로 관주가 제대로 관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대언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즐기치게 언급되고 있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따라서 교회의 환난 전 휴거와 우리 주님의 천년 재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

이런 개념이 제대로 있으면 행2:20, 살전5:2, 벴후3:10 등에 나오는 ‘주의 날’이 유대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구약의 ‘주의 날’, 즉 다니엘의 70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인 7년 환난기를 가리킴을 금방 알 수 있고 따라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자기 학대의 믿음과 행위 중시 믿음에서 떠나 복된 소망인 환난 전 휴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주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구약의 대언자 요엘이 기록한 말씀과 같다.

흠정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욘2:32)

개역: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를 통해 바울 사도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주 하나님임을 보여 주고자 했다. 그런데 요엘서의 ‘주의 이름’을 개역성경처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성경의 일관성이 깨지면서 성령님께서 요엘과 바울 두 사람의 기록을 통해 주의 깊게 의도하셨던 바를 독자들이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출간된 표준새번역은 개역성경과는 달리 전 세계 대다수의 성경처럼 바른 전통을 따라 구약에서 'JHVH'를 '주'로 옮겼는데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5.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

21세기 뉴에이지 시대에 하나님을 내버리고 인본주의를 삶의 모토로 삼은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신 마귀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고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흥정역: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신32:17).

사탄은 이 세대 속으로 침투하여 많은 영혼들을 제물로 삼기 위해 온갖 계락을 쏟으면서 이제는 노래를 통해 '메탈 음악 시장'으로부터 평범한 '중류 음악 시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었다. 또 심지어 CCM이라는 신복음성 가 장르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적인 리듬과 가사를 유행시키고 있다. 이제 반(反) 문화의 창시자들이 최근에 나온 새 역본들 안에까지 신비주의 지하 조직의 철학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반(反)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 눈앞에 기독교회의 전체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영향은 우리와 같이 엄청나게 크다.

흥정역: 12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굽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13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15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16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17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사14:12-17).

루시퍼의 자만에 찬 외침, 즉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는 외침 속에는 단어 단어마다 그의 불만이 무겁게 깔려 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Cherub)인 루시퍼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드리기를 갈망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만일 없드려 내게 경배하면..."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그의 욕망이 경배받는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4절이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듯이 불행하게도 그의 야망은 곧 성취될 것이며 바로 그 7년 환난기가 뉴에이지의 절정기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 큰 용이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정체를 밝히 보여 주고 있다. 21세기의 일반 대중이 사탄에 대해 느끼는 나쁜 이미지를 바꾸어 경배받기에 합당한 좋은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대중 매체는 그럴듯한 선전을 동원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히 놀랄 만한데 그 핵심은 그의 정체를 바꾸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12절에서 루시퍼가 하늘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5절에서 그가 지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내가… 하리니”(I will…) 라고 외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외침 하나하나를 루시퍼를 하늘에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성도들은 이 구절을 통해 마귀의 자만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 있다.

위의 성경 구절들은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구절들은 그의 오만(13-14절),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17절) 그리고 그의 파멸(15-16절)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마귀의 일대기는 에스겔서 28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고 그는 다만 ‘기름 부음 받은 닳는 그릇’이라고 언급되어 있다(겔28:14).

루시퍼의 야망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는 것’인데 이 구절은 그의 정체를 훤히 드러내 줌으로써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사탄에게 아부하지 않는 정결한 말씀에서 ‘루시퍼’라는 단어가 확실히 제거되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드는 말씀 속으로 삼입될 때까지 그가 자신의 이름 ‘루시퍼’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사실상 이 묘한 속임수는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부패되지 않은 채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루시퍼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개역: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14:12)

NIV: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you who once laid low the nations!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했고 이로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타락 전 사탄의 이름을 보여 주는 부분은 본문에서 삭제되어 성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제 시인들과 신화 작가들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는 더 이상 성경에서 유래되어 확인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 단어를 바꿈으로서 루시퍼는 사람들이 자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바뀌었으므로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특성도 스스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나타난 이 같은 변화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고찰해 보면 ‘루시퍼’란 단어 대신 ‘계명성’ 혹은 ‘새벽별’(morning star)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누구나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halel, ben, shachar’로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개역성경처럼 ‘계명성’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처럼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된다. 그런데 NIV와 NASB 등의 새 역본들과 개역성경은 마치 이 구절이 히브리 원본에 ‘shachar, kokab, ben, shachar’, 즉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번역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별’(kokab)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또 ‘아침’ 혹은 ‘새벽’이란 단어도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있듯이 두 번 나오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번만 나온다.

개역성경이나 NIV의 역자들은 ‘kokab’(스트롱 번호 3556)이라는 히브리어를 다른 곳에서는 수십 번씩이나 ‘별’로 번역했으며(창1:16부터 나3:16까지 약 40번) ‘아침’ 혹은 ‘새벽’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다. 또한 개역성경의 편집자들은 ‘새벽별’(boger kokab)이 욥기 3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흥정역: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욥38:7)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새벽별’ 혹은 ‘계명성’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다면 욥기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이사야서에서도 반복해서 사용하셨을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곳을 제외하고는 ‘루시퍼’란 단어가 나오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halel’이란 단어, 즉 ‘루시퍼’를 뜻하는 단어도 이곳 말고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새벽별은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과 역본을 따라 이사야서 14장에 등장하는 ‘루시퍼’ 대신 ‘새벽별’ 혹은 ‘계명성’을 삽입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가장 결정적인 신성모독을 범하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등에서 ‘새벽별’이라 불린다.

흥정역: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계22:16).

그러나 사탄은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나 교활하게 무대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서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의 대상 혹은 타락의 대상으로 만듦으로써 ‘고소하는 자’(계12:10)라는 호칭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참고로 NASB 같은 현대 역본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옆에 “벧후1:19를 보라.”는 관주를 붙임으로써 이 구절이 ‘루시퍼의 타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 타락'을 지칭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현세대 신학자들의 변절과 배교가 있기 전에는 믿는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만이 '새벽별'이요, '계명성'이요, '셋별'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미 오래전에 재미슨(Robert Jamieson)은 그의 저서 '주석: 구약 비평과 설명'에서 뉴에이지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놀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셋별: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칭호로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명칭을 사칭할 것으로 사료됨.

1913년도에 발행된 저 유명한 스펜스(H. D. M. Spence)의 '풀썬 주식' 이사야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셋별(새벽별)이란 칭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칭호이지만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찬탈할 것이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살체이며 신약 성경의 신비 바빌론의 선두주자이다. 후에 사탄은 이 칭호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것인데... 그는 이방 세상 권세 바빌론에게 활기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부추기고 있고 결국에는 세속적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챔피언인 거짓 선지자를 선동하게 될 영이다.

사탄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정체가 용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성경에는 용이 35회 등장하는데 개역성경은 용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여러 구절을 뺐(신32:33), 이리(욥30:29), 시랑(시44:19) 등으로 처리해 버렸다.

흠정역: 그들의 포도즙은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신32:33).

개역: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리위야단'(Leviathan, 스트롱 번호 3882)은 성경에 다섯 차례 나온다(욥41:1; 시74:14; 104:26; 사27:1에 두 차례).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사야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그를 악어로 번역해서 그 뜻을 완전히 가려 버렸다.

흠정역: 네가 낚시바늘로 리위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느냐?(욥41:1)

개역: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참고로 성경의 용(dragon)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상상하는 용과 다르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29장 3절의 용은 강 한가운데 누워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요한계시록 12장의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다시 말해 성경의 용은 보통 우리가 '공룡'이라 하는 짐승과 비슷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영어에서 용의 용례를 찾아봐야 한다. 영어에서 용은 공룡과 같은 큰 괴물을 지칭하는데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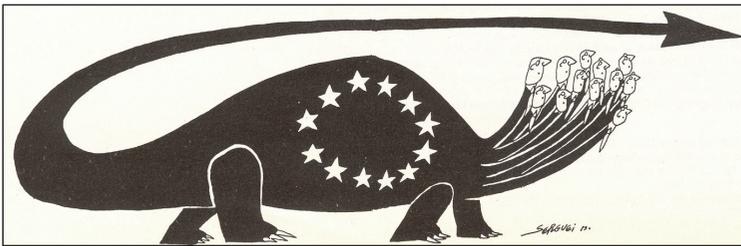
Dragon: a mythical monster, represented as a huge and terrible reptile, usually

combining ophidian and crocodilian structure, with strong claws, like a beast or bird of prey, and a scaly skin: it is generally represented with wings, and sometimes as breathing out fire. The heraldic dragon combines reptilian and mammalian form with the addition of wings(옥스퍼드 영어 사전).

우리가 공룡을 지칭할 때 쓰는 ‘dinosaur’라는 단어는 1841년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오며 그 전에는 그런 괴물을 모두 ‘용’으로 불렀다.

Dinosaur: A member of an extinct race of Mesozoic Saurian reptiles (group Dinosauria, typical genus Dinosaurus), some of which were of gigantic size; the remains point to an organism resembling in some respects that of birds, in others that of mammals(옥스퍼드 영어 사전).

그래서 영국의 전래 동화 등에서 나오는 용은 대개 모습이 ‘공룡’ 혹은 ‘공룡의 새끼’처럼 생겼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6. 천사인가, 사자인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지금처럼 뉴에이지 사상이 득세할 때에는 특별히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천사는 성경에 295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 177회를 천사로, 67회를 사자(使者)로 번역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사자로 번역했다.

구약의 ‘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달리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이며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개념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교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역성경은 마귀의 천사들 역시 사자들로 번역하여 마치 마귀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소위 ‘배교의 결정판’이라 하는 NIV 등도 주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들을 제대로 번역했다.

개역: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마25:41)

흠정역: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뉴에이지는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등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천사는 모두 남자이며 아기 천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천사를 다루는 부분의 ‘man’ 혹은 ‘men’은 반드시 남자로 번역해야만 한다.

개역: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19:5)

흠정역: 네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바로 천사들이며 소돔 사람들은 바로 이 남자들(천사들)과 성적 접촉을 갖고자 했다. 이에 대해 유다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흠정역: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strange flesh)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7).

소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낯선 육체’를 추구했다(물론 그들은 다 남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이상하게 번역을 하여 이런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과연 이런 번역을 가지고 소돔 사람들이 추구한 천사들과의 성적 접촉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한편 영어에서는 동성연애를 ‘sodomy’, 동성연애자를 ‘sodomite’라 부른다.

끝으로 성경의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로 나타나므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

흠정역: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2).

7. 마귀인가, 귀신인가?

개역성경의 귀신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소위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인가?

개역: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고전10:20)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무릎을 치지 않겠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일이 되면 상을 차려 놓고 조상귀신들을 불러오는 것이 참으로 이 구절과 잘 맞지 않는가! 과연 성경이 조상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말인가?

흠정역: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개역성경이 ‘제사하는 것’이라 번역한 단어는 ‘sacrifice’인데 이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귀신을 부르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용어로 본래는 ‘희생물을 드림’을 뜻한다. 그래서 구약의 소제, 화목제 등도 제사가 아니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을 드린다고 해야 맞으며 모든 영어 성경이 ‘번제 헌물’(burnt offering) 혹은 ‘번제 희생물’(burnt sacrifice)이라 번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이 무지할 때에 조상신을 섬기려고 드린 제사는 성경에서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천이니 음부니 하는 허구의 장소는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누가복음 9, 16장 참조). 즉 죽은 사람의 넋인 귀신은 성경에 없다는 말이다.

웹스터 영어 사전은 ‘마귀’와 ‘귀신’이라는 두 단어를 예리하게 구별하고 있다.

귀신(demon): 고대 이교도들의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 고대 사람들은 악한 귀신과 착한 귀신이 있어서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귀신들을 숭배했으며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믿음

A spirit, or immaterial being, holding a middle place between men and the celestial deities of the Pagans. The ancients believed that there were good and evil demons, which had influence over the minds of men,... Hence demons became the objects of worship. It was supposed also that human spirits, after their departure from the body, became demons, and that the souls of virtuous men, if highly purified, were exalted from demons into gods.

마귀(devil): 1. 기독교 신학에서 악한 영 혹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며 또 이런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킴(In Christian theology, an evil spirit or being; a fallen angel, expelled from heaven for rebellion against God; the chief of the apostate angels).

사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준 어떤 영적 존재인 ‘귀신’(demon)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귀신’이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적인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성경이 ‘악한 영들’(evil spirits)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존경과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반신반인’ 혹은 ‘귀신’이라고 믿는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그리스어 ‘디아볼로스’(diabolos)와 ‘다이모니움’(daemonium)이 서로 다르며 전자는 사탄을, 후자는 마귀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어를 하나의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원본주의자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 이유는 NASB 같은 현대 역본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shed’(스트롱 번호 7700)와 ‘sair’(스트롱 번호 8163)를 다 ‘귀신’(demon)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다(레17:7;

신32:17 등). 깨지기 쉬운 유리 집에 살고 있는 학자들은 “원어는 원래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원어의 돌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삼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원어를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학자인 체하며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도대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개역: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시106:37)

여기의 ‘사신’은 무엇을 뜻하는가? 너무 쉬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고 정확한가?

흠정역: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한편 개역성경은 시편 106편 37절에서 ‘사신’으로 번역된 동일한 히브리어(스트롱 번호 7700)를 신명기에서는 ‘마귀’라고 멋있게 번역하였다.

개역: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신32:17)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 나오는 마귀, 신 등이 모두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흠정역: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 신들 즉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에게 드렸도다.

많은 신(gods)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God)이 있으며 많은 아들(sons)이 있고 유일한 아들(the Son)이 있으며 많은 마귀(devils)가 있고 유일한 마귀(the devil)가 있다는 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다.

8. 살아 있는 혼인가, 살아 있는 영인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역시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삼중적 존재이다.

흠정역: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인데 개역성경은 여기에서도 전 세계 모든 성경과 달리 오역을 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흠정역: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성경이 보여 주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몸(흠)과 영(생명의 숨)이 합쳐진 혼이라는 것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부인하며 그 결과 ‘영이 없는 사람’(창세기 1장)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창세기 2장)이 있다는 ‘이중 아담론’을 확립해 주고 말았다. 사람이 ‘산 영’(living spirit)이면 죽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부활이 필요하며 ‘살려 주는 영’(quickening spirit)이 필요하단 말인가?

개역: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5:45)

흠정역: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혼을 믿지 않는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같이 꼭 혼이 나와야만 말이 되는 구절에서만 혼을 혼으로 번역했다.

개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니(히4:12)

그리고 개역성경은 이런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혼을 영혼이나 자(者)등으로 바꾸어 버렸다.

개역: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출12:15)

흠정역: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개역: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욘7:11)

흠정역: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말하겠으며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리이다.

위의 읍기를 보면 영과 혼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두루뭇술하게 ‘영혼’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개역성경으로는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가 어려우며 영어로 쓰인 기독교 관련 서적을 번역할 때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자기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을 전도로 생각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진짜 전도이다. 그래서 전도를 표현할 때 그들은 ‘혼을 구원하다’는 뜻을 가진 ‘soul winning’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나가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혼을 구원한 사실을 잘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은 전혀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흠정역: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행2:41).

개역: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9. 짐승의 영인가, 혼인가?

과연 성경은 짐승에 대하여 무어라 말하는가?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

개역: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3:21)

흠정역: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개역성경은 본문에 ‘짐승의 혼’이라고 적었으나 밑의 난외주를 보면 “여기의 혼은 원래 히브리어로 영입.”이라고 되어 있다. 도대체 히브리어가 ‘영’이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영’으로 해야지 왜 ‘혼’이라 했을까? 그 이유는 번역자들의 토착 샤머니즘 사상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도저히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대로 ‘영’을 ‘혼’으로 번역하였다.

이 구절의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것으로 ‘루아흐’는 영, 바람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사람, 짐승과 관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9절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숨을 가졌고 영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사람과 짐승 등 코에 생명의 숨을 가진 육체만 죽임을 당했다(창2:7; 6:17; 7:15; 7:22).

흠정역: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들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창6:17).

한편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민수기 22장에서 단 한 번 나귀가 말하는 기사를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영을 가진 나귀는 곧바로 천사를 알아보고 말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을 통해 짐승도 영이 있으므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나 전도서 3장 21절이 의미하듯이 짐승의 영은 죽어서 소멸되고 만다. 그러므로 짐승은 영을 가졌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 짐승은 죽으면 몸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지금 ‘루아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전도서의 번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흠정역: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vexation of spirit)라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달리 표현하고 있다.

개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루아흐’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된다.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닦할 수는 없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뜯구름 잡는 것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믿음과 실행에서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담대히 말한다.

10. 대언인가, 예언인가?

성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면 성경을 번역할 때 중요 용어를 반드시 일관성 있게 번역해서 용어 색인(Concordance) 기능이 되게 해야 한다. 미국의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스트롱(Strong)이나 영(Young)이 만든 용어 색인이 있어 누구라도 바르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려면 용어 색인을 이용하여 그 단어의 용례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불행히 개역성경은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prophecy’ 혹은 ‘prophet’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들을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 37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등 10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개역: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출7:1-2)

개역: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겔37:4)

개역: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계19:10)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

흠정역: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상천 사이에서 죽은 사가라의 피까지라(눅11:50-51).

예수님께서서는 아벨을 가리켜 최초의 대언자라고 하신다.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대언한 자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대언했는가?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아 죽게 되었다. 이런 구절에서 개역성경처럼 아벨을 ‘선지자’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20장에는 처음으로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흠정역: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 것이나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창20:7).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앞날을 예견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는 선언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들이 이런 선언을 할 때에는 평상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여호와’(영어의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임을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흠정역: 어떤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잇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생기지도 아니하면 그 일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니라. 오히려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으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18:22).

이와 같이 대언자의 책무는 엄청났으며 특히 구약 시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한편 성경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말씀처럼 성경기록은 대언이다.

흠정역: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베후1:20-21).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성경기록 그 자체가 대언임을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알 길이 없다.

개역: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개역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한 단어 역시 앞날을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대언으로 주신 말씀을 뜻한다. 앞뒤 문맥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많은 교인들이 입시, 입사, 이사 때마다 예언 기도 받으러 기도원의 점쟁이들을 찾아다닌다! 신약 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결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고전12-14장의 대언,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로 번역하여 기복적 무속 신앙을 부추기고 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에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선견자’(seer)라는 호칭이 있었으나 후에는 ‘대언자’로 바뀌었다.

흠정역: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여쭙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seer)에게 가자, 하였으니 *사람들이* 지금 대언자(prophet)라 부르는 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삼상9:9)

여기 나오는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에서 대언자를 ‘선지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

11. 왕국인가, 천국인가?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국이 되고 왕이 홀로 통치하면 왕국이 된다. 그러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통치 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 민주적으로 통치하실까? 아니면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실까?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엡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

흥정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막1:1, 14)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것을 무시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

개역: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1:14)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개역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과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흥정역: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6:10).

개역: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개역성경으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다(마4:17). 이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흥정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마23:37-39)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효가 전해지게 되었다(롬11:30-31).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왕국의 이복음이다(마24:14).

흥정역: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즉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온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나 교회 등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취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선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을 취해 내 목적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흥정역: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행1:6)

개역: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또다시 오역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가려 버렸다. 이런 번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학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말씀을 공부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성도들이 많은 구절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한다. 성경을 - 특히 구약 성경을 - 읽으면서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사실로 대하지 않고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영적 QT 재료’로만 사용하기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오한 신학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원대한 계획 안에 사람의 구속이 들어 있고 마귀의 파멸이 들어 있다. 결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으므로 기존 성경들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 주는 이 단어는 단지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한편 왕국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며 인본주의 교회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개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21)

그런데 여기의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 안에 - 혹은 그들의 마음속에 -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말인가? 여기 나오는 나라 역시 왕국이다.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왕국'(kingdom)을 '천국'(heaven) 혹은 '나라'(country)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

12.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므로 모순이 없다. 만일 그 안에 모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위태롭게 된다.

개역: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막1:2-3)

이 구절은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앞부분, 즉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라는 절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의 글이며 따라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대언자들의 글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160쪽 성경론 표 참조).

● 대언의 성취를 부인함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대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 주시려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흠정역: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막15:28).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 버린다.

개역: 없음

● 종교를 강조함

개역성경과 현대 역본들은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둘째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를 지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때 곧 7년 환난기에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계13:15).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이 추구하는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엄한 책망도 따뜻한 칭찬으로 바뀌게 된다.

개역: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religious)(행17:22)

흠정역: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superstitious).

킹제임스 성경이 ‘미신’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의 어근은 마귀와 상관이 있다. 한편 개역성경에서 ‘종교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드레쉴이스’(thresheis) 혹은 ‘세보마이’(sebomai)인데 이런 단어는 그 구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 헛된 것에게 경배하는 것을 마치 ‘종교심’이 많은 것처럼 이해한 아테네 사람들 같은 교인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 그리스도를 비하함

다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물건으로 비하하는 사례이다.

개역: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6:33)

떡은 둘째 치고 도대체 하나님의 빵이 ‘생명을 주는 것’(thing), 즉 사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빵으로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흠정역: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완전히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 서기관들이 주범이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노한 목소리로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

흠정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마23:14).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렸다.

개역: 없음

●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마귀를 내쫓지 못했는가,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내쫓지 못했는가?

개역: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흠정역: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우리 주님의 요점은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문맥을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마귀를 내쫓는지 친히 말씀해 주신다.

흠정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17:21).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예수님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고 몸을 피한다.

개역: 없음

참으로 개역성경은 NIV 등의 다른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부인한다.

개역: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13:33)

흠정역: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개역: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행10:30)

흠정역: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아홉 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개역: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전7:5)

흠정역: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개역: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지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고후6:5)

흠정역: 매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마지막 예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금식은 다르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 것이다. 따라서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이 반드시 금식은 아니다. 물론 금식하면 배가 고프다. 개역성경은 다른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금식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 그리스도 안과 밖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자꾸 오류가 발견된다.

개역: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갈 6:15)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 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로마서 3장). 할레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복은 무할레자들이 결코 뺏을 수 없는 복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천주교 성향의 서기관들이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즉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지지하기 위해 이것을 삭제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친 자손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여 천년 왕국을 소유하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신 저 팔레스타인 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토록 유대인들의 땅이다(창세기 12, 15장).

●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하므로 우리가 공을 들여 채워야 하는가?

개역: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느 면에서 부족하기에 그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한단 말인가? NIV는 아예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부족한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흠정역: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뒤에 이제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는 남은 고난이 하나도 없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리고 육체가 완전히 부서져서 그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도대체 무슨 고난이 그분께 더 남아 있던 말인가?

흠정역: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사52:14).

●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함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는 개역성경은 다음의 구절에서도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긴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개역: [그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11:24)

흠정역: [그분께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broken)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 복음의 핵심을 부인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개역성경처럼 그냥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인가?

개역: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9:13)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

흠정역: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개’이다. 이것이 빠지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무 효력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개역성경은 자꾸 삭제한다.

개역: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눅9:55-56).

흠정역: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 보편적 구원을 가르침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개역성경은 어떤 민족이나 누구든지 들어간다고 기록한다.

개역: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21:24)

개역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단 교리, 즉 ‘보편적 구원’(Universal salvation)을 가르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가르친다.

흠정역: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엄청난 차이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류가 넘치도록 원본 성경을 주셨을까? 아니다. 마귀의 영향을 받은 서기관들이 자기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전혀 없는 한 성경만을 쓰셨다.

●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진노하시는가? 개역성경은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

개역: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3:5-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흠정역: ...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이것은 사실 에베소서 5장 6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흠정역: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나니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개역성경은 또다시 오류를 범한다.

개역: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도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히 3:16)

개역성경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흠정역: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민수기 14장 29-3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개역성경은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

● 아멘을 무시함

아멘이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기도한 뒤 ‘아멘’ 한다. 성경에는 아멘이 총 78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에서 20회 이상을 삭제하고 50여 회만 적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아니란 말인가?

흠정역: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1:18).

개역: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흠정역: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요일5:21).

개역: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 여인들을 무시함

성경은 남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등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NIV 같은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워 준다.

개역: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딤후5:16)

흠정역: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여인들에게만 죄를 뒤집어씌우고 남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한다.

개역: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약 4:4)

흥정역: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고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

개역: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22:22)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구절에서도 번역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아’를 가리켜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아이만이 고아이다.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없는 아이에게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것처럼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 다르다.

흥정역: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신다. ‘고아’와 ‘아버지 없는 아이’는 완전히 다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이 개역성경에 드러난 긍휼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은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만 없어도 긍휼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므로 약자를 더 많이 위로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아버지 없는 자’가 ‘고아’로 표현된 구절은 자그마치 50여 군데나 된다.

이 모든 부패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왔으므로 NIV나 NASB 그리고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 같은 현대 역본도 내용이 동일하다.

● 정반대로 기록함

욥은 4,000년 전에 메시아의 재림을 말하면서 자신의 부활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자신의 ‘육체 안에서’, 즉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중요한 구절을 ‘육체 밖에서’라고 정반대로 기록하였다.

흥정역: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아노라. 내 살갓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19:25-26).

개역: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십일조를 삼 일마다 바치는가?

개역성경은 NASB 등과 같이 십일조를 삼 일마다 바치라고 요구한다.

개역: 너희는 벤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 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암4:4)

과연 성경에 십일조를 삼 일마다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가? 신명기 14장 28절과 26장 12절 등은 분명히 삼 년마다 드리는 십일조가 있다고 말한다.

흠정역: 삼 년이 끝날 때에 너는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십일조를 모두 가져다가 네 성문들 안에 저장하여(신14:28)

그러므로 아모스 4장 4절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되어야 한다.

흠정역: 벤엘로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 일천 번제인가, 천 개의 번제 헌물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뒤에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왕상 3:4, 13)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일천 번제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천 일 동안 매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 과거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단10:2-3) 여러 교회들이 ‘다니엘 작정 21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부흥회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므로 자기도 40일 동안 금식해서 능력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여러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한 양 떼를 ‘일천 번제’로 끌고 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로몬은 결코 천 일 동안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개역: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왕상3:4)

흠정역: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그 당시 그곳의 산당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의 산당만이 유일하게 천 개의 번제 헌물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었다. 천 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어떻게 왕이 왕좌를 버리고 떠나서 근 3년 동안 번제만 드릴 수 있었겠는가?

솔로몬의 기사를 가지고 천 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개역성경의 공헌이 지대하다. 개역성경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물을 제사로 처리해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burnt offering’은 원래 ‘태우는 헌물’이다. 하나님께는 ‘태우는 헌물’, 즉 ‘번제 헌물’을 드리지 ‘번제’, 즉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경우 ‘burnt offering’ 대신 ‘burnt sacrifice’라는 말이 사용되곤 했는데(레1:3, 9, 10, 13, 14, 17 등 18곳) 이것은

곧 ‘태우는 희생물’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번제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다는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 결과 솔로몬의 기사에서도 태우는 희생물 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천 번 드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희생 헌물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한 답을 준다. 죄를 지으면 ‘죄 헌물’(sin offering)을 드리고 법을 어겼으면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면 ‘화평 헌물’(peace offering)을, 자원해서 드리기 원하면 ‘자원 헌물’(freewill offering)을, 음식을 드리고자 하면 ‘음식 헌물’(meat offering)을 드린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개역성경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낙헌 예물’, ‘소제’ 등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자원 헌물’을 빼고는 모두 ‘헌물’이라는 말을 없애고 전체를 몽땅그려 제사로 바꾸어서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속건제의 ‘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원 헌물’의 경우 개역성경은 레위기 22장 21절과 23절에서 ‘차의로 드리는 예물’ 혹은 ‘낙헌 예물’이라고 해서 헌물의 개념을 살렸는데 사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만 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NIV, NASB 등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역본들도 모두 ‘헌물’(offering)을 살리고 있다. 아마도 이 사례 역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offering’을 제사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며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일천 번제를 드리라고 강요해서 무지한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흥정역: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회개하고 성경을 알아야 이런 무지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중세 천주교가 지배하던 무지의 암흑시대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 아무 뜻도 없는 번역

개역: 여호와와 그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암5:20)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사람이 있는가? 뜻을 모르고 번역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흥정역: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우므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다음은 신약 성경에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절 중 하나이다.

개역: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벧후1:3)

여기서 ‘신기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divine’이며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띠다’를 뜻한다. ‘영광과 덕으로써’는 어떤 수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을 뜻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다.

흠정역: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 순교하고 약속도 받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하고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였는가?

개역: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히11:13)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닌가? 그런데 아무 약속도 받지 못했던 말인가? 여기서도 개역성경은 오역을 했다(히11:39 참조).

흠정역: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13. 하늘들인가, 하늘인가?

우리말에서는 하늘의 복수형인 ‘하늘들’ 같은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역: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창2:1)

흠정역: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개역성경은 참으로 간결해 보이지만 많은 면에서 내용은 부실하다. 이런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 복수를 쓰셨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성경에는 최소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으며 다른 영어 역본들도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흠정역: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12:2).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신학을 무시한 채 중요 복수 단어를 많은 곳에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많은 경우 개역성경의 간결성은 성경의 정확성을 희생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성경이 이처럼 부실하니 그 부실한 기초 위에서 부실한 기독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14. 지옥인가, 음부인가?

마귀는 지옥을 숨기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갑니다.” 혹은 “스올에 갑니다.”라고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지옥으로 갔으며(눅 16:19-31) - 이 구절의 음부도 음부가 아니고 지옥임 -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으나(엡4:8-10; 고후5:8; 12:2-4; 히11:40) 지옥은 여전히 지옥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사람은 곧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지옥은 성경에 54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에 구약에 나오는 31번의 지옥을 모두 스올로 번역했고 신약에서도 13번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그렇다면 스올 혹은 음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말큰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은 음부는 저승인데 저승은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천, 유명’이라고 말한다. 즉 개역성경은 번역자들의 샴니즘으로 인해 불교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역: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잠15:11)

개역: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잠27:20)

이런 이교도 사상이 개역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정확하게 ‘지옥과 멸망’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지옥의 본질을 성경에서 제거해 버렸다.

개역: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9:45)

흠정역: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지옥은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흠정역: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4, 46, 48).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44, 46, 48절에서 연거푸 이 사실을 강조하신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44, 46절은 생략했다. 단 한 번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늘 반복을

하셨습니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빠지는 것 역시 치명적이므로 그분께서는 연거푸 세 번이나 지옥의 실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지 말 것을 촉구하신다. 그러므로 44, 46절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참고로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를 뜻하는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차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곳’을 뜻한다.

Hell: The abode of the dead; the place of departed spirits; the infernal regions or lower world regarded as a place of existence after death(옥스퍼드 영어 사전)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地獄),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음을 성경이 말하지만 현대판 사두개 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이것을 믿지 않는다.

흠정역: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39-40).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

흠정역: (다윗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행2:31).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에서도 지옥을 음부라고 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음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자주 외우는 사도 신경에도 들어 있다. 한영 성경이나 한영 찬송가의 표지 안에 들어 있는 영어 사도 신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원래 사도 신경에는 “그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으나 번역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이 구절을 삭제하였다. 우리는 결코 주문 외우듯이 사도 신경을 외우지 않으며 사실 신조 자체를 외울 필요도 없다고 믿는다.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기록된 말씀 이외의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지옥에 대해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기 위해 사도 신경을 예로 들어 설명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이 영원토록 살 곳은 성경에서 불 호수라 하는 곳, 즉 불로 가득한 호수이며 이곳의 위치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계19:20; 20:14).

● 영존하는 지옥 형벌

어떤 이들은 지옥의 불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짜 불,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불, 즉 상징적인 불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자신의 창조물을 진짜 불 속에 영원토록 던져 넣는 잔인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eternal’이다. 이 말은 원래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나타낼 때 혹은 천상의 것의 우수함이나 고매함 등을 지상의 것과 비교할 때, 즉 질적 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개역: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eternal fire)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마18:8)

반면에 영어에서 양을 강조하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영존하는’이란 의미의 ‘everlasting’을 사용한다.

흠정역: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everlasting fire)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이렇게 ‘영존하다’(everlasting)를 사용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의 ‘영혼 멸절설’ 같은 이단 교리가 발붙일 수 없다. 영원토록 계속해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영혼이 멸절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질적으로 우수한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이기도 하며 동시에 양적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이기도 한다. 즉 질적/양적으로 영원무궁한 생명이다.

흠정역: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5-16).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래서 믿는 자들의 최종 권위가 된다.

15. 믿음인가, 행위인가?

● 구원받기가 어려운가?

만일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친다(롬3:23). 그런데 개역성경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 근거하였기에 자꾸 행위로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개역: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막10:24)

그러나 바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흠정역: 애들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 과정 신학

믿는 이들의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가? 평생의 과정인가?

개역: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흠정역: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 무엇인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 천주교회의 평생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교 체제하에서는 사람이 평생토록 죄의 종이 되어 사제의 말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

●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개역성경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기록한다.

개역: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히4:6)

개역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다.

흥정역: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저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시지 행위의 문제로 보시지 않는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위가 나온다. 이런 예는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5장 31절,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4장 11절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개역성경의 행위 신학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역: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요3:36)

흥정역: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흥정역: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개역: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였는가?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인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인가?

흥정역: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the free gift)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롬 5:15)

개역: 그러나 이 은사(the gift)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기록하지만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은 NIV 등과 마찬가지로 ‘거저’(free)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롬5:16; 5:18에서도 마찬가지임). 이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닌가?

개역성경은 조상들의 은덕으로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개역: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

흥정역: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수천 세대라는 것은 원문에도 없고 알렉산드리아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첨가한 것이다. 앞뒤 문맥과 성경의 구원 및 은혜관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 믿음의 대상

믿기는 믿되 헛것이나 이방신을 믿으면 허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것을 약화한다.

개역: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6:47)

흠정역: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 내 몸을 쳐야 하는가?

고대로부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몸을 혹사하거나 참기 어려운 고행을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집트의 이시스, 로마의 키벨레 그리고 에베소의 다이애나같이 피에 굶주린 여신들을 위해 사람들이 피의 제전을 열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천주교회의 수도사들 가운데는 자기 몸을 극도로 상하게 한 사람들이 많았고 루터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 고행이 필요하다는 이교도들의 교리를 지지한다.

개역: 내가 내 몸을 쳐(I beat my body)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9:27)

한국 성도들에게 보상 심리를 허용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친 이 구절은 실제로 나를 때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에는 ‘치다’(beat)라는 뜻을 갖는 그리스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후포피아조’(hupopiazō)이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흠정역: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정욕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기를 치는 행위’, 즉 자학 행위는 특히 왕상18:28에서 잘 드러나는데 거기서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성경의 개념이 아니다.

흠정역: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골2:23).

● 거세해야 하는가?

그런데 자기 확대로 만족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 내는 거세(去勢)를 행하려 하며 개역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개역: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갈5:12)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유혹하던 거짓 대언자들이 그곳의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에서 끊어지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흠정역: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곳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잘려 나가기를, 즉 교제에서 단절되기를 원하였다. 누군가가 자기 몸을 자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뉴에이지와 고대 신비주의 관습이다.

개역성경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와 NASB 등은 ‘emasculate’(거세하다)와 ‘mutilate’(신체를 절단하다)라고 번역하여 그 의미가 거세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결국 동일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현대 역본들은 고행을 통한 구원이라는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이런 두려운 일을 시도하였다. 이런 거세 풍습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기독교와 무관하며 신비 종교들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하고도 무서운 관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인 가르침들로 인해 현대 역본들의 기반이 된 ‘부패된 그리스어 신약 사본’을 편집한 장본인인 오리겐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베어 내는 거세를 행했다.

● 열심을 내면 되는가?

우리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까? 개역성경은 그렇다고 한다.

개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우리말큰사전은 ‘신령’이란 ‘신기하고 영묘한 것’이고 ‘진정’이란 ‘거짓 없이 참되게’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기하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말인가? 많은 교인들이 이런 구절에 은혜를 받고 열성으로 지성을 내어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모토로 하는 샤머니즘이 아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관계가 복음의 핵심이요 전부이다. 하나님은 영이므로 사람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흠정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열심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6. 신약인가, 구약인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구약(Old testament) 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나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신약(New testament) 시대를 여셨다.

흠정역: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롬10:4).

흠정역: 그러나 때가 총만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갈4:4)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 신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며 이때의 언약이란 영어로 ‘covenant’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영어 성경책을 보면 한결같이 신약, 구약 할 때의 ‘약’이 ‘covenant’가 아니라 ‘testament’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testament’를 우리에게 전해 준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Testament’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처음 나오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등에도 나온다.

흠정역: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8).

KJV: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New testament’이며 이는 곧 주님께서 ‘옛 상속 언약’, 즉 구약(Old testament)을 폐하고 신약을 여심을 뜻한다.

‘Testament’를 그냥 ‘언약’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Testament’와 ‘Covenant’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아테케’(diatheke, 스트롱 번호 1242)인데 ‘Covenant’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특별 약속을 뜻하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총 295회 나온다. 반면에 ‘Testament’는 ‘증언’(testimony)이나 ‘증언하다’(testify)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로 일차적 의미는 ‘증거로 주는 언약’이란 뜻이며 신약 성경에만 총 14차례 기록된 신약 성경의 독특한 단어이다. 성경은 이런 단어의 뜻을 알려 주기 위하여 내장(內藏) 사전을 제공한다. 히브리서 9장에 ‘Testament’의 뜻이 정의되어 있다.

흠정역: ¹⁵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법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Promise of eternal inheritance)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⁶ 상속 언약(Testament)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Testator)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¹⁷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먼저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약 시대

성도들의 죄가 구속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곧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의 죄가 잠시 덮여졌으며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 준다.

홍정역: 내가 긍휼을 수천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무죄로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출34:7)

완전한 희생 헌물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도들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의 언약을 주시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여기서 ‘Testament’를 ‘상속 언약’으로 번역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6-17절이 이것을 확증해 준다. 16-17절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상속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즉 새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새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 ‘상속 언약’(Testament)과 ‘상속 언약 하는 자’(Testator)는 바로 이런 점을 설명해주는 단어이다.

개역성경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언약으로 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다.

개역: ¹⁵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¹⁶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¹⁷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이렇게 번역을 하면 15절의 새 언약과 16, 17절의 ‘유언’이 도저히 같은 말임을 알 길이 없다. 왜 갑자기 여기서 유언이 나오는지 알 사람이 있겠는가?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말씀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15절의 ‘inheritance’, 즉 ‘상속 유업’을 ‘기업’이라 번역하여 이런 의미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성경과 다른 한글 성경들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국개역성경 혹은 미국표준역을 따라 어쩔 수없이 ‘Testament’를 ‘언약’이 아닌 ‘유언’으로 번역하려 한 시도는 좋았지만 ‘Testament’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언’이 아니다. 우리말큰사전으로 가서 ‘유언’을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면서 이 말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인가? ‘유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언약하고도 상관없는 말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홍정역: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눅22:20).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해 ‘새 상속 언약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여셨으나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가

이미 흘려졌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님께서(계13:8) 자신의 피로 말미암은 - 직역하면 자신의 핏속에 담겨 있는 - 새 상속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결코 내가 죽을 때가 되어 몇 마디 유언의 말을 하고 죽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유언의 1차적 의미가 ‘죽음을 맞이하여 남기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 유언에는 1차적으로 ‘상속 언약’이란 뜻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유언’이란 말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신성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도 ‘유언’은 ‘Will’이지 ‘Testament’가 아니다. 물론 ‘Testament’에도 ‘Will’의 뜻이 있으나 그것은 3차, 4차 의미이며 성경적인 용례로는 결코 ‘Will’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 성경들은 이렇게 ‘Testament’의 심오한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유언’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유언은 창조물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을 따라 가장 중요한 단어인 ‘새’, 즉 ‘New’를 삭제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새 상속 언약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언약을 주신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개역: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26:28).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멸시하는 번역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개역성경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아직도 제사장 체제하에서 구약이 준수되고 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런 체제가 유지되려면 성경을 변개하여 ‘새 상속 언약’ 시대가 열렸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주를 받은 부패한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삭제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된 다수 사본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등이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을 배제한 것이다. 다만 믿음이 없이 학식을 자랑하려는 현대 학자들만이 이런 구절에 ‘새’(New)라는 단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번역인가, 음역인가?

● 거인과 네피림

성경에는 음역과 번역의 문제가 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흠정역: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4절).

킹제임스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거인들(Giants)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욥1:6; 2:1; 38:7)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거인들을 낳았다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음역을 하여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가리고 있다.

개역: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도대체 네피림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 주신다.

개역: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13:33)

개역: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뎀이라 칭하였으며(신2:10-11)

개역성경은 너무도 쉬운 문제를 네피림이니 르바임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다 거인이라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번역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

흠정역: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민13:33).

흠정역: 과거에 엠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사람들이 그들도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로 여겼으나...(신2:10-11)

이들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자들 곧 홍수 이후에도 이 땅에 거하던 거인들이다. 고대 문명과 화석 기록을 보면 거인들이 고대에 살았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갈보리와 해골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세웠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대다수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갈보리 언덕을 알고 있다. ‘갈보리’라는 말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의 누가복음 23장 33절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중요한 단어를 ‘해골’로 바꾸어 버렸다.

흠정역: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개역: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18. 기독교인가, 천주교인가?

● 그리스도께서는 니골라당을 미워하신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성직자 계급이 없다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priest)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으나 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완전한 희생을 드린 이후에는 더 이상 중간 중재자가 필요 없고 성도들이 모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흠정역: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벧전2:9).

그런데 개역성경은 전 성도 제사장 체제를 가리려 하고 있다.

개역: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계2:15)

흠정역: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priest)처럼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회는 아직도 구약 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priest’, 즉 제사장(사제)이라 부르고 있고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면 결국 이처럼 중요한 구절을 삭제해야만 한다.

● 신부인가, 사제인가?

성도들은 결코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를 신부(神父)라 부르면 안 된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삿17:10; 마23:9). 그런데 목사(pastor)들이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처럼 행세하려고 로마 갈라 의복을 입고 긴 옷 입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세습을 시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또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미사라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를 ‘성당’, 즉 ‘거룩한 제물을 둔 장소’라고 한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마저 이런 것을 배워서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 성당이나 성전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목사가 제사장이란 말인가?

흠정역: 이제 이것들[죄와 불법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히10:18).

이처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헌물을 드리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으

로 더 이상 제사장과 성전과 성당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무시하며 그분을 짓밟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 고해 성사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의 권위는 고해 성사에 달려 있는데 개역성경은 수정된 본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로마 카톨릭교회 교리를 또 지지해 주고 있다.

개역: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약5:16)

흠정역: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아주 묘한 구절이 있다.

개역: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흠정역: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과연 사도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히브리서에서 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제사장 체계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의 제사장을 뜻하며 결코 개역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역성경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으로 오류를 만들고 있다.

● 여자 목사와 집사

초대 교회부터 성경에는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긴 많은 여인들이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여자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보기에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길 원하신다.

흠정역: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딤후 2:11-12).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사 교회의 두

직무 수행자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흠정역: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딤후3:2)

흠정역: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험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딤후3:11-12)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교단의 감독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교단이 나오지 않으며 성경의 교회는 모두 독립/자치 교회이다. 여기서 감독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bishop’인데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이것을 주교로 부르고 있다. 현대 교단들의 감독 체제는 바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교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한 지역 교회의 감독을 말한다.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 없으며 이들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즉 여자는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창조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이다. 개역성경도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은 잘 번역했으나 11절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개역: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딤후3:11)

개역성경은 이곳을 ‘여자들도’라고 번역함으로써 마치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번역했다. 그러나 심지어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그들의 아내들도’, 즉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정확히 번역하고 있다. 아마도 여자 집사를 인정하기 위해 이런 번역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흠정역: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험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인가?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마리아의 맏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흠정역: [요셉이] 그녀[마리아]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1:25).

성령님께서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여 평생 동정녀라 부를 자들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녀의 ‘맏아들’(firstborn son)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다.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그분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토록 동정녀로 지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들은 서기관들을 동원하여 ‘말어들’의 ‘말’을 삭제해 버렸다.

개역: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9. 침례인가, 세례인가?

개역성경에서 ‘세례’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밧티조’(baptizo, 스트롱 번호 907), ‘밧티스마’(baptisma, 908번), 그리고 ‘밧티스테스’(Baptistes, 910번) 등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 ‘밧토’(bapto, 911번)에서 나왔으며 신약 성경에 총 115회 사용되었는데 용례별로 살펴보면 명사 ‘밧티스마’가 23회,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 ‘밧티스테스’가 15회, 그리고 동사 ‘밧티조’가 77회 쓰였다.

한편 개역성경과는 달리 바인의 신약 성경 단어 사전,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 영거의 성경사전, 스트롱의 용어색인 등 기독교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참고 문헌들과 신학적 편견 없이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정평이 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 등의 세속 문헌들은 한결같이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물로 뿌리는 세례’(sprinkling)가 아니라 ‘물속에 담그는 침례’(immersion)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어원 자체가 너무나 분명한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로 바뀌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성경대로 침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중국 성경과 한국 성경에만 이 단어들이 세례로 번역되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의미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뀐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먼저 진출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세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정도를 차지하므로 다수결의 논리를 따라 세례가 옳고 침례는 그르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한국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침례를 주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 정도이다.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침례가 맞고 세례는 틀린다는 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실까?

침례는 중요한 성경의 교리일 뿐 아니라 성경 본문의 전달 과정에 마귀가 개입한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되므로 성경에 근거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대로 행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 문제 역시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성도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판결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것이다.

● 성경의 침례

침례를 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나 세례를 주는 데는 많은 물이 필요 없다.

흥정역: 살림에 가까운 애논에 많은 물이 있었으므로 요한도 거기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으니*(요3:23)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에 가야 하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가져 와야 한다.

흥정역: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라매(행8:36)

침례를 받으려면 ‘물속으로’(into the water) 내려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흥정역: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행8:38).

침례는 ‘강 속에서’(in Jordan) 받으나 세례는 그렇지 않다.

흥정역: (그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마3:6).

침례를 받은 뒤에는 ‘물속에서’(out of the water) 나와야 하지만 세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흥정역: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행8:39)

성경은 한결같이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불 침례와 성령 침례 역시 ‘잠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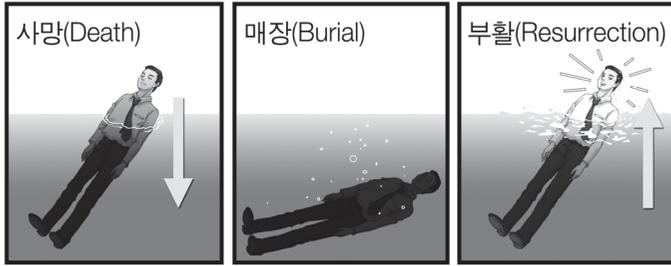
흥정역: 참으로 나[침례자 요한]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예수님]은 나보다 더 강력하시므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친히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넣으시되 겹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마3:11-12).

이 구절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성령 침례가 곧 불 침례이므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침례자 요한은 이 구절에서 결코 그런 것을 뜻하지 않았다. 문맥과 함께 이 구절을 읽어 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곳간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 침례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구절에서 침례, 즉 ‘몸 전체가 잠기는 것’과 세례, 즉 ‘이마에 뿌리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성령 세례를 받아 이마에만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서 과연 이마에만 불이 붙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침례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 몸이 물속에, 성령님 안에, 불 속에 잠기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침례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을 상징적으로



<침례의 의미>

보여 주면서 특별히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임을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규례이다.

세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즉 사망과 매장 and 부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흠정역: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골 2:12).

세례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 and 부활이 상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흠정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롬6:3-5).

세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로이 옷 입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흠정역: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 침례의 대상

어떤 이들은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침례중생’ 교리를 믿고 가르친다.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중생’을 지지하지 않으며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통해 자기의 거듭남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 및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인다고 말한다. 즉 믿고 거듭난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행8:12).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 주며 이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 교회가 어떤 일을 실행했는지 보여 준다.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도행전 8장에는 스테반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때에 처음으로 빌립이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이 자세히 나온다(26-40절).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장면에서 개역성경은 이상하게 37절을 ‘없음’으로 삭제하고 있다. 원래 이 구절이 없었다면 그다음 구절들이 한 절씩 앞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군가가 자기의 교리나 신학을 세우기 위해 고의로 이 구절을 삭제한 것이다.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인가? 36절에서 내시는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이 37절에 나오고 내시는 그 답에 따라 어떤 일을 행한다.

흠정역: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행8:37)

이 부분에서 성령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 37절을 친히 기록하셨다. 즉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명확한 근거로 인해 초대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침례를 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교도들의 믿음과 연합한 로마 카톨릭교회가 생겨났다.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주도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들의 종교 체제하에 가두기 위해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 관행을 도입하여 믿음 고백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어 어려서부터 로마 카톨릭교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이 이런 비성경적 관행에 큰 거침들이 되었기에 그들은 과감히 성경 본문에서 이 구절을 삭제했다. 그 결과 개역성경과 같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근거한 역본들에는 이 중요한 구절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올바른 본문에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잘 보존하여 로마 카톨릭교회의 유아 세례 교리가 허구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과연 이 구절이 없으면 앞뒤 문맥이 통하겠는가?

● 침례의 시기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교리 문답서 공부에 위한 학습 기간을 두는 전통을 세웠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례를 준다. 또한 로마 카톨릭교인들은 세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대성사 중 하나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침례가 은혜를 가져다주는 성사가 아닐 뿐더러 구원 또는 은혜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엡2:8-9). 성경은 이 같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관행과는 달리 누구든지 믿으면 곧바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믿음 고백과 함께 즉시 침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16장의 자주새 옷감 장수 루디아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으며(13-14절) 같은 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믿은 즉시 침례를 받았다.

흠정역: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 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행16:33)

여기서도 개역성경은 ‘즉시’라는 중요한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 글은 결코 침례교인이 될 것을 촉구하는 글이 아니다.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성경대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침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으므로 이것을 무시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면 침례에 순종하기 바란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흠정역: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요14:21).

20. 포도즙인가, 포도주인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주의 만찬’이라는 성경 용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아 ‘성만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로마 카톨릭교회에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일곱 가지 성례전 혹은 성사(sacraments)를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성체 성사, 즉 ‘성만찬’이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그 기원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체 성사 제사에 있으므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이런 로마 카톨릭교회 용어를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명히 빵을 사용하면서도 떡을 먹는다고 하고 또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를 마신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기 위해 누룩이 들어가 부패된 포도주를 사용하셨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의 만찬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드신 음식은 유월절 음식이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었고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결코 자신의 진짜 살을 먹으라고 하지 아니하셨다. 주의 만찬의 요소들, 즉 빵과 포도즙은 단지 그분의 찢긴 몸과 그분의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뿐이다.

● 누룩 없는 빵

유월절부터 연이어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무교절 기간에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모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다.

흠정역: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바로 그 첫째 날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출12:15).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에서 누룩이 대부분 죄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흠정역: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고전5:7-8).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카스텔라나 누룩이 들은 일반 빵을 사서 주의 만찬에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큰 교회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사용하는 성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어떻게 우상 숭배용 빵 조각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의미만 알고 그분을 기억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나 상징물이 바른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안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며 알면서도 이렇게 행하면 위선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신자들을 앞으로 하나 하나 나오게 하고는 빵 조각을 직접 입에 넣어 주는 몰상식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교회 사제나 하는 일이지 기독교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 누룩 없는 포도즙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역시 누룩이 들지 않은 순수 포도 주스, 즉 포도즙이어야 한다. 포도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포도즙이 발효된 것이므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무리들이 이런 이유로 포도 주스를 사용하다. 단지 로마 카톨릭교회의 영향을 받은 국내의 프로테스탄트 교단들만이 전통을 따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큰 실수이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은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음료가 ‘포도나무 열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마26:29; 막14:25; 눅22:18).

흠정역: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26:29).

포도즙에 상응하는 영어는 ‘wine’인데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에서 ‘wine’은

동형 이의어(homograph)로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시간이 지나 발효된 포도주’의 의미를 다 포함하므로 용례별로 구분하여 번역하되 성경이 분명히 술을 금한다는 사실과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번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런 인물이 성도에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술을 준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흠정역: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창14:18).

또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 주의 만찬 등에 쓰이는 ‘wine’도 마찬가지로 포도즙이다.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속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맞지 않는다.

포도를 짜서 주스를 만드는 틀은 ‘winepress’인데 이 경우도 포도주 틀이라 하면 안 되고 포도즙 틀이라 해야 한다. 포도를 짜면 당연히 포도즙이 나오지 않는가?

개역: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계14:19).

흠정역: 그 천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옛날에는 포도즙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포도즙을 끓여 찜갈이 만들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물에 풀어서 사용했다.



결 론

하나님의 은혜로 약 1세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결과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며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우리네 특유의 문화를 잘 반영하였고 간결한 문체와 운율 등으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소중한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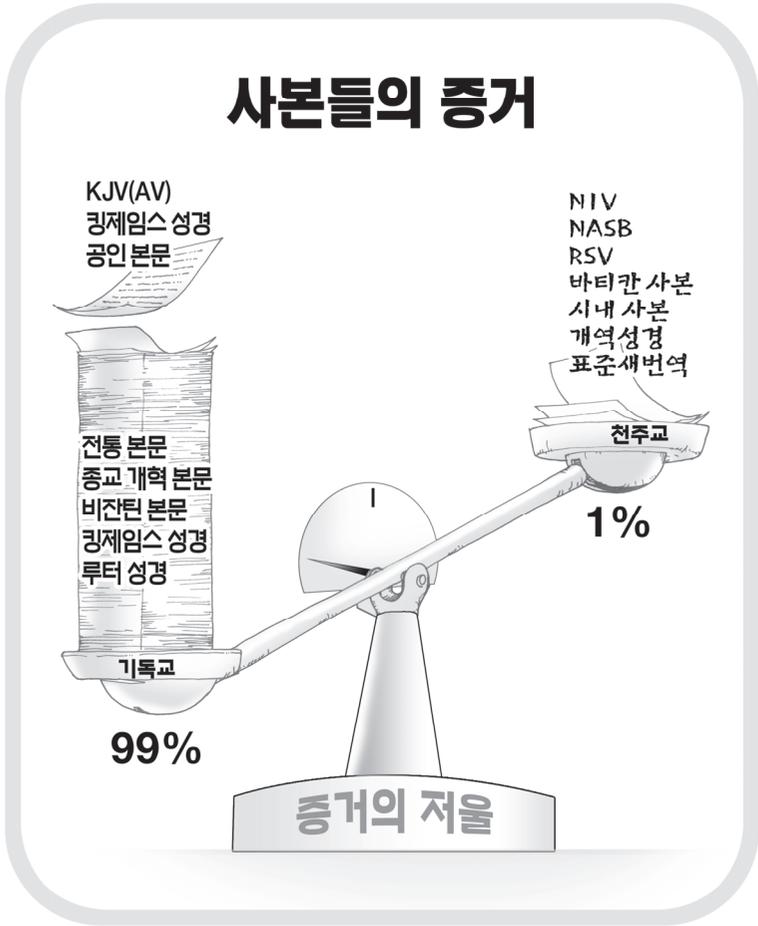
최근 들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구약)과 전통 그리스어 공인 본문(신약)의 권위와 정확성 등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개역성경의 신학적/사본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확일적 신앙 패턴이 자리를 잡아 성경의 경우 오직 개역성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였다.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성도들이 개역성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확일적 신앙 패턴에서 벗어나 속 중심의 양심이 지도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개역성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를 밝혀 다음 세대와 성경 신자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출간되었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경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먼저 개역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대한성서공회의 글을 통해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중국어 성경과 부패된 '비평 그리스어 본문' 그리고 거기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 - 특히 미국표준역(ASV) - 을 번역의 대본으로 채택하였음이 드러났다. 거의 이런 대본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삭제하거나 변개한 것을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보존하고 파급시킨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소수 본문에서 나왔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역성경이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불행히도 개역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 마귀, 사람, 짐승, 천국, 지옥, 구원 등의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유대교/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역성경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면 이런 교리들에

사본들의 증거



오류가 없어야 하지만 개역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심각한 번역 오류를 보인다.

개역성경 오류들의 대다수는 번역의 대본으로 취한 그리스어 본문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그 당시 시대적 흐름과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 NIV, NASB 등의 근간이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한 신약 성경 본문을 채택했고 키텔의 부패한 구약 성경 본문(3판)을 채택했다. 그러므로 바른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이런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 오류와 부패의 정도가 거의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을 도와 개역성경을 번역하는 데 이바지한 한국인 조력자들이 중국이나 인도 등의 이교도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힌두교 사상과 토속 사머니즘에 근거한 용어들을 성경에 사용하였으므로 유대교/기독교에서 수용

할 수 없는 개념이나 용어가 그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영감’(inspiration)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 있는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보통 책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책이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것과 같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바른 사본들과 그것들을 뿌리로 하여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하셨으며 이 성경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곳곳하게 역사 속에서 그 위용을 떨치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이제 한국에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번역되어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를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맑은 정신과 바른 지각으로 힘을 모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읽고 널리 보급하여 후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개역성경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귀한 영향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저자와 저자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번역의 대본인 본문과 번역자들의 사상이 개역성경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 하므로 그것의 좋지 않은 면을 부각시켰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디 양식 있고 선한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실 줄 확신한다.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많은 분들이 왜 성경 신자들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성경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주제들에 관해 논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명쾌하고 단순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이 말씀에서 지계표(landmark)란 측량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통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을 뜻한다. 지계표, 즉 랜드마크는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대형 건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하기도 하며 항해자를 위해 사용되는 육상 경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측량에서 랜드마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마음대로 랜드마크를 치우거나 변경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불법이다.

기독교는 그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가지 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전서(The Holy Bible)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초가 성경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이 랜드마크가 확실한지 혹은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늘 신경 써야 한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을 믿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수용해 온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이것들에서 번역된 역본들만을 사용해 왔다. 이런 본문은 과거의 거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였기에 보통 수용 본문(Received Text)이라 불리기도 하며 또 공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의 공인(共認) 본문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성경 신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을 모았는데 이것들의 99%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처럼 절대다수를 이루는 다수 사본들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되었다.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제임스 1세)은 햄튼 코트 회의에서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 기존 성경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통 사람들의 손에 공통 성경을 들려 주어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 결과 1611년 5월 2일에 태어난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제임스 왕은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히브리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도 시대부터 그 당시까

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 온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과 거기에서 이미 번역된 여러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들이 만들어 낸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반포된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며 가장 널리 보급된 보편적 성경이 되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전에도 공인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된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이 존재하였고 또 성경 출간 빈도도 높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후로는 그 밖의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 자체가 모두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성경은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라는 확신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광고나 홍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온 세상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뻗어 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의 근간이 되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툼슨대역 한영성경, 기독교지혜사, 부록 1, 4쪽, 1989).

사실 현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성경 전쟁의 실체는 다수 본문만을 수용해 온 기독교와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온 천주교의 대립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대적자 마귀가 있다면 마귀는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서고 쓰러짐은 성경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보존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늘 존재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로 신약 성경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면서 그에 비례해 말씀을 변경하려는 마귀의 시도 또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마귀의 공략은 주로 역사 속에서 천주교회로 알려진 바빌론 음녀 교회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사도 시대 이후로 마귀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의 부패한 서기관들을 이용하여 행위 구원과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는 천주교 교리에 적합하도록 부단히 성경 본문을 변경하여 왔다. 주후 500년경부터 약 천 년 동안 왕권마저 능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승에 의해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무엇보다도 그가 공인

본문을 근거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힘입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교황의 천주교를 초도화시켰다. 1534년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 천주교를 몰아내고 영국 국교회를 국가의 종교로 세움에 따라 천주교는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1588년에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천주교 국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대패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 영국은 온 세상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면 천주교의 무지와 미신과 맹신이 다 드러나므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을 금서(禁書)로 만들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라스무스, 틴데일,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들려 주셨다.

특히 성경은 1450년경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 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에 순응하며 목숨을 내걸고 일을 수행한 신실한 성도들 노력의 금자탑이요 결정체가 바로 1611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의 독일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 올리베탕의 프랑스어 성경, 레이나/발레라의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등이 유럽 대부분 국가의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천주교 안에 팽배한 미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로마 카톨릭교회는 거의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이에 천주교회는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1540년에 로울라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Jesuit)를 형성하여 반(反)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지난 500년 동안 예수회는 유럽에서 ‘예수 없는 예수회’라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심지어 세속 역사가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다. 또한 천주교회는 성경 본문에 관하여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는 도구를 개발하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여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에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잘 알다시피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써서 사본들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하여 사본들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필사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실수가 나올 수 있었다. 본문을 확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현존하는 사본들을 살펴보고 그런 사본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한 뒤 잘못 표기된 단어나 첨가 혹은 삭제된 단어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 정확한 독본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에라스무스나 베자 혹은 스테파누스와 엘제비어 형제들 같은 이들은 다수 사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선한 의도로 이런 작업을 수행하여 천주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1,500년 동안 공통적으로 수용한 공인 본문을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사본들을 비교하여 정확한 본문을 만드는 기초 작업은 선한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본문 확정 작업이 직업주의에 오염된 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이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본문 비평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 속에서 소실된 성경 본문을 자기들의 힘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본문 비평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본문을 섭리로써 보존해 주심을 믿지 않으며,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간들의 창작물에 불과한 다른 고대 문학 작품을 비평하듯이 성경 본문을 비평하려 한다. 다음은 한국의 유명한 본문 비평 학자의 말이다.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는 성서를 이상화하지 않는다. 성서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텍스트이다. 성서는 가지고 다니면서 받들어 모셔야 할 책이 아니라, 읽고, 명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책이다(『신약 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기독교서회, 민경식 지음, 176쪽).

성경 신자들의 눈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불신자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한다. 현재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본문 비평은 실은 천주교회가 종교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도구로서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안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천주교회의 본문 비평에는 내재된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곧 후대 사본들에는 필사자들의 실수가 축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래된 사본일수록 성경의 원문에 가깝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본문 비평가들은 후대의 사본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수가 훨씬 적은 오래된 사본에 더 많은 신뢰와 권위를 준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 보존된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동방 정교회 수도원에 보존된 '시내 사본'이다. 이것들은 주후 4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초기 교회들이 천주교회의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같은 소수 사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인 본문 사본만을 사용하였고 그 사본이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조심스레 그것을 필사하고 불태워 버렸다. 이런 이유로 초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오래된 사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워낙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본들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런 계통의 사본들은 현존하는 사본들의 99%를 차지할 정도이며 유럽과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등의 기독교가 전파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반면에 다음모자 콘스탄틴 황제의 꼭두각시였던 유세비우스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등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바티칸 도서관과 시내산 수도원에 고이 간직되어 왔다. 또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값싼 파피루스에 대부분의 사본들을 필사하였기에

이것들을 오래 보존하기 어려웠으나 바티칸 사본 등은 벨럼이라는 가죽에 필사되어 장기간 보존될 수 있었다. 개역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의 각주에는 종종 “더 좋은 사본 혹은 더 신뢰할 만한 사본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더 좋은 사본’, ‘더 신뢰할 만한 사본’, ‘더 오래된 사본’은 한결같이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을 가리킨다.

학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학교로 들어온 본문 비평은 19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고,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A. Hort) 박사에 의해 널리 파급되었다. 이들은 천주교 사상과 이교주의, 그리고 독일의 이성주의에 물든 자들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찬양하고 마리아 숭배를 옹호하며 유명 길드 같은 심령술 단체를 만들어 자유주의 이교도 신학을 전파하였다. 이들은 썬이어(J. H. Thayer)와 스미스(V. Smith) 같은 유니테리언 이단들과 함께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를 조직한 뒤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교묘하게 비평하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론으로 수정 본문을 만들고 여기에 근거하여 1881년에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을 출간하였다. 이들이 바티칸 사본과 시네 사본을 근거로 공인 본문을 개정하여 만든 부패한 본문은 보통 ‘비평 본문’ 혹은 ‘수정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하던 이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부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개역성경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고, 그것의 미국판인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역시 1901년에 출간되었으나 성도들에게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한국의 개역성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이 신학문으로 추앙받던 시기에 여러 면에서 흠이 많은 ASV를 주요 원천으로 해서 번역되었기에 이런 불신 학자들의 잘못된 사상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최근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로 이것이 한국 성경들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비록 ERV, ASV 등이 실패하였지만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뿌려 놓은 성경 의심 사상은 그 이후로 신학문이라는 미명하에 즐기치게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들로 파고들어가 지금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학교가 천주교회가 만든 ‘비평 본문’을 성경 원어 강좌의 본문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학교나 학계에서 설 곳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원어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천주교의 소수 본문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의 이러한 거센 공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이 지배하는 영어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전서’(The Holy Bible)로 자리를 굳혀 왔다. 이에 마귀는 본문 비평과 학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경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이 세상 미디어를 지배하는 언론 재벌 머독(R. Murdoch)이 소유한 존더벤(Zondervan)이라는 출판사를 이용하여 1970년경부터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이라는 사역(私譯) 성경을 만들어 냈다. 머독은

하퍼 콜린스라는 세속 출판사를 운영하며 ‘사탄경’(*Satanic Bible*)을 출간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마스 넬슨 출판사를 매수하여 뉴킹제임스 역본(*NKJV*)을 출간하고 있다(이름에는 킹제임스가 들어가지만 이것 역시 부패된 성경임). 그는 상업적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제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많은 광고와 함께 대규모 신학교의 교수들을 집필진으로 활용해 NIV를 홍보하면서 성경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은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미국 성경 시장의 50% 정도를 잠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교회는 배도의 길을 걸을 것이고 마귀가 장악한 천주교회는 계속 득세하여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므로 부패된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계속해서 낚아챌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배도하는 때에 천주교와 또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 역본들의 세력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므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말세에는 천주교가 주도하는 이런 대규모 배도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훼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구원을 흐릿하게 하며 재림과 휴거와 천국의 소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도 성경 신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 전쟁에서 한국은 미국/영국과 조금 상황이 다르다. 미국/영국은 약 400년 동안 완전한 성경이 독주하다가 19세기 말부터 부패된 현대 역본들이 출간되면서 야금야금 그 세력을 갉아먹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처음부터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이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겨우 몇 년 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어 이제 막 성경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는 성경만을 믿음과 실행의 절대적 근거로 삼으려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성도들이 성경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개역성경이 가져다준 ‘한국적 기독교’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한 ‘성경적 기독교’가 세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바른 성경을 한국의 성도들에게 알려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는지 몇 가지 이유를 기술하고자 한다.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

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23:19)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해 무어라고 하셨는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확실히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성경 변경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주셨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처럼 성경 변경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날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한국 공통어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현대 역본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변경을 옹호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완전한 성경이 적어도 한 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진지하게 비교해 보기 바란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일단 개역성경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신약 성경에서만 적어도 13구절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 구절들을 ‘없음’으로 표기해 놓았다(이 책자의 뒤표지 참조). 정직한 독자라면 ‘없음’이 없는 성경과 ‘없음’이 있는 성경들을 비교한 뒤 그것들이 다 같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몇 구절이 빠지거나 단어가 삭제되거나 첨가되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분석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그들의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금세 알 수 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교리의 변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각까지 보존할 수 있는 분이신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분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무에서 유로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혀 썩어서 몸의 모든 원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 몸의 원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는 부활이나 창조보다 말씀 보존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닌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편견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검증하면 할수록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모든 단어를 담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역본들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평생을 연구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단 몇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성경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사실이 완전한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현대 역본들은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이권을 가진 자들을 편집 위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신학과 배경에 맞게, 또한 출판업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번역하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뜻이 아니라 집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번역이 최종 산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행’(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며 성도들이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갈5:19; 엡5:3 등). 그런데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부도덕’(immorality)으로 바꾸어 버렸다. 부도덕과 음행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에 하는 자들을 ‘sodomites’, 즉 소돔성에서 동성에 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NKJV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비뒤틀어진 자들’(perverted persons)로 애매모호하게 바꾸어 버렸다(왕상14:24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번역하면, 동성애나 음행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 시대에서 성경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없으므로 저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바꾸어 버렸다. NIV의 편집자 중 하나인 몰렌코트 박사는 자신이 여성 동성애자임을 온 세상에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성들끼리 혹은 남성들끼리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번역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신학을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다. 더욱이 번역하는 내용을 번역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수십 번 일일이 검토하였으므로 사적인 번역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제임스 왕 자신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종종 직접 번역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본인들의 특정 신학이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단지 연약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을 뿐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 전인 156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추종자들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만들었다. 제네바 성경 역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지만 칼빈의 신정 정치 개념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결국 사적인 성경이 되고 말았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1590년경부터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가져간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빈주의라는 비성경적인 사적 해석이 들어간 제네바 성경에 복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킹제임스 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헌법과 정신세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교리적 편견 없이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임을 역사가 보여 준다.

제임스 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초대 영국 왕이 된 사람이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치적이 많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을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 주셨고,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사람들에게 의해 이름이 많이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야고보는 야곱을 나타내는데 이 야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경’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3.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이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컴퓨터 시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는 현대 역본들 안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판이 바뀌곤 한다.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등 현대 역본들이 모두 다 이런 같은 과정을 겪었고 개역성경도 수십 차례 변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도 나오자마자 수차례 판이 바뀌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철자법 변화를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거친 세파를 이겨 내며 지금까지 완전한 본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성경이 역사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있었던 말인가?

4.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을 반대한다

영어권에서는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 수백 종류의 역본들이 있다. 이런 역본들은 늘 “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는 광고와 함께 출간된다.

어떤 현대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하는 것이 그런 역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그 역본들이 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사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 성경 전쟁을 관망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NASB를, 킹제임스 성경의 냄새가 나는 성경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NKJV를, 젊은이들에게는 NIV를, 아이들에게는 리빙 바이블을, 성경을 소설처럼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의역성경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Amplified Bible*)을 던져 주고 있다. 이들이 무슨 성경을 보든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현대 역본이기만 하면, 교황이나 천주교 세력에게는 모두가 남는 장사이다. 번역의 형식과 표현, 겉표지가 다를 뿐 내용은 다 같기 때문이다.

5.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이룬 정직한 성경이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상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을 사상 영감이라고 말하며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은 성경 보존이란 사실 사상의 보존이며 따라서 번역은 사상만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번역 기법은 유진 니다(Eugene Nida)에 의해 파급된 의역이다. 이들은 대충 뜻만 알아듣게 전달하면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리빙 바이블과 메시지이다. 또한 NIV도 절반은 의역이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그리스어 원문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는 ‘1년 치 봉급’이라고 했다. 이들은 NIV의 이런 의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NIV의 번역이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는 ‘1년 치 봉급’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들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번역한 뒤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무작정 쉽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 담은 책이다. 그러므로 그런 단어들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상들이 아닌 단어들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하여 번역되었고, 수용 언어인 영어가 허락하는 한 원어의 단어와 영어의 단어가 서로 일치하며 문장의 형태까지도 일치하도록 번역되어 원문의 형식까지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다.

원어에서 수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부가적인 단어들이 불가피하게 첨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문서를 번역해 보면 누구라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번역을 위해 자기들이 첨가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독자들은 어떤 것이 원어 성경에 있던 단어이며 어떤 것이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라 번역되었으므로 독자는 원어 성경이 없어도 원어와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며 축자적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읽고, 그것들을 원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현대 역본들은 첨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구분하지 않았고 많은 경우 의역되었으므로 독자들은 이런 역본의 단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지 확인할 수 없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들은 이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단지 어감이나 읽힘성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구절을 짧게 축약하고 의역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바른 신학이 정립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우리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직역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존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6.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없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온갖 꾀를 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왔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로서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의 출생 이후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 실패하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자 계락을 바꾸어 신약 성경에서 그분의 신격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가장 크게 변개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그 결과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예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약화하고 있다.

다음 표는 현대 역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약화한 몇 사례를 보여 준다. 이 표가 보여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몇 구절만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라도 쉽게 현대 역본들의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이 현대 역본들에서 약화되는 이유는 그것들의 모체인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들이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경에 큰 복을 주셨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누가 완전한 성경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이 성경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드넓은 우주에서 갈 곳을 모른 채 홀로 떠도는 별똥별과 같고 망망대해를 나침반과 지도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그스던 박사의 회개의 고백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는 NASB를 만든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의 회개의 고백을 소개하려 한다. 로그스던 박사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2년간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요, 성경학자였다. 그는 자기 친구인 사업가 록크맨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1901년판 ASV를 살려 NASB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여러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번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번역이 완성된 뒤 직접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가 만든 작품인 NASB가 실제로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임을 늦게나마 깨닫고 NASB와 관련된 자기의 행적을 회개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였다.⁶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신미국표준역(NASB)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려 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잘못된 성경의 기초를 놓았다. 사실 나는 이 역본의 형식을 결정했고, 번역자들 중 몇몇과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앉아 일했고 서문을 썼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역본이 발간된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을 비웃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나는 NASB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질문과 비평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반박할 수도 없다. NASB 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참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았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이같이 변개한 일에 사탄의 속임수와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해 봐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 나는 곧바로 NASB를 출간한 록크맨 재단의 설립자이자 내 절친한 친구인 록크맨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NASB와 관련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NASB는 참으로 내게 큰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큰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나는 NASB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으나

64) <http://www.youtube.com/watch?v=wZBeIr1wKGY>, 참고로 우리말 개역성경은 로그스던 박사가 개정한 ASV를 번역의 주요 원천으로 사용하였다.

<현대 역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약화>

KJV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주 예수 그리스도	행15:11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행16:31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행19:4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롬1:3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5:4-5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16:22	주
주 예수	고후4:10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후11:31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엡3:14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전3:11	예수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8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12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요이3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채 굳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 사실 심히 변개된 그 본문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 이제 나는 무디 성경 학교의 학장인 조지 스윙 박사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제 독자께서는 권위역본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라고 말해도 된다.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야만 한다.

NKJV를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영지주의 이단인 오리겐이 편집한 ‘부패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계22:18-19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변개하였다. 요한계시록은 말세 교회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 주는데 이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이고 음탕한 교회이다(계3:14-22). 궁극적으로 이 배도한 교회는 유혹을 받아 속아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저 음녀, 즉 자주색 옷을 입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채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체제와 하나로 엮이게 된다. 이런 혼합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말씀을 천주교회의 부패한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을 보여 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수많은 이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천주교회의 일원인 히틀러가 천주교회를 심히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국과 천주교회를 연합시키려 하였고 이 일을 쉽게 이루려고 뮐러 주교(Bishop Ludwig Muller)를 시켜 죄나 은혜 같은 단어들 제거한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하였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히틀러와 함께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만 가르쳐 주었다. 성경 변경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브에게 물으면 서(창3:1) 의심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살짝 의심을 불어넣은 뒤 그는 새로운 계시를 담아, 먹기에 좋게 보이는 말들을 도입하여 사람을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이런 유형의 마귀의 계략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는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근거로 번역했다는 새로운 역본들을 수백 개나 만들어 여전히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단언하건대 새로운 계시는 없다.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지난 400년간 자신의 모든 말씀들(words)을 보존하셨다.

- NASB 편집 위원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주교회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게 세워 놓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저 랜드마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랜드마크(landmark)를 물려줄 것이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Remove not the ancient landmark,
which thy fathers have set.”(Prov. 22:28)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본 장에서는 웨이트(D. A. Waite)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며」(*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와 리플링거(G. Riplinger)의 「현대 성서와 뉴에이지」(*New Age Bible Versions*) 및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최근에 나온 현대 역본들보다 탁월하다.

1. 원어 본문(Original Language Texts)
2. 번역자(Translators)
3. 번역 기법(Translation Technique)
4. 신학(Theology)

한 가지씩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앞서 위의 네 가지 항목들을 다음 성경 구절과 비교하면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 3:9-11).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성경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 조건들과 비교될 수 있다.

1. 주 건축자(Master builder): 사도 바울 등과 같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원본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
2. 다른 사람들(Builders): 원본을 이용하여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
3.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가?(How to build): 번역의 방법 및 기술
4. 건물을 무엇으로 세우는가?(What to build): 번역의 재료, 즉 신학

하나님의 건물의 기초나 성경의 기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번역된 성경의 질이나 우수성은 위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심지어 그 안의 내용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질이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우수성

1.1 KJV의 구약 본문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롬3:1-2).

이 성경 말씀이 보여 주듯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고 이들 중에서 성경을 맡아 직접 손으로 복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성경 기록관, Scribe)이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서기관들은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과 함께 큰 권세를 지닌 그룹이 되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필사 과정의 한계 때문에 성경 본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런 필사본에 근거한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존을 위해 선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960년, 밀러(H. 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해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뒤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고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뒤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었으므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 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고,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Text)이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후 10세기경에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전 4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말로서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사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이며 현재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소라’라는 말은 명사로 쓰일 때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을 보존해 온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 ‘WAITER’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주고 단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h’는 ‘아’(ah)라는 발음을 갖고,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 렉서니스’(Matres lectionis)라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ATER’와 ‘WAITER’는 이런 기호들에 의해 구분이 된다. 마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다 모음 부호를 달아 준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매우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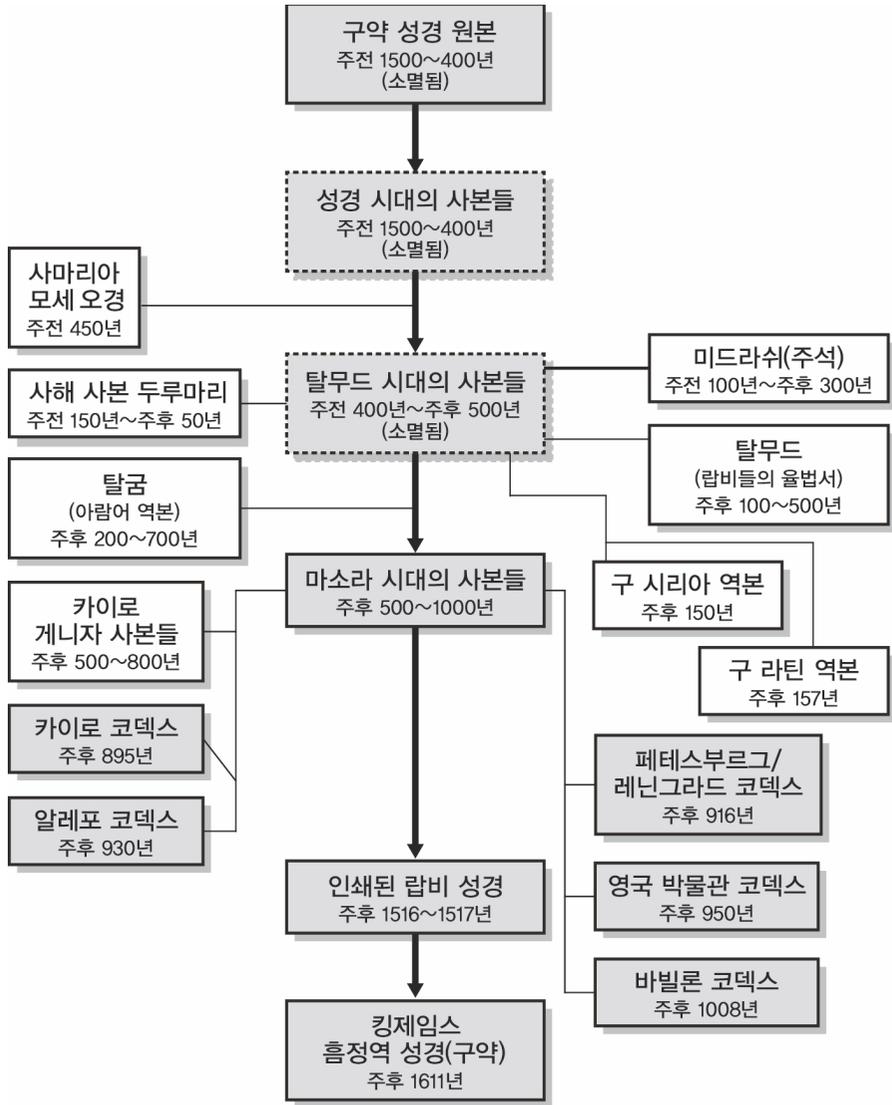
1.2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구약 본문

신미국표준역(NASB) 서문에는 번역자들이 키텔(Rudolf Kittel, 1853-1929)의 「Biblia Hebraica」 최신판(3판)과 최근의 어휘 사전, 히브리어와 동일한 기원을 지닌 다른 나라의 말들, 그리고 사해 사본 등에 기초해서 NASB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NASB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하여 번역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키텔과 칼레(Paul. E. Kahle, 1875-1964)의 1937년판 「Biblia Hebraica」에는 페이지마다 각주에 15-20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으므로 구약 성경 전체에 최소한 20,000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할진대 과연 이것을 보존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국제역(NIV) 역시 그 서문을 보면 키텔의 「Biblia Hebraica」(3판)와 사해 사본, 사마리아 모세 오경, 본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 고대 성경 기록관들의 전통, 본문 여백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본문들, 70인역,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등을 사용하여 구약 본문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뉴킹제임스역(NKJV)의 서문 역시 번역자들이 1967/1977년판 「Stuttgart Edition of Biblia Hebraica」를 사용했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들어진 본문이므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고 불리며 내용 면에서는 키텔의 「Biblia Hebraica」(3판)와 거의 비슷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키텔의 본문은 보통 「Biblia Hebraica Kittel」, 즉 「BHK」라고 부르며, NKJV가 사용한 본문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즉 「BHS」라고 부른다. 이 「BHS」 역시 「BHK」처럼 페이지마다 각주에 수정 사항이 들어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약 20,000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 NKJV의 역자들은 자신들이 종종 KJV의 근간이 된 1525년판 「봄베르그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였으며, 70인역,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사해 사본 등을 참고하고 그것들과도 비교했다고 말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

이를 통해 우리는 NKJV 역시 ‘전통 마소라 본문’ 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마소라 사본들은 모두 동일한가?

새로 출간되는 성경들에 대한 광고를 보면 NIV, NASB의 역자들도 자신들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은 이들도 KJV의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믿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소라 본문에는 두 종류가 있고 KJV의 마소라 본문과 NIV, NASB 등 현대 역본의 마소라 본문은 매우 다르다. 이들이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하여 KJV를 읽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KJV의 히브리어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516-1517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출간한 구약 성경은 ‘다니엘 봄베르그 판’(Daniel Bomberg Edition)이라 불리며 ‘제1 랍비 성경’(The Firs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후 1524-1525년에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벤 카임(Jacob Ben Chayyim)이 편집하였다 해서 이 본문은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라 불리며 ‘제2 대(大) 랍비 성경’(The Second Grea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뒤 400여 년이 지나도록 표준 마소라 본문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KJV 역자들은 바로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다.

한편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제공한 키텔(Rudolph Kittel, 1853-1929)은 1906년과 1912년에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Kittel*, BHK) 1, 2판을 편찬해 내면서 본문 비평 장치(Textual critical apparatus)라 불리는 각주들을 이용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15-20군데씩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각주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에 근거한 것들이다.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은 주후 1008년에 만들어진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레닌그라드 사본은 ‘전통 마소라 본문’과 매우 다르다.

1929년에 그가 죽은 뒤 칼레(Paul. E. Kahle, 1875-1964)는 전격적으로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본문을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으로 바꾸고는 키텔의 이름을 붙여서 1937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출간하였다. 이 같은 본문 교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20,000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한다. 키텔의 작품이 아님에도 보통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BHK*)으로 불리는 이 성경, 즉 비전통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에 근거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마침내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KJV를 제외한 NASB, NIV, 신개역표준역(NRSV), NKJV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한 마소라 본문이 유대인들의 '전통 마소라 본문'인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증오한 키텔의 「BHK 3판」과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지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BHS」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학 대학에서 성경 본문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경우 어떤 본문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으신 성경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말씀'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단어)이 보존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손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은 것임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란다(마5:17-18; 눅24:27; 눅24:44 등).

1.4 KJV의 신약 본문

KJV 신약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다. '공인 본문'은 누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누구나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 Received Text)이며 따라서 이것은 모두가 수용했다는 의미의 '수용 본문'(收容本文)이라고도 불린다.

'공인 본문'은 KJV 신약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1598년에 출간된 베자의 제5판이 사용되었다. '공인 본문'의 특징은 우선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며, 로마 카톨릭교회의 '서방 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고,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 본문'이라고도 한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상당수의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조합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베자(Theodore Beza),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와 엘제비어 혹은 엘지버 형제(Elzevir Brothers), 아브라함과 보나벤처(Abraham and Bonaventure)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다섯 번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1516년의 제1판에 이어, 1519년에는 마르틴 루터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의 독일어 번역본에 사용했던 제2판이 나왔다. 그 뒤 그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판은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매우 훌륭했고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모범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는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1년에 모두 네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베자도 1565년, 1582년, 1588년, 그리고 1598년에 걸쳐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KJV의 역자들은 1598년의 베자 성경과 1550년과 1551년의 스테파누스 성경을 주요한 출전으로 사용했다. 1611년에 KJV가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엘제비어 형제가 1624년, 1633년, 그리고 1641년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는데 이들은 에라스무스의 표준을 따랐던 베자의 판을 충실히 따라가며 본문을 편집했다. 한편 이들은 1633년에 출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서문에 그때까지의 본문들을 개선하여 얻은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문구를 새겨 넣었는데, 그 문구는 라틴어로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이며, 그 뜻은 “사람들이 수용한 책으로부터 입수한 본문에 따르면…”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공인 본문’ 혹은 ‘수용 본문’(Received Text 혹은 *Textus Receptus*)이라는 명칭이 탄생하였다.

1.5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신약 본문

사도 시대부터 약 1,900년 동안 신약 교회는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에는, 비록 여러 개의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60년 동안 다른 영어 성경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또한 KJV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보편적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성경’이라는 인식하에 ‘권위역본’(Authorized Version)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을 느낀 카톨릭교회에서는 소위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도입하여 성경을 단지 역사책처럼 취급함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으며, 이를 위해 허영에 들뜬 신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1881년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Hort)라는 두 명의 학자들은 ‘공인 본문’에서 무려 5,604군데나 수정하여 ‘비평 본문’이라는 개악된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빼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한 단어들은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에 해당한다.

웨스트코트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으며 호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강신술 등에 심취한 영성주의자들이요, 지옥이나 마귀 등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창세기 기록을 신화로 생각한 인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변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 비교>

	공인 본문	비평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군데 수정: (1,952군데 삭제, 467군데 추가, 3,185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개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개 단어 변경
변경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경 분량	없음	총 46페이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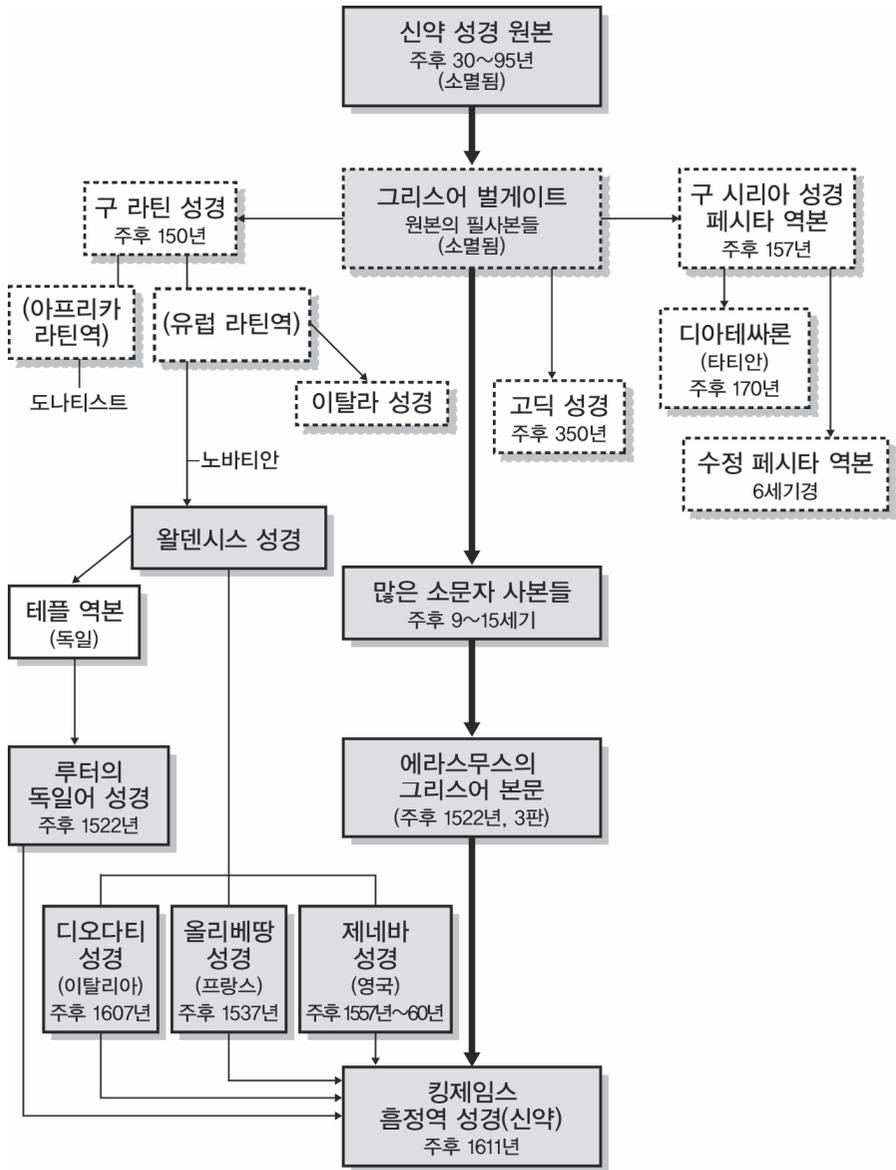
1988년에 무어맨(Jack Moorman) 박사는 ‘공인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네슬레/알란드판」(*Nestle/Aland Edition*)의 그리스어 본문의 단어 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판」의 본문이 ‘공인 본문’에 비해 2,886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이 1,952군데를 삭제한 데 비해 네슬레와 알란드의 본문은 그보다 934단어를 더 삭제하였다. 이만큼 단어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후서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 역본을 읽으면 그만큼 짧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단순히 단어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뉴에이지 신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수학에서 평면이나 입체를 배울 때 두 개의 사물이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리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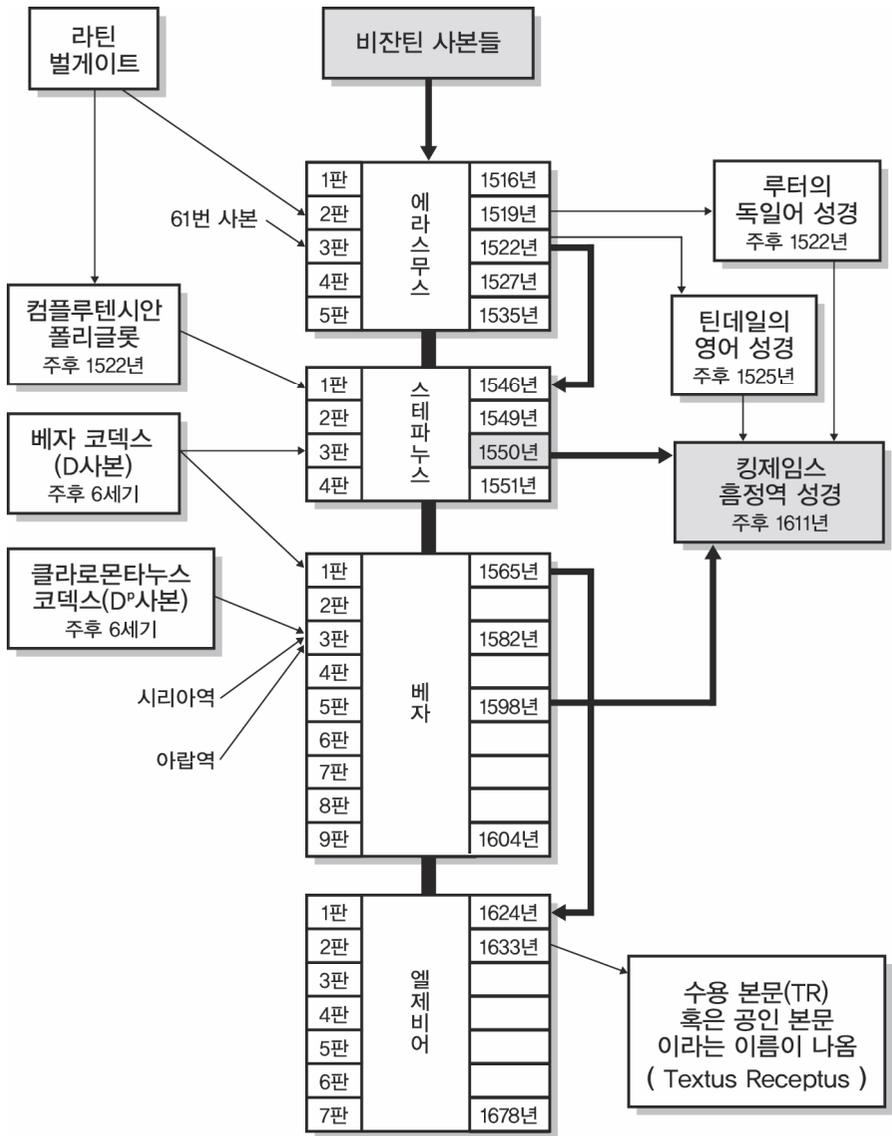
주어진 어떤 것과 동일한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동일하다.

이 규칙을 성경 번역에 적용해 보면 NIV든 NASB든 그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공인 본문’과 5,600군데나 다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1,900년 동안 보존해 온 ‘공인 본문’에 근거를 둔 KJV와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NIV나 NASB를 손에 들고 이것이 영어로 보존된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서 200여 구절을 발췌하여 여러 역본의 순수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의 맨 오른쪽 열은 비교 대상인 200구절 중에서 변경된 구절 수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공인 본문’에 기초한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빼고는 모든 현대 역본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박사 성경」(정동수 저,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간)을 참조하기 바란다.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1.6 역사적 증거들

‘공인 본문’(TR)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본문이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이 증명한다.

- A. 주후 33-100년 사이의 사도 교회 시대
 - (1) 초기의 사도 교회들이 다 TR을 사용했다.
 - (2) 팔레스타인에 있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3) 안디옥의 시리아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B. 주후 100-312년 사이의 초대 교회 시대
 - (4) 페시타 역본이 TR을 사용했다.
 - (5) 파피루스 66번이 TR을 사용했다.
 - (6) 북이탈리아의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7) 남프랑스 골 지방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8) 영국의 켈트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9)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0)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 이전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11)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C. 주후 312-1453년 사이의 비잔틴 시대
 - (12) 4세기의 「고딕역」이 TR을 사용했다.
 - (13) 4, 5세기의 ‘W 코텍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4) 5세기의 ‘A 코텍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5) 5,255개의 사본 중 5,210개의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6) 그리스 정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7) 현시대의 그리스 정교회 역시 오직 TR만을 사용한다.
- D. 주후 1453-1831년 사이의 초기 현대 시대
 - (18) 종교 개혁 시대의 모든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9)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0) 1522년의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 TR을 사용했다.
 - (21)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2) 1525년의 「틴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3) 1535년의 프랑스의 「올리베탕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4) 1535년의 「커버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5) 1537년의 「매튜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6) 1539년의 「태버너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7) 1539-1541년의 「그레이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8) 1546-1551년의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9) 1557-1560년의 「제네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0) 1568년의 「비숍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신약 성경 역본 비교: 200구절>

	신약 성경 역본	변경/삭제
1	「한글개역성경」(<i>Korean Revised Version</i>)	177
2	「신영어역」(<i>New English Bible, NEB</i>)	197
3	「신국제역」(<i>New International Version, NIV</i>)	195
4	「개정표준역」(<i>Revised Standard Version, RSV</i>)	189
5	「버클리역」(<i>Berkeley Version</i>)	185
6	「위마우스역」(<i>Weymouth's in Modern Speech</i>)	184
7	「신미국표준역」(<i>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i>)	183
8	「현대인의 성경」(<i>Good News for Modern Man</i>)	182
9	「윌리엄스역」(<i>Williams' New Testament</i>)	180
10	「패닌역」(<i>Ivan Panin's Numeric New Testament</i>)	180
11	「굿스피드역」(<i>Goodspeed's American Translation</i>)	179
12	「모팻역」(<i>Moffatt's New Translation</i>)	175
13	「우에스트역」(<i>Wuest's N.T.</i>)	169
14	「증보역」(<i>Amplified New Testament</i>)	165
15	「20세기역」(<i>Twentieth Century N.T.</i>)	161
16	「필립스역」(<i>Phillip's New Testament</i>)	142
17	「다비역」(<i>Darby's Translation N.T.</i>)	138
18	「리빙 바이블」(<i>Living Bible Paraphrased</i>)	130
19	「신조합역」(<i>New Confraternity N.T.</i>)	119
20	「놀리역」(<i>Norlie's New Translation N.T.</i>)	62
21	「람사역」(<i>Lamsa's Eastern Text N.T.</i>)	49
22	「웨슬리역」(<i>John Wesley's Translation N.T.</i>)	43
23	「루터의 독일어 성경」(<i>Martin Luther's German N.T.</i>)	0
24	「영어 킹제임스성경」(<i>King James Version N.T.</i>)	0

(마1:25; 5:44; 6:13; 6:27; 6:33; 8:29; 9:13; 12:35; 12:47; 13:51; 15:8; 16:3; 16:20; 17:21; 18:11; 19:9; 19:17; 20:7; 20:16; 20:22; 21:44; 23:14; 25:13; 27:35; 28:2; 28:9; 막1:1; 1:14; 1:31; 2:17; 6:11; 6:16; 6:33; 7:8; 7:16; 9:24; 9:42; 9:44; 9:46; 9:49; 10:21; 10:24; 11:10; 11:26; 13:14; 13:33; 14:68; 15:28; 16:9-20; 눅1:28; 2:33; 2:43; 4:4; 4:8; 4:41; 6:48; 7:31; 9:54; 9:55; 9:56; 11:2-4; 11:29; 17:36; 21:4; 22:20; 22:31; 22:64; 23:17; 23:38; 23:42; 24:3; 24:6; 24:12; 24:49; 24:51; 요1:14; 1:27; 3:15; 4:42; 5:3; 5:4; 6:47; 6:69; 7:53; 8:16; 9:35; 11:41; 16:16; 17:12; 20:29; 행2:30; 7:30; 7:37; 8:37; 9:5,6; 10:6; 15:18; 16:31; 17:26; 20:25; 20:32; 23:9; 24:6-8; 24:15; 28:16; 28:29; 롬1:16; 1:29; 8:1; 9:28; 10:15; 10:17; 11:6; 13:9; 14:6; 14:21; 15:29; 16:24; 고전1:14; 5:7; 6:20; 7:5; 7:39; 10:28; 11:24; 15:47; 16:22; 16:23; 고후4:6; 4:10; 5:18; 11:31; 갈1:15; 3:1; 3:17; 4:7; 6:15; 6:17; 엡3:9; 3:15; 5:30; 6:1; 6:10; 빌3:16; 골1:2; 1:14; 1:28; 2:11; 3:6; 살전1:1; 2:19; 3:11; 3:13; 살후1:8; 딤후1:17; 2:7; 3:16; 4:12; 6:5; 딤후1:11; 4:1; 4:22; 딤후1:4; 몬1:6; 1:12; 히1:3; 2:7; 3:1; 7:21; 10:30; 10:34; 11:11; 약5:16; 벰전1:22; 4:1; 4:14; 5:10; 5:11; 벰후2:17; 3:9; 요일1:7; 2:7; 4:3; 4:9; 4:19; 5:7-8; 5:13; 유1:25; 계1:8; 1:11; 2:13; 5:14; 6:1; 8:13; 11:17; 12:12; 12:17; 14:5; 16:17; 20:9; 20:12; 21:24)

- (31) 1569년의 「스페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2) 1598년의 「베자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3) 1602년의 「체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4) 1607년의 디오다티의 「이탈리아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5)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6) 1624년의 엘제비어(혹은 엘지버) 형제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1.7 사본들의 증거

1967년도까지 존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의 수는 모두 5,255개이다. 이런 사본들에는 81개의 파피루스 사본과 267개의 대문자 사본, 2,764개의 소문자 사본, 2,143개의 기도문(혹은 교독문) 등이 있다. 다음 표는 이런 사본들이 어떤 본문을 지지하는지 잘 보여 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 이 사실은 초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 준다.

<사본들의 본문 지지도>

사본 종류	개수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웨스트코트/호르트 및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파피루스	81	68(84%)	13(14%)
대문자 사본	267	258(97%)	9(3%)
소문자 사본	2,764	2,741(99%)	23(1%)
기도문 등	2,143	2,143(100%)	0(0%)
합계	5,255	5,210(99%)	45(1%)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는 ‘공인 본문’과는 달리 1898년에 처음 만들어진 네슬레의 그리스어 성경은 2012년까지 27번이나 판을 개정하여(현재 28판) 평균 4.2년마다 새로운 판이 개정되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성경을 뜯고치려 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도한 사람들이다.

특히 알란드(Kurt Aland, 1915-1994)는 배도한 독일인으로서 독일의 뮌스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다. 그는 ‘공인 본문’을 믿지 않고 ‘네슬레/알란드판’ 편집 위원회의 의장으로 일하였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의 90% 정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보관했다. 그는 ‘공인 본문’과 일치하는 사본을 발견할 때면 무조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본이 과거의 어떤 사본을 베낀 형편없는 사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며 사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을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 그 개수에 상관없이 단일 증거로만 사용하려 한다.

이들이 이 같은 철학을 수용한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후 250-350년 사이에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려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본들을 모두 없애고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폈는데 알란드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같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날조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주의에 심취되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영성주의자들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은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들, 즉 전체 사본 중 1%에 해당하는 사본들에 근거를 둔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2.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우수성

2.1 KJV 번역자들의 우수성

KJV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57명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문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 관료나 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언어에 정통해야만 했다. 이들의 원어 실력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15, 16세기경 조선 왕조에서 출세를 하려면 한문 실력이 뛰어나야만 했으며 따라서 유서 있는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중국 고전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게 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국 고전을 읽어 술술 외는 사람과 성장한 뒤 대학에 가서 중국 고전을 공부한 20세기의 중국 고전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중국 고전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영어 성경 번역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과 그리스어 고전을 읽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사람과 장성하여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현대 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원어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1세기의 현대인들과는 달리 15, 16세기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오락이 그리스어 놀이였다. 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현대 원어학자들을 KJV가 출간되던 시대의 학자들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 57명이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다면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만 할 것인가?

KJV 번역자들이 기술한 「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The Translators To the Reader*)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탁월한 학자일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 이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리가 없는 경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2.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여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그저 담아두기만 하는 만나 향아리나 하나의 기름 단지가 아니며 한두 끼 분의 양식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요, 기름 단지로 가득한 저장고와 같다. 이로써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로써 우리의 빛이 탕감된다.

3. 이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만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회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아가게 해 준다. 보통 사람들의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물 길을 그릇이 없이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4.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우리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신다. 또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참으로 우리의 성정을 고치신다. 그 결과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그것[말씀]을 사랑할 수 있으며 참으로 끝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오 그토록 위대한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며, 하나님의 그토록 큰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들처럼 그토록 귀한 보물을 발로 짓밟지 말며 개들처럼 거룩한 것들을 물어뜯고 능욕하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고 부르실 때에 '오 하나님이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된 일이며 우리를 결국 영존하는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2.2 NIV, NASB 등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열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책을 저술하는 작가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든,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든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이 구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번역에 임한 KJV의 역자들의 작품과 그에 반해 성경을 단지 하나의 고대 작품이나 신화 정도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번역한 NIV 등 현대 역본들 편집자들의 작품이 어떨지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 현대 역본 편집자들과 이들에게 본문을 제공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상 및 생애는 이 책의 4장에 요약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현대 역본 편집자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 NIV의 주 편집자 팔머(Edwin Palmer)는 자신이 편집한 NIV가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NIV는 현재 몇몇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큰 오류, 즉 ‘거듭남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개념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한 구절은 사실상 성경에 거의 없다.

■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중보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NASB의 창시자는 「동서양 저널」(*East-West Journal*)이 ‘새 시대 운동과 동서양의 합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칭했던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새 역본의 편집자는 자신이 변경한 믿음의 신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변화들 - 즉 자신이 변경한 것들 - 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반드시 새로운 신학의 보물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 ‘새’ 역본 편집자들이 그리스어 어원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참고 사전은 히틀러의 추종자(게하르트 키텔, 루돌프 키텔의 아들)가 집필한 것으로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전쟁에 관련된 소송에 회부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NIV 편집 위원회의 몰렌코트 박사(Dr. Virginia Mollencott)는 “동성연애(Lesbianism)는 항상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라고 자랑스레 말한다(1991년 6월호 성공회 「위트니스」지). 그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 저술한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라는 책은 성경이 ‘매춘’, ‘폭력에 의한 갱들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을 책망하며,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실 그녀의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NIV에 반영되어 있다.

결국 ‘의(義)를 ‘부(副)로, ‘십자가’를 ‘왕관’으로, ‘새로운 창조’를 ‘모방’으로 대체한 ‘새로운’ 역본들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태동되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 역본들의 열매이다.

3. 킹제임스 성경 번역 방법의 우수성

3.1 KJV의 번역 방법

KJV 번역자들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취한 번역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팀워크를 이루어 번역을 했다. 57명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번역했고 각 그룹은 두 조로 나뉘었으며 한 조의 인원은 대략 7명 정도였다.

1. 웨스트민스터 그룹(2조), 2. 옥스퍼드 그룹(2조), 3. 케임브리지 그룹(2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KJV의 경우 각각의 번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는 것이다. 즉 57명이 모두 자기가 맡은 것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역본의 경우 편집 위원 중에서 소위 실력이 있다는 몇몇 학자들만이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거나 혹은 기껏해야 교정을 보거나 다른 역본들과 비교하거나 하는 등 사소한 일을 한다.

그러나 KJV의 경우에는 57명의 모든 역자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해야 했으며 그중 어떤 이들은 미처 번역을 끝내기도 전에 죽었으나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남은 50여 명의 학자들이 그 작업을 인수하여 직접 번역을 했다.

한편 이들은 팀워크로 일하면서 한두 사람만의 사사로운 의견은 배제하고 오직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신실하게 옮겼다. 팀워크를 통한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첫째 조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12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최종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에 속한 7명 모두가 각각 12권 모두를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본문을 최소한 7번 읽어야 함).
2. 그 뒤 7명이 모여서 검토했다(최소한 1번을 같이 읽음).
3. 그 뒤 다른 조로 보냈다(나머지 다섯 조에서 최소한 5번을 함께 읽음).
4. 끝으로 각 조에서 두 명씩 선출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했다(이 과정에서 최소한 2번을 읽음).

이렇게 철저한 과정을 거치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원어로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검토하며 읽고 번역한 결과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즉 1611년 처음 발간된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 작업도 거치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현대 역본 편집자들 중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하여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또한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역본을 KJV의 역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14번 이상 읽고 검토했던 말인가?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NIV 등은 컴퓨터 시대에 출간되었지만 나오기가 무섭게 개정되고 있다. 마차에 원고를 싣고 다니며, 직접 손에 펜을 잡고 잉크로 글을 썼던 17세기 초반에 나온 성경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직접 번역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코 KJV 역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단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고 믿는다.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KJV로 번역될 때까지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손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성경으로 읽고 인정하셨다.

3.2 KJV의 문자적 일치 및 형식적 일치 기법

KJV 번역자들은 ‘문자적 일치 방법’(Verbal equivalence method)과 ‘형식적 일치 기법’(Formal equivalence technique)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과 기법을 사용하면, 원어의 형식과 단어 자체가 거의 그대로 영어로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역으로 번역하게 되면 원래의 글로 되돌아가게 된다. 물론 원어와 수용 언어가 다르므로 이 기법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어와 원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디모테전서 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There is one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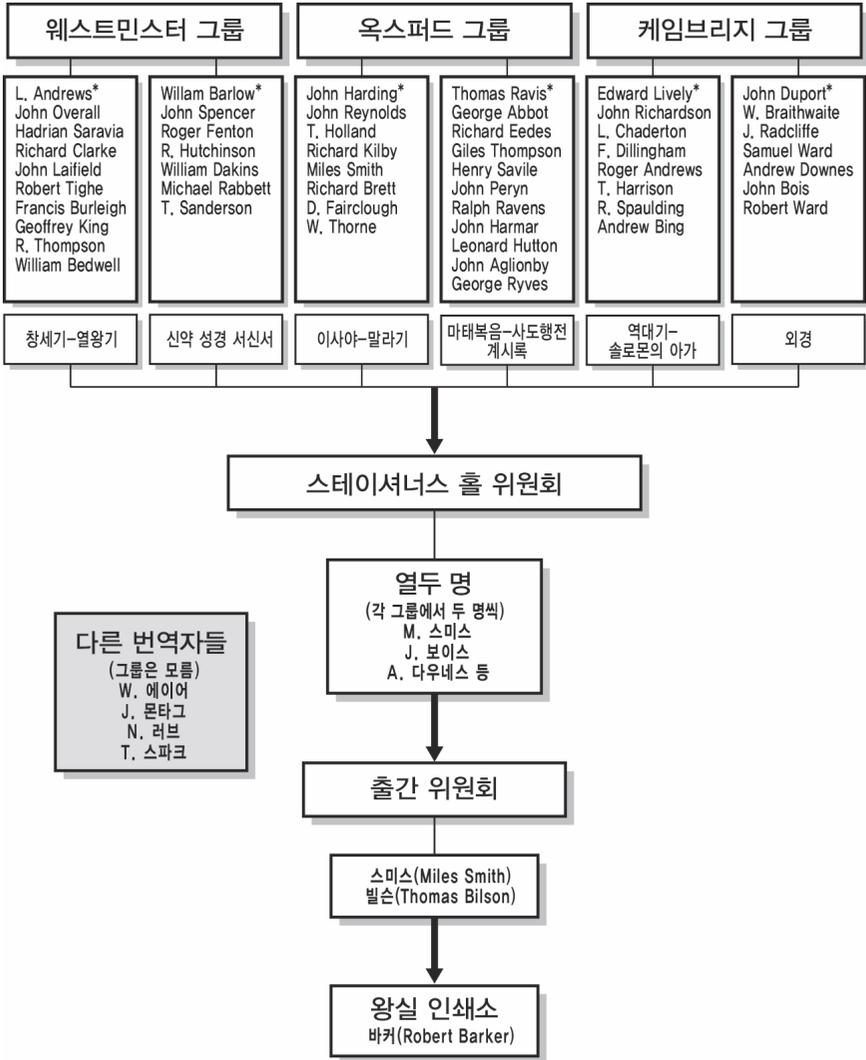
대다수 한국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럼 이것을 역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God is one person.

이제 원래의 영어 구절과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특히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고 만다. 즉,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는 번역이 될까? 그런 번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흠정역).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지 않으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라. 그러면 이 같은 번역이 옳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마귀들이 무엇을 믿고 떠는가? 대다수 한국어 성경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떠는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는가? 그들이 떠는 이유는 자기들을 심판하실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어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자 했던 내용이다.

한편 이 구절에 나오는 ‘한’(one)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I and my Father are one)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one)로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KJV 역자들은 바로 이 같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 기법을 준수하여 원어에서 영어로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번역했다.

3.3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동적 일치 기법

한편 대다수 현대 역본 편집자들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무시하고 소위 ‘동적 일치 기법’(Dynamic equivalence technique)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했다.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이는, 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상관없이 번역을 하게 된다. 특히 소설을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어 뜻만을 전하는 번역을 우리는 ‘의역’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리빙 바이블’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동적 일치 기법’의 창시자는 누구일까? 이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바로 사탄 마귀였다. 동적 일치 기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변경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것을 변경하여 이렇게 말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는 날에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였다. 이것이 바로 동적 일치 기법의 폐해이다.

의심과 혼동의 근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나요?"

(3.3.2) 추가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것에다 자기의 말을 추가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최근에 이 같은 ‘동적 일치 기법’을 성경 번역에 도입한 장본인은 니다(Eugene Nida)이다. 그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미국성서공회, 연합성서공회 등을 위해 일해 왔으며 세상에 이 기법을 파급시킨 장본인이다. 그의 노력을 통해 1975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공식적으로 ‘동적 일치 기법’을 채택했고 그 뒤 1978년에 나온 NIV도 이 기법을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현대 역본을 위한 본문을 제공하는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는 이제 이 기법을 이용한 성경만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동적 일치 기법’을 이용하여 말씀을 변경하고 가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3.3.3) 추측

현대 역본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 중 하나는 추측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들의 추측 번역 방법을 잘 보여 준다. KJV와 ‘전통 마소라 본문’은 창세기 4장 8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KJV).

그런데 NIV는 이렇게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로 가자...(NIV)

히브리어 본문에는 NIV의 밑줄 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NIV 편집자 콜렌버거는 1979년에 발간된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에다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각주를 달았다.

여기 있는 히브리 본문과 번역은 참고 문헌 1번에 있는 여러 가지 초기 번역들을 기초로 해서 추측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신학이나 신념에 맞게 추측하여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고 「BHS」의 경우 구약에서만 약 20,000군데를 수정하였다.

3.4 읽기 쉬운 성경

많은 광고들이 “KJV는 확실치 않으며 혼동을 일으키고 대개의 경우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킴킴한 혼동의 구름을 만들어 낸다. 반면에 그들은 NIV의 ‘읽기 쉬운 현대 영어’를 극구 칭찬한다. 단순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 흑색선전용으로 제작된 전면 칼라 광고지들은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압하고 있다.

그러나 플래쉬-킨케이드(Flesch-Kincaid) 연구사의 영어 등급 수준 지표는 새 역본들의 참 색깔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 주며 이 문제의 흑과 백을 엄격하게 드러낸다. 26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KJV는 이 중 23가지에서 새 역본들보다 더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등급 수준} = (0.39 \times \text{문장당 평균 단어 수}) + (11.8 \times \text{단어당 평균 음절 수}) - 15.59$$

물론 등급 수준이 낮을수록 문장이 쉽게 쓰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먼저 신구약 성경의 첫째 책과 마지막 책의 첫 장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 경우에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들과 마침표로 끝나는 모든 구절을 문장으로 간주했다.

다음 표가 보여 주듯이 비교 결과 KJV가 다른 어떤 현대 역본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KJV의 등급인 5.8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KJV를 읽을 수 있음을 뜻하고 NIV의 8.4는 미국 학제의 8-9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야 NIV를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읽힘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세 종류의 책들(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에서 한 장씩을 뽑아 더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역시 KJV가 새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쉽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1>

	KJV	NIV	NASB	TEV	NKJV
창세기 1장	4.4	5.1	4.7	5.1	5.2
말라기 1장	4.6	4.8	5.1	5.4	4.6
마태복음 1장	6.7	16.4	6.8	11.8	10.3
요한계시록 1장	7.5	7.1	7.7	6.2	7.7
등급 수준 평균	5.8	8.4	6.1	7.2	6.9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2>

	KJV	NIV	NASB	GNMM (TEV)	NKJV
요1:1-21	3.6	3.6	4.2	5.9	3.9
갈1:1-21	8.6	9.8	10.4	6.7	8.9
약1:1-21	5.7	6.5	7.0	6.0	6.4

그렇다면 KJV가 다른 현대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KJV가 한 개나 두 개의 음절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새로운 역본들은 여러 개의 음절로 된 복잡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역본들의 어휘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구원의 소망을 보통 사람들에게 숨겨 버린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고후3:12)

단순하며 분명한 성경 구절에서 NASB는 낱빛의 검푸른 단어들을 사용하며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혼동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생색을 내는 듯한 어휘들을 사용한다.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정확성과 단순성’을 위해 KJV를 읽어야만 할 것이다. 새 역본을 추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세뇌시켜 ‘거짓말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느 성경이 더 읽기 쉬운지 스스로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만 한다.

현대 역본들

수백 개의 왜곡된 성경들

나쁜 열매

모든 중요 교리가 공격을 받음

GNB

NASV

NE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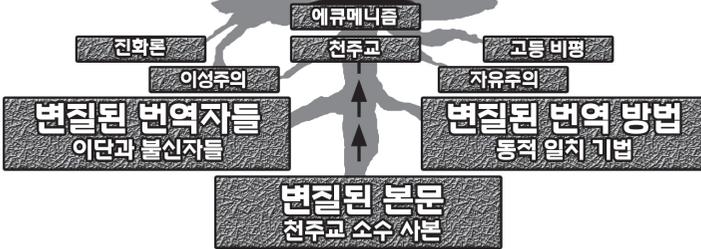
NIV

NKJV

RSV

TLB

변질된 나무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7:17)

3.5 외우기 쉬운 성경

이번에는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경 구절이 적당한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119:11).

성령님의 칼인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한 문장 구조와 한 음절로 된 단어들은 이같이 암송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죄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 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래서 새 역본들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한 공격용 칼이 매우 어려운 단어들의 칼집 안에 갇혀 있다. 대개 새 역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할 때마다 KJV보다 두 배나 많은 단어나 음절을 사용한다. 다음은 KJV와 NASB를 간략하게 비교한 것이다.

이 표가 잘 보여 주듯이 NASB는 KJV에 비해 약 두 배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역본들의 문장 구조를 ‘미로’(迷路)라고 부른다.

“NIV는 참 읽기 쉽다.”는 광고 역시 과대 선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NIV의 복잡한

<KJV와 NASB의 음절 수 비교>

NASB		KJV
Question those who have heard what I spoke to them (10단어/11음절)	요18:21	Ask them which heard me. (5단어/5음절)
Do not be afraid any longer but go on speaking (10단어/11음절)	행18:9	Be not afraid but speak (5단어/6음절)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8단어/9음절)	요21:5	have ye any meat (4단어/5음절)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sick (11단어/14음절)	약5:15	the prayer of faith shall save the sick (8단어/8음절)
flashes of lighting and sounds and peals of thunder (9단어/12음절)	계4:5	lightings, and thunderings, and voices (5단어/9음절)
angel who had seven plagues which are the last (9단어/11음절)	계15:1	angels having the seven last plagues (6단어/9음절)
총 58단어/68음절		총 33단어/42음절

문장 구조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외우거나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된다. 다음 표는 KJV와 NIV의 음절 수를 비교해서 보여 준다.

NIV의 경우 음절 수가 KJV의 3배나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본 부록에서는 지면이 부족하여 성경 전체를 비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NIV의 어휘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KJV와 NIV의 음절 수 비교>

	NIV	KJV
출32:6; 고전10:7	indulge in revery(6)	rose up to play(4)
레14:2, 57	regulations for infectious skin diseases and mildew(15)	law of leprosy(5)
레11:30	skink(1)	snail(1)
고후2:2	conscripted(3)	told(1)
롬1:28	think it worthwhile(4)	like(1)
엡4:16	supporting ligament(6)	joint(1)
눅10:35	reimburse(3)	repay(2)
눅11:26	final condition(5)	last state(2)
총 음절 수	43	17

3.6 KJV 영어의 특징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전 세계적인 책으로 만드셨는데 사실 이 같은 계획은 21 세기에 새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함에 따라 지난 400년간 KJV의 단어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호주,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에 영국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영국의 권력 및 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영문학을 배우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가 아니고 영국 본토의 런던 토박이 영어이다.

사전 찾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친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KJV 안에 있는 8,000여 단어들로 구성된 영어야말로 새 역본들의 영어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정확하며 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3장 24절의 ‘가슴 옷’을 뜻하는 ‘stomacher’는 새 역본들이 번역한 대로 허리띠를 뜻하는 ‘belt’가 아니며 15-17 세기경의 여자들이 가슴에 입었던 옷이다. 새 역본들에 있는 좀더 ‘단순한’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은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거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으로 부터 나온 것들이다. 새 역본들은 다니엘서 3장 7절에서도 KJV의 매우 간단한 단어인 하프(harp)를 훨씬 더 어려운 단어인 ‘지더’(zither)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KJV를 향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어려움만 더해 준다.

보기에 친숙한 것 같지 않은 KJV의 단어들은 다음의 네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 좋은 영어 사전을 사용하라. 어떤 단어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알려면 「Oxford Unabridged, The Glossary of the Cambridge Interleaved Bible」 혹은 1828년 판 「The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oah Webster」 등을 사용하라.
2. 성경에 포함된 사전을 사용하라. 특히 한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날 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어를 처리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삼상9:1-11을 참고하라. 그분께서는 여전히 고어들을 그대로 두시되 성경에서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신다.
4. KJV에 있는 Thee나 Thou 등은 1611년의 영어가 아니고 성경 언어임을 기억하라. KJV가 번역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던 이런 단수 단어들은 이미 당신을 뜻하는 You로 대체되어 있었다. Thee, Thou, Thy, Ye를 You나 Your로 바꾸면 단수 (thee, thou, thy)와 복수(ye) 사이의 중대한 영적 차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예를 들어 요3:7 등과 같은 구절).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You로 부를 수는 없기에 존칭의 의미를 갖는 Thou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4.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한마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절대 무오한 진리 - 이것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면 신학이 됨 - 를 담고 있는 책으로서 오직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재는 척도이다. 따라서 이 척도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믿는 바가 달라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단들의 경우처럼 잘못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KJV 성경의 신학이 얼마나 우수함을 보여 주려 하며, 특히 본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신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많은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내려 한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KJV와 현대 역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 영어 본문도 함께 기록했다.

4.1 하나님론

KJV(요일5:7)	NIV 등 현대 역본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 이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u>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u> : and these three are one.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성경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구절은 없다. 그런데 오직 KJV만이 이 구절을 지니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KJV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4.2 그리스도론

KJV(갈3:17)	NIV 등 현대 역본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u>in Christ</u> ,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after, cannot disannul...	...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et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KJV는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구약 시대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나 NIV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	

KJV(요3:13)	NIV 등 현대 역본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u>which is in heaven</u> .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the Son of Man.
KJV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임을 보여 주나 NIV의 편집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밑줄 친 부분을 제거하였다.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요일4:3)	NIV 등 현대 역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누가 이단인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NIV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KJV(눅2:33)	NIV 등 현대 역본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할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할 것들로 인하여 놀라워하더라.
And Joseph and his mother marvel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him.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KJV(눅4:8)	NIV 등 현대 역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Get thee behind me, Satan: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사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축소하려 한다.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요1:18)	NASB 등 현대 역본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u>독생한 하나님</u> 께서 그분을 설명 하셨느니라.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u>only begotten Son</u> ,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u>only begotten God</u> ,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NASB 등에 따르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열등한 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KJV는 예수님이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KJV(롬14:10-12)	NIV 등 현대 역본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u> 서리라... 그런즉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u> 회계 보고를 하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하나님의 심판석 앞에</u> 서게 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u> 회계 보고를 하리라.
...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u>judgment seat of Christ</u> ...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u>to God</u> For we will all stand before <u>God's judgment seat</u> ...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u>to God</u> .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KJV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 주지만 NIV는 마음대로 본문을 고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4.3 교회론

KJV(계2:15)	NIV 등 현대 역본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u>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u> .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So hast thou also them that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u>which thing I hate</u> .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은 ‘성도를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회중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고 구약 시대 제사장처럼 일반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계급주의 및 교권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4.4 성경론

KJV(삼하21:19)	NIV 등 현대 역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u>Elhanan</u>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u>the brother of Goliath</u> the Gittite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u>Elhanan</u>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u>Goliath</u> the Gittite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이다. 그런데 NIV, ASV, NASB 등은 다윗이 아니라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을 훼손한다.	

KJV(막1:2-3)	NIV 등 현대 역본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As it is written in <u>the prophets</u> ,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thy face,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It is written in <u>Isaiah the prophet</u> :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이 구절은 말3:1과 사40:3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는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며 이를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KJV(막15:28)	NIV 등 현대 역본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삭 제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삭 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언 성취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하고 있다.	

4.4 성경론 계속

KJV(벤전2:2)	NIV 등 현대 역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할 지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
As newborn babes, desire <u>the sincere milk of the word</u> , that ye may grow thereby:	Like newborn babies, crave <u>pure spiritual milk</u> ,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p>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전한 젖은 무엇인가? KJV는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 NIV는 이 사실을 숨기고 또 구원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p>	

4.5 구원론

KJV(요3:15)	NASB 등 현대 역본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That whosoever <u>believeth in him</u>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that <u>whoever believes</u>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p>NASB의 편집자들은 아무것이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KJV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p>	

KJV(계21:24)	NIV 등 현대 역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곳으로 들어오리라.
And <u>the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u> shall walk in the light of it: and the kings of the earth do bring their glory and honour into it.	<u>The nations</u> will walk by its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splendor into it.
<p>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걷는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뿐이다. 그런데 NIV 등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걷는다고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구원받는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p>	

4.6 속죄론

KJV(골1:14)	NIV 등 현대 역본
그분 안에서 우리가 <u>그분의 피를 통해</u>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u>through his blood</u> ,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KJV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 주나 NIV는 이런 사실을 숨긴다.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 등의 현대 역본들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여 ‘피 없는 성경’이 되고 말았다.	

KJV(약5:16)	NIV 등 현대 역본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Confess <u>your faults</u>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erefore confess <u>your sins</u>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KJV는 성도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NIV는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고해 성사를 지지하고 있다.	

4.7 종말론

KJV(마25:13)	NIV 등 현대 역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u>사람의 아들이 오는</u>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함이니라.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u>the Son of man cometh</u> .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그날과 그 시각을 수식해 주는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겠는가? NIV는 결코 쉽게 번역된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을 혼동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	

4.8 심판론

KJV(골3:6)	NIV 등 현대 역본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u>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u> :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닥치지 않고 오직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닥친다. 또 한 번 KJV는 현대 역본보다 훨씬 정확하다.	

4.9 부활론

KJV(막12:23)	NIV 등 현대 역본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 일곱 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u>when they shall rise</u> , whose wife shall she be of them? for the seven had her to wife.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NIV는 부활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한다.	

4.10 지옥론

KJV(막9:44, 46)	NIV 등 현대 역본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삭 제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삭 제
NIV 편집자들은 무척이나 지옥을 두려워하므로 지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곳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지칭하는 곳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음부, 스올 등으로 대체하였다.	

4.11 천국론

KJV(히10:34)	NIV 등 현대 역본
<p>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p>	<p>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앎이라.</p>
<p>For ye had compassion of me in my bonds, and took joyfully the spoiling of your goods, knowing in yourselves that ye have in <u>heaven</u> a better and an enduring substance.</p>	<p>You sympathized with those in prison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p>
<p>NIV 편집자들은 ‘하늘에’를 삭제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워 버리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인간의 기준에서 이것은 참으로 영구한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p>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

1611년에 탄생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심하게 흔들려는 비평가들의 최후 배수진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개정(改正)이라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 곧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사본학적 증거와 성령님께서서 이루신 명백한 증거들을 내보이며 자기들의 빈약한 주장을 뒤엎어 버리자 궁극적인 패배를 맛보지 않으려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 요새로 도피한다. 일단 이 요새 안에 들어서면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여러분은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십니까? 1611년판입니까, 1629년판입니까? 아니면 1769년판입니까?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 하면 그들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재빨리 도망쳐 버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들의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걸어 닫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미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리건 박사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했다. 다시 말해 리건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하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가 발견한 것을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소책자 전편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

마귀가 처음 이브에게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고후4:2)을 가르쳐 준 이래로 사람들은 줄곧 이 방법을 사용해 왔다. 가인으로부터 발람에 이르기까지, 여후디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세 암흑시대 신학자들로부터 오늘날의 인본주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의 부패한 손이 노리는 제1의 표적물이 되어 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대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첨가와 삭제 그리고 바뀌치기가 바로 그것이다. 아담 시대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략은 변치 않고 동일하며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최근 들어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마귀의 공략 방법 중 하나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곧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정면 공격이다. 그 공격의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네 차례나 개정되었으므로 다른 개정 성경들에 대한 반대론은 타당치 않으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신화는 1881년에 나온 ‘영국개역 성경’ 번역자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의 최신 번역판 성경을 팔려는 근본주의 학자들의 불순한 동기에 의해 부활되었다. 이 소책자는 이러한 공격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다. 본 자료의 목적은 성경 보존을 부인하는 자들을 깨우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에 답변할 때 늘 문제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비평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대답해야만 하는가?

만약 영어 성경의 무오류성에 대한 천박한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고자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어느 곳에서나 공정성(公正性)이 득세하기 마련이며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다. 잠언 26장 4-5절은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그것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에 답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공격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당신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미련한 존재로 만든다면 그런 질문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답이 될 것이다. 가령,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는 특정 인물이 이혼했으므로 성경은 무오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누가 해 온다면 이 경우에 여러분은 침묵이 최상의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사실 여부에 따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문제나 질문이 제기될 경우 이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성경 공격자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우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두 번째 종류의 문제라고 믿는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네 차례의 중대한 개정 작업을 거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영어 본문에 기초해서 진전되고 있는 성경 개정 작업에 반대하는 것은 실로 그릇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공격에 대해 진지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독자께서는 이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1. 1611년 당시의 인쇄술

만일 하나님께서 주후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영어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면(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번역자들의 필기 자료일까? 혹은 인쇄공들에게 보낸 교정쇄일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이러한 종이 문치들은 이미 소실되고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권위도 근거를 잃고 만다.

어떤 분은 인쇄기에서 맨 처음 찍혀 나온 책에 권위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책 또한 분명히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당시의 인쇄 작업 방식에 따라 인쇄되었다면 맨 처음에 인쇄된 책은 인쇄 상태가 좋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으므로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첫 번째 인쇄할 때 만들어진 책들 중에서 남은 것들뿐이며, 사실 이렇게 남아 있는 책들은 다른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는 표준으로서 종종 지목되곤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 책들이 표준이 될까? 초판을 찍어 냈던 초기의 인쇄공들이 인쇄 실수를 하지 않으리란 법이 있단 말인가?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보존된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한 권위는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다. 인쇄공들의 실수로 틀린 데나 고친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본문이 망쳐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늘 틀리고 실수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성경 본문을 보존하실 것이다.



<16세기의 인쇄소>

자, 그러면 1611년 당시 인쇄공들의 고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으로 인쇄하기 161년 전인 1450년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는 했지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인쇄할 때 인쇄공들이 사용하던 장비는 인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에 비해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인쇄는 여전히 느리고 어려웠다. 모든 활자를 한 번에 한 글자씩 손으로 조판하였으니 -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한 글자씩 조판했음 - 어떤 책에도 인쇄공에 의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 첫 판을 인쇄했던 인쇄공들은 참조할 수 있는 이전 판조차 없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여러 가지 인쇄상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실수들은 결코 현대 성경 역본 편집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한 본문 교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다만 단순한 인쇄상의 실수들로서 심지어 현대화된 인쇄기의 이점을 모두 살려 만든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에서조차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쇄상의 실수였다. 비록 이런 실수들이 성경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기 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땅히 정정(訂定)해야 했다.

현존하는 두 개의 ‘킹제임스 성경’ 원본은 1611년 당시에 인쇄상의 실수 없이 성경을 인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이 두 판본은 옥스퍼드에서 인쇄되었고 둘 다 같은 해인 1611년에 인쇄되었다. 즉 같은 해에 두 번 출판되었다. 동일한 인쇄공들이 일을 했고 동일한 인쇄기로 인쇄를 했다. 그러나 이 두 판본을 엄밀히 비교해 보면 본문들 간에 대략 100여 개의 인쇄상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온 지난 400여 년 동안 소위 네 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펴며 그 결과 본문상의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약 400여 군데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억측을 부린다. 분명히 이런 학자들의 정신세계는 무엇인가가 심히 부패해 있다! 자, 이제부터 이들이 주장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 개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검토해 보자.

2. 1611년판 KJV가 네 차례 개정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여기서 언급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유명한 성경학자 스크리브너(F. H. A. Scrivener)가 「권위역 영어 성경(1611), 그 이후의 재판(再版)과 현대판들」(*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1611), Its Subsequent Reprints and Modern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제목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단단히 학자티를 내는 책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1884년에 이 책을 출판한 스크리브너가 1881년도 ‘영어개역성경’을 만든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의 책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 개정’을 다루고 있는 스크리브너

책 첫 부분의 상세한 기록은 참으로 놀랄 만하다.

이른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두 번이나 대거 개정했다는 것은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27년 안에 일어났다. 이 문제를 대하면서 먼저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영어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케임브리지에서 인쇄된 1629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첫째 개정판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개정’(revision)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성껏 고친 ‘교정’(correction)이었다. 1629년판은 ‘킹제임스 성경’ 원판이 번역된 지 18년 후에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맡았던 워드 박사(Dr. Samuel Ward)와 보이스 박사(Dr. John Bois) 두 사람이 그 판의 인쇄에 직접 참여했다. 원래 번역을 맡았던 이 두 사람보다 더 초기의 실수들을 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뒤에 다시 케임브리지에서 소위 ‘둘째 개정’이라 부르는 또 다른 판이 나왔다. 그때까지 워드와 보이스 박사 모두 살아 있었지만 이때 그들이 그 일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1881년의 ‘영어개역성경’ 편집에 직접 참여했던 스크리브너조차 케임브리지 인쇄공들이 한 것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었을 때 인쇄공들의 실수로 빠진 단어나 절을 원래대로 하고 명백한 인쇄상의 실수들을 교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이다.

뒤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그 연구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약 400여 군데 교정된 것 중 72%가 원판이 인쇄된 지 27년 만인 1638년의 케임브리지판에서 완료되었다. 그러므로 소위 ‘처음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초기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확하기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그리고 소위 ‘마지막 두 차례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도 철자의 표준화에 필요한 ‘두 단계로 구성된 또 하나의 교정 공정’이었다. 이 두 단계 교정 공정의 판들 중 처음 것은 1762년에 시작되어 7년의 기간을 거쳐 완성되었고 둘째 것은 1769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본주의 학자들이 교정판에 번호를 매길 때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더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둘째 공정에서는 본문 교정이 거의 필요치 않았다. 소위 ‘수천 개의 변화’(changes)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확립된 정확한 본문에다 철자가 변함에 따른 형태 맞추기 작업에 불과했다. 즉 철자상의 변화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철자상의 변화는 뒤에 논의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한낱 기만행위요, 머릿속에서 지어낸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많은 적든 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런 변화들의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킹제임스 성경’의 최초 인쇄 원본을 보여 주기 위해 여러분을 박물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가정해 보자. 분명히 여러분은 성경이 전시된 유리 상자로 가서 유리를 통해 펼쳐져 있는 성경을 들여다볼 것이다. 비록 책장을 넘겨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성경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매우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안의 단어들을 거의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낱말들조차도 아주 이상하게 쓰여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관람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1611년 원판이 인쇄된 이래로 ‘킹제임스 성경’도 수많은 변화를 겪었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 여러분은 지금 단지 매우 교활한 책략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았던 그 차이들은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제 그 증거를 조사해 보도록 하자.

● 인쇄상의 변화들

엄밀한 검토를 위해 변화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인쇄상의 변화들’, ‘철자상의 변화들’, ‘본문상의 변화들’.

먼저 ‘인쇄상의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활자체는 고딕체였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의 활자체는 아마도 로마체나 타임즈 로마체일 것이다(아래에 있는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참조). 고딕체는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때때로 독일체라고도 부른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인쇄기가 발명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고딕체와 로마체 비교: 요한복음 3장 16절>

고 딕 체	로 마 체
<i>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i>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고딕체는 중세기에 손으로 작성한 필사본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로마체는 꽤 일찍 발명되기는 했지만 유럽 전역에 걸쳐 가장 유력한 인쇄체가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다. 고딕체는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계속 사용되어 왔다. 1611년 당시 영국에서는 로

마체가 이미 대중화되었고 곧 고딕체를 앞지를 전망이었다. 그렇지만 원판 인쇄 공들은 고딕체가 로마체보다 더 아름답고 표현 능력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딕체를 선택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체로 바꾸어야 했고 마침내 1612년에 로마체를 사용한 첫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다. 그로부터 몇 년 내에 인쇄된 성경들은 모두 로마체를 사용했다. 활자체의 변화는 글씨의 형태나 크기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성경의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그렇지만 고딕체에 친숙하지 못한 현대 독자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형태상의 몇 가지 일반적인 변화 외에도 몇 개의 특별한 글자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딕체 s는 대문자로 사용되거나 혹은 단어의 끝에 사용될 때 마치 로마체의 s처럼 보여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also는 alfo가 되고, set는 fet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독일체 v와 u에서 발견된다.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지만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왜 w를 ‘더블비’라 하지 않고 ‘더블유’라고 부르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익숙해지면 괜찮다. 따라서 1611년판을 보면 love는 loue로, us는 vs로, 그리고 ever는 euer로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이다.

또 다른 예로, 고딕체 j는 i처럼 보인다. 그래서 Jesus(예수)는 Iefus(중간의 s가 f로 변했음에 유의하라)가 되고, joy는 ioy가 된다. 심지어 고딕체 d의 굽은 종선이 뒤에서 원으로 굴러지면 그리스어 델타(δ)와 비슷하게 된다. 이런 철자상의 변화들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이 안고 있는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본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어 두려고 사용하는 연막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 철자상의 변화들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종류의 변화는 정서법(orthography) 또는 철자상의 변화이다. 대부분의 역사 학자들은 현대 영어가 15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1611년경에는 현대 영어의 기본 단어들과 문법적 구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철자는 그 당시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다. 사실 1600년대의 철자는 매우 변덕스러웠다. 정확한 철자 같은 것은 아직 없었고 잘 확립된 어떤 철자 규정 같은 것도 없었다. 어떤 작가들은 종종 동일한 책에서, 때로는 동일한 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1600년대가 철자 표기의 천국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단어들의 철자가 정해진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18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철자도 표준화되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의 인쇄본 사이에 어떤 종류의 철자 변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철자의 차이점을 목록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몇 가지 특징은 상당한 공통성을 띠고 있다. 부가적으로 들어간 e들은 종종 feare, darke 그리고 beare같이 단어들의 끝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중 모음은 오늘날보다도 더 일반적이었다. 여러분은 me, be 그리고 moved 대신에 mee, bee 그리고 mooued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자음은 더욱 흔한 것이었다. ranne, euill 그리고 ftarres는 오늘날의 철자법에 따르면 어떤 단어가 될까?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것들은 오늘날 철자법에 따르자면, ran, evil 그리고 stars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쇄상의 그리고 철자상의 변화들이야말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소위 '수천 개의 변화'라고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어떤 식으로든 결코 본문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현시대에 천주교의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들에서 공공연하게 만들거나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본문 변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다.

● 본문상의 변화들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정의 예로 제시하는 대부분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충분히 해명했다. 이제부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과 현재 발견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 사이에 실제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물론 이 두 개의 본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개정에 의한 변화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대개 초기의 인쇄 실수들을 정정한 것일 뿐이다. 이것이 사실임을 세 가지로 입증해 보일 수 있다: 1. 변화들의 특성, 2. 성경 전체를 통한 변화들의 빈도, 3. 이런 변화들이 생긴 시기.

먼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던 때부터 발생한 변화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1611년판 본문으로부터의 변화들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은 이런 변화들의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분명히 인쇄상의 실수였다. 그것들은 절대로 성경 말씀의 해석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본문의 변화가 아니다. 처음 인쇄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은 때때로 뒤집어졌다. 때때로 복수가 단수로 쓰이기도 하고 단수가 복수로 쓰이기도 했다. 때로는 어떤 단어 대신에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가 대신 들어가 잘못 쓰이기도 했다. 드물게는 한 단어 혹은 심지어 한 절이 삭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략된 것들은 너무나 명백했으며 현대 번역판 성경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리적 차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진실로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과 오늘날의 많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정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스크리브너는 자신의 책 부록에서 '1611년 KJV판'과 '후기 인쇄본들' 간의 변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나는 다음의 표에 이렇게 정정된 것들의 예를 실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예들은 스크리브너 저서의 왼쪽 페이지에 나오는 첫째 정정 사항을 연속적으로 취한 것이다. 먼저 '1611년 원본'의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의 본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처음 정정된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은 지난 375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생긴 변화들 중 5%를 보았다. 확인해 보면 금방 판단하겠지만 이것들은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alterations)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사실상 인쇄상 실수들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대판 성경들의 본문 변경과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독자 스스로 다음 표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그러면 심각한 교리적 차이를 지닌 것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스크리브너의 부록 전체를 살펴볼 때 그것이야말로 그가 교리의 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변경 사항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Seek God)이라고 해야 할 곳에서 '선(善)을 찾는'(Seek good)이라고 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시편 69편 32절을 말하고 있다(표의 10번). 그러나 이것조차도 정말로 인쇄상의 실수였음을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 첫째로, good과 God의 철자가 유사하다는 점은 피곤한 식자공이 교정쇄

<1611년판과 현재 출간되는 KJV 비교>

번호	1611년 원본 본문	현재 본문	년도
1	this thing	this thing also	1638
2	shalt have remained	ye shall have remained	1762
3	Achzib, nor Helbath, nor Aphik	of Achzib, nor of Helbath, nor of Aphik	1762
4	requite good	requite me good	1629
5	this book of the Covenant	the book of this covenant	1629
6	chief rulers	chief ruler	1629
7	And Parbar	At Parbar	1638
8	For this cause	And for this cause	1638
9	For the King had appointed	for so the king had appointed	1629
10	Seek good	seek God	1617
11	The cormorant	But the cormorant	1629
12	returned	turned	1769
13	a fiery furnace	a burning fiery furnace	1638
14	The crowned	Thy crowned	1629
15	thy right doeth	thy right hand doeth	1613
16	the wayes side	the way side	1743
17	which was a Jew	which was a Jewess	1629
18	the city	the city of the Damascenes	1629
19	now and ever	both now and ever	1638
20	which was of our father's	which was our fathers	1616

를 잘못 읽어 본문에 틀린 단어를 넣을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로, 이 실수는 너무도 명백해서 원판이 인쇄된 지 6년 후인 그리고 소위 ‘첫째 개정’이라 불리는 것이 나오기도 전인 1617년에 이미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여러 차례의 주요한 개정 작업이 있었다는 신화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남아 있다. 변화들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인쇄상의 실수들이었음을 보여 주며 또한 변화의 빈도 역시 이 사실을 입증한다. 인본주의 학자들은 1611년판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개정 사항이 마치 최근의 현대 성경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수천 개의 개정 사항과 동등한 것인 양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수천 개의 개정’이라 불리는 것들의 대부분은 활자체 또는 철자상의 변화였다. 그 밖의 것들은 분명히 지루했던 초기의 인쇄 공정에 따라 생긴 인쇄상의 실수들을 정정한 것이었다.

위에 제시한 목록의 표본은 스크리브너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변형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렇게 꼼꼼한 학자가 대단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킹제임스 성경’ 간에는 단지 400여 개의 차이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또한 이런 차이마저도 인쇄상의 실수라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1611년에 인쇄된 두 개의 옥스퍼드판 사이에도 인쇄상의 실수로 100여 개의 차이가 있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성경이 대략 1,200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1611년판과 현재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판과 비교하면 1장당 평균 변형은 0.33개이고 이는 3장당 1개꼴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것들은 ‘chief rulers’를 ‘chief ruler’로 ‘And Parbar’를 ‘At Parbar’로 고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인쇄 실수들이었다.

이러한 변형들이 단순히 인쇄상의 실수들을 고친 것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것들이 인쇄된 뒤 매우 빠른 시기에 모두 정정되었다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상의 특성과 빈도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 변경과는 명백히 다르다. 이런 변화들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시기 자체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다. 400여 개의 정정 사항 중 대다수는 원판이 인쇄되고 난 뒤 몇 년 내에 이루어졌다. 그 예로 위의 수정 사항 목록을 다시 한 번 보기 바란다. 20개의 정정 사항 중 1개는 1613년에, 1개는 1616년에, 또 1617년에, 8개는 1629년에, 5개는 1638년에, 1개는 1743년에, 2개는 1762년에, 1개는 1769년에 정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20개 정정 사항 중 16개, 즉 80%가 1611년 초판 인쇄 후 27년 이내에 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이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위 ‘킹제임스 성경 개정 작업’이란 것은 결코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스크리브너 책 부록의 다른 페이지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킹제임스 성경’ 본문 정정 사항의 72%가 1638년경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 개정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화는 명백히 인쇄상의 실수에

대한 것밖에 없다. 본문 변화의 빈도는 세 페이지당 한 번꼴로 드문드문 일어났고 본문의 인쇄상 실수들의 75%가 처음 인쇄된 지 27년 이내에 정정되었다. 이런 모든 세부 사항은 지난 400년간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언어를 현대화한다는 의미의 진정한 개정 작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 개정판이 있었다면, 초기 식자 공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준 판본이 있을 뿐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 -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 에 대한 권위는 결코 현존하는 초판 원본에 있지 않다. 우리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에 대한 권위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에 있다.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는 것에 대해 입씨름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 봐 자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역본 성경의 교정쇄 원본을 하나도 남겨 놓지 않으셨다. 우리의 권위는, 항상 그러하였듯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의 목적은 결코 현대 역본 성경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하여 근본주의 집단 내에 맴돌고 있는 그릇된 주장, 즉 학자들이 부풀려 놓은 거짓 신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려는 것이다. 그 신화는 다름이 아니라 ‘뉴킹제임스 역본’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역본들이 1611년 이래로 꾸준히 이루어진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의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개정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론은 곧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본문상의 개정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하지만,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네 차례의 주요 개정 작업을 거쳐 본문을 바꾼 적이 없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는 그분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

신약 성경 역본 평가

1981년에 파울러(Everett W. Fowler)는 ‘신약 성경 역본 평가’(Evaluating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⁶⁵⁾라는 책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영어 역본들, 그리고 그것들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을 비교/분석했다. 그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Greek NT of Westcott and Hort),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Greek NT of Nestle), 그리고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Greek NT of the United Bible Society) 등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3종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분석하였고 이것들과 더불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그리스어 공인 본문’(Greek Received Text)을 비교했다.

본문 비교에 앞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그리스어 본문과 역본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 그리스어 공인 본문

16세기 초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요 문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1516년에 최초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집하고 인쇄하여 스위스의 바젤에서 출간하였다. 그 뒤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은 여러 판이 출간되었고 파리에서는 스테파누스(스테판) 성경이 여러 판으로 출간되었다.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제3판은 후에 출간된 다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과 함께 ‘공인 본문’(Received Text)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이 말은 1633년도에 출간된 엘제비어 성경의 서문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다. 스테파누스 성경 이후에 칼빈의 뒤를 이은 베자가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중에서 1598년도에 출간된 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대본이 되었다.

●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공인 본문은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새로운 그리스어 본문을 펴내기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런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독일 이성주의/자연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바흐(J. J. Griesbach)와 라흐만(C. Lachmann) 그리고 티센도르프(C. Tischendorf) 같은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신들의 본문 비평 이론을 내세우며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무려 수천 군데가 다른 새로운 ‘수정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⁶⁵⁾ E. Fowler, 「Evaluating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Cedarville, IL: Straight Street, Inc., 1981), pp. 28-41.

그 이후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새로운 현대 역본들의 번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본문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바티칸 사본(B)과 시내 사본(S)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이 둘이 차이를 보일 때에는 바티칸 사본을 따랐다. 이 두 사람은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대다수 사본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신약 성경을 고대 다른 문서를 취급하는 것처럼 취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신약 성경 본문을 자연주의 철학⁶⁶⁾의 잣대로 평가해 버렸다.

●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1898년 이래로 독일에서는 또 다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여러 판으로 출간되었다. 이 성경은 에버하르트 네슬레와 그의 아들인 에르윈 네슬레가 편집했으며 후에는 알란드가 이것을 편집하였다.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도 여러 사본을 근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주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따랐다.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편집자들 역시 자연주의적 견해를 추구하며 인본주의의 산물인 본문 비평을 수용했다.

●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1966년에 미국성서공회는 새로운 그리스어 신약 성경 초판을 출간했고 그 뒤 1968년에는 2판이, 1976년에는 3판이 나왔다. 초판의 편집자는 알란드, 블랙, 메츠거, 위크렌 등이었으며 2판과 3판은 천주교 교황 성경 연구소의 마르티니 추기경 역시 편집자로 선정되었다. 3판의 서문에서 그들은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 3판이 네슬레의 26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이 성경의 편집자들 역시 네슬레판의 편집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주의적/인본주의적 견해를 따라 본문을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본 부록의 저자는 한글 성경들도 동일한 그리스어 본문에서 나왔으므로 킹제임스 성경 - 혹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 - 과 매우 다름을 보여 주기 위해 파울러가 만든 표에다 한글 성경 난을 추가했다. 표 1은 전체 구절이 삭제된 경우를 보여 주며 표 2는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삭제된 경우를 보여 준다. 이 표들에는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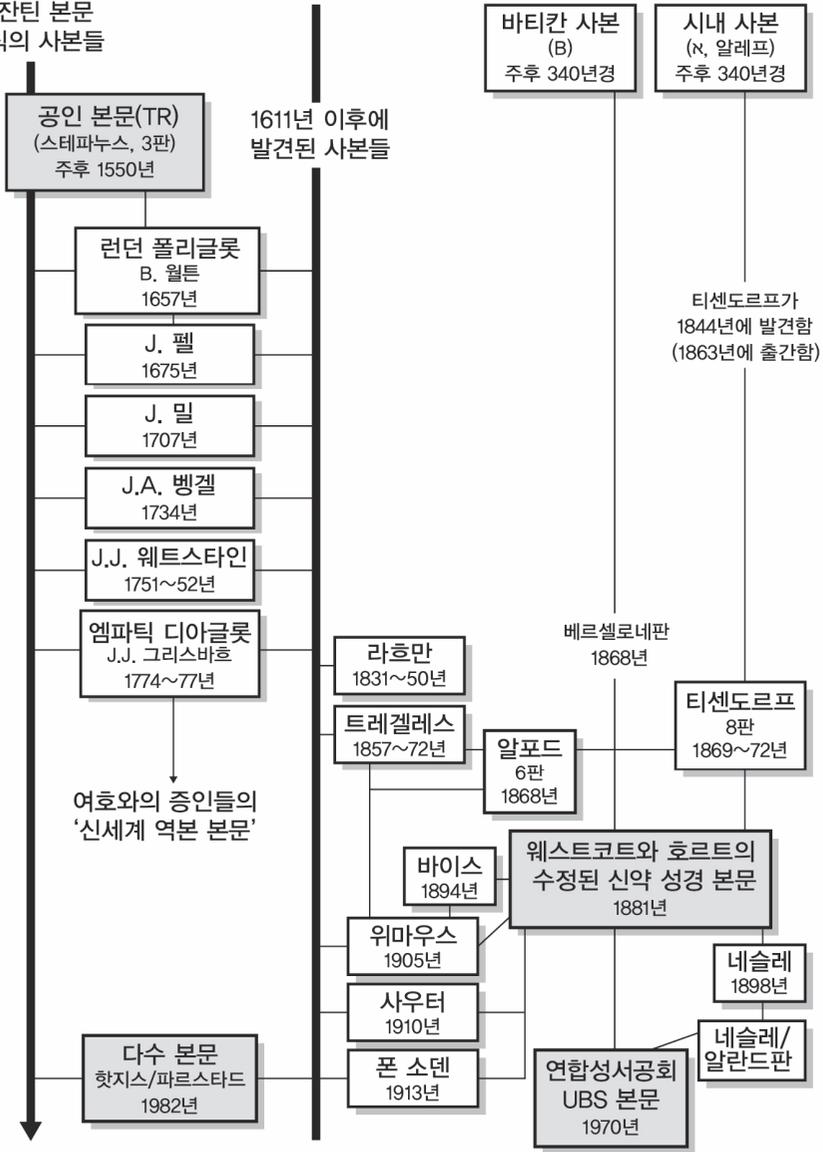
66) 성경 본문을 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경적인 견해'(Biblical view)로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영감(inspiration)을 통해 기록해 주신 말씀을 섭리(providence)를 통해 보존해 주심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견해는 성경은 내용이나 보존 등에서 고대의 다른 문서와 확연히 다르다고 믿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며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절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장로교인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침례교인들의 런던 신앙 고백 등을 만든 성경 신자들이 수용한 견해이다. 반면에 '자연주의적 견해'(Naturalistic view)는 성경도 고대의 다른 문서들과 같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성경의 내용이나 보존 등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학자들의 도움으로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현대 신학자들과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대부분이 이것을 수용하고 있다.

개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Critical Greek texts)과 두 개의 현대 영어 역본(NIV, NASB), 그리고 개역성경,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 세 개의 한글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및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비교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개역성경,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은 ‘비평 그리스어 본문들’과 NIV, NASB만큼이나 절 전체가 삭제된 빈도가 많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한글 성경들이 자연주의 견해에 따른 부패한 ‘비평 그리스어 본문’들에 근거했음을 확실히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 부분이 삭제된 구절들은 총 200개 사례 중에서 ‘비평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189.7개(95%), 현대 영어 역본들이 182.5개(91%), 그리고 한글 성경들이 170.3개(85%)로 나타났다. 한글 성경들의 삭제 빈도가 ‘비평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나 현대 영어 역본들보다 낮은 것은 번역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면서 킹제임스 성경도 가끔씩 참조했기 때문이다. 비록 한글 성경들의 삭제 빈도가 ‘비평 그리스어 본문’이나 현대 영어 역본들보다 10% 정도 낮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역성경은 다른 한글 성경보다 삭제 빈도가 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잔틴 본문
형식의 사본들



<그리스어 비평 본문 계보>

표의 부호 및 성경 명칭

1. 그리스어 신약 성경

WH = 웨스트쿠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Westcott and Hort, 1881)

N =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23판(Nestle, 23판, 1957)

BS =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3판(UBS, 3판, 1976)

2. 영어 성경

NASB =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1971)

NIV =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1973)

3. 한글 성경

개역 = 개역성경, 1961

공동 = 공동번역, 1977

표준 = 표준새번역, 1993

4. 표의 부호

* = 주 하나님을 약화하기 위해 삭제된 구절/단어

‡ = 기독교 교리에 영향을 주는 구절/단어

Om = 단어/구절이 삭제된 것

SB = 단어/구절이 [괄호] 처리된 것

DB = 단어 구절이 [이중 괄호] 처리된 것

- = 삭제되지 않고 제대로 보존된 것

표 1 전체가 삭제되거나 괄호 처리된 구절들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	마12:47*	Om	SB	SB	-	-	-	-	SB
2	17:21	Om	Om	Om	Om	Om	Om	Om	Om
3	18:11*	Om	Om	Om	SB	Om	Om	Om	Om
4	21:44	SB	SB	DB	-	-	-	SB	SB
5	23:14	Om	Om	Om	SB	Om	Om	Om	Om
6	막7:16	Om	Om	Om	Om	Om	Om	Om	Om
7	9:44	Om	Om	Om	Om	Om	Om	Om	Om
8	9:46	Om	Om	Om	Om	Om	Om	Om	Om
9	11:26	Om	Om	Om	Om	Om	Om	Om	Om
10	15:28*	Om	Om	Om	Om	Om	Om	Om	Om
11	16:9-20*	DB	DB	DB	SB	-	SB	-	DB
12	눅17:36	Om	Om	Om	Om	Om	Om	Om	Om
13	22:20	DB	DB	-	-	-	-	-	-
14	22:43	DB	DB	DB	-	-	-	Om	DB
15	22:44	DB	DB	DB	-	-	-	Om	DB
16	23:17	Om	Om	Om	Om	Om	Om	Om	Om
17	24:12*	DB	Om	-	SB	-	-	-	-
18	24:40*	DB	Om	-	Om	-	-	-	-
19	요5:4	Om	Om	Om	Om	Om	SB	SB	DB
20	7:53-8:11*	DB	Om	DB	SB	-	SB	SB	DB
21	행8:37*	Om	Om	Om	Om	Om	Om	Om	Om
22	15:34	Om	Om	Om	Om	Om	Om	Om	Om
23	24:7	Om	Om	Om	Om	Om	Om	SB	Om
24	28:29	Om	Om	Om	Om	Om	Om	Om	Om
25	롬16:24	Om	Om	Om	Om	Om	Om	Om	Om
26	요일5:7	Om	Om	Om	Om	Om	Om	Om	Om
삭제 구절 수		18	20	17	16	17	16	17	16

표 1의 성경 구절 목록

- (1) 마12:47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으나”
- (2) 마17: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 (3) 마18: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 (4) 마21:44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 (5) 마2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 (6) 막7:16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 (7) 막9: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 (8) 막9: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 (9) 막11:26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 (10) 막15:28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 되었더라.”
- (11) 막16:9-20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뭍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그들 중의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에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고하였으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 열한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퍽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리라, 하시더라. 참으로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 (12) 눅17:36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 (13) 눅22:20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 (14) 눅22:43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 (15) 눅22:44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
- (16) 눅23:17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 (17) 눅24:12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돌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구부리고 보았는데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으므로 그가 일어난 그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니라.”
- (18) 눅24:40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 (19) 요5:4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뒤에 누구든지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 (20) 요7:53-8:11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시겠나이까? 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 (21) 행8: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 (22) 행15: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 (23) 행24:7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 (24) 행28:29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 (25) 롬1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26)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1)⁶⁷⁾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	마5:27	Om	Om	Om	Om	Om	Om	Om	Om
2	5:44	Om	Om	Om	Om	Om	Om	Om	Om
3	5:44	Om	Om	Om	Om	Om	Om	Om	Om
4	6:13*	Om	Om	Om	SB	Om	SB	SB	DB
5	13:51*	Om	Om	Om	Om	-	Om	Df	Df
6	15:6	Om	-	Om	-	Om	-	-	-
7	15:8*	Om	Om	Om	Om	Om	Om	Om	Om
8	19:9	Om	Om	Om	Om	Om	Om	Om	Om
9	19:20	Om	Om	Om	Om	Om	Om	Om	Om
10	20:7	Om	Om	Om	Om	Om	Om	Om	Om
11	20:16	Om	Om	Om	Om	Om	Om	Om	Om
12	20:22*	Om	Om	Om	Om	Om	Om	Om	Om
13	20:23*	Om	Om	Om	Om	Om	Om	Om	Om
14	22:13	Om	Om	Om	Om	Om	Om	Om	Om
15	23:4	Om	Om	SB	Om	Om	Om	Om	-
16	23:5	Om	Om	Om	-	-	-	-	-
17	25:13*	Om	Om	Om	Om	Om	Om	Om	Om
18	26:3	Om	Om	Om	Om	Om	Om	Om	Om
19	26:60	Om	Om	Om	Om	Om	Om	Om	Om
20	27:35*‡	Om	Om	Om	Om	Om	Om	Om	Om
21	28:2	Om	Om	Om	Om	Om	Om	Om	Om
22	28:9*	Om	Om	Om	Om	Om	Om	Om	Om
23	막1:1‡	Om	Om	SB	-	-	-	-	-
24	1:14	Om	Om	Om	Om	Om	Om	Om	Om
25	1:42*	Om	Om	Om	Om	Om	Om	Om	Om

67) 표 2는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삭제된 사례들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배열하여 보여 준다.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2)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26	막3:5	Om	Om	Om	Om	-	Om	Df	Om
27	3:15	Om	Om	Om	Om	Om	Om	Om	Om
28	6:11*	Om	Om	Om	Om	Om	Om	Om	Om
29	6:33*	Om	Om	Om	Om	Om	Om	Om	Om
30	6:36	Om	Om	Om	Om	Om	Om	Om	Om
31	7:2	Om	Om	Om	Om	Om	Om	Om	Om
32	7:8	Om	Om	Om	Om	Om	Om	Om	Om
33	8:9	Om	Om	Om	Om	Om	Om	-	Om
34	8:26	Om	Om	Om	Om	Om	Om	Om	Om
35	9:38	Om	-	Om	Om	Om	-	Om	Om
36	9:45	Om	Om	Om	Om	Om	Om	Om	Om
37	9:49	Om	Om	Om	Om	Om	Om	Om	Om
38	10:7	Om	Om	SB	Om	-	Om	-	-
39	10:21	Om	Om	Om	Om	Om	Om	Om	Om
40	10:24‡	Om	Om	Om	Om	Om	Om	Om	Om
41	11:8	Om	Om	Om	Om	Om	Om	-	-
42	11:10*	Om	Om	Om	Om	Om	Om	Om	Om
43	11:23	Om	Om	Om	Om	Om	Om	Om	Om
44	12:23	Om	-	SB	-	Om	-	-	-
45	12:29	Om	Om	Om	Om	Om	Om	Om	Om
46	12:30	Om	Om	Om	Om	Om	Om	Om	Om
47	12:33	Om	Om	Om	Om	Om	Om	Om	Om
48	13:11	Om	Om	Om	Om	Om	Om	Om	Om
49	13:14	Om	Om	Om	Om	Om	Om	Om	Om
50	14:19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3)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51	막14:27*	Om	Om	Om	Om	Om	Om	Om	Om
52	14:68	Om	Om	SB	Om	Om	Om	Om	Om
53	14:70	Om	Om	Om	Om	Om	Om	Om	Om
54	15:3*	Om	Om	Om	Om	Om	Om	Om	Om
55	눅1:28	Om	Om	Om	Om	Om	Om	Om	Om
56	1:29	Om	Om	Om	Om	Om	Om	Om	Om
57	2:42	Om	Om	Om	Om	Om	Om	-	Om
58	4:4*	Om	Om	Om	Om	Om	Om	Om	Om
59	4:5	Om	Om	Om	Om	-	Om	Om	Om
60	4:8*	Om	Om	Om	Om	Om	Om	Om	Om
61	4:18	Om	Om	Om	Om	Om	Om	Om	Om
62	5:38	Om	Om	Om	Om	Om	Om	Om	Om
63	6:45	Om	Om	Om	Om	-	Df	Df	-
64	7:31*	Om	Om	Om	Om	Om	Om	Df	Om
65	8:43	Om	Om	SB	Om	Om	Om	-	SB
66	8:45	Om	Om	Om	Om	Om	Om	Om	Om
67	8:45*	Om	Om	Om	Om	Om	Om	Om	Om
68	8:48	Om	Om	Om	Om	Om	Om	Om	Om
69	8:54	Om	Om	Om	Om	Om	Om	Om	Om
70	9:10	Om	Om	Om	Om	Om	Om	Om	Om
71	9:54	Om	Om	Om	Om	Om	Om	Om	Om
72	9:55	Om	Om	Om	Om	Om	Om	Om	Om
73	9:56*	Om	Om	Om	Om	Om	Om	Om	Om
74	10:38	-	-	Om	-	-	-	-	-
75	11:2*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4)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76	눅11:2*	Om	Om	Om	Om	Om	Om	Om	Om
77	11:4	Om	Om	Om	Om	Om	Om	Om	Om
78	11:11	Om	Om	Om	Om	Om	Om	Om	Om
79	11:44	Om	Om	Om	Om	Om	Om	Om	Om
80	11:54*	Om	Om	Om	Om	Om	Om	Om	Om
81	12:39	-	Om	Om	Om	Om	Om	Om	Om
82	17:9*	Om	Om	Om	Om	Om	Om	Om	Om
83	17:24*	Om	-	SB	-	-	-	Df	-
84	18:24	Om	Om	SB	Om	Om	Om	Om	-
85	19:45	Om	Om	Om	Om	Om	Om	Om	Om
86	20:13	Om	Om	Om	Om	Om	Om	Om	Om
87	20:23*	Om	Om	Om	Om	Om	Om	Om	Om
88	20:30	Om	Om	Om	Om	Om	Om	Om	Om
89	22:31*	Om	Om	Om	Om	Om	Om	Om	Om
90	22:64*	Om	Om	Om	Om	Om	Om	Om	Om
91	22:68*	Om	Om	Om	Om	Om	Om	Om	Om
92	23:23	Om	Om	Om	Om	Om	Om	Om	Om
93	23:38	Om	Om	Om	Om	Om	Om	Om	Om
94	24:1	Om	Om	Om	Om	Om	Om	Om	Om
95	24:36*	DB	Om	-	Om	-	-	-	-
96	24:42	Om	Om	Om	Om	Om	Om	Om	Om
97	24:46	Om	Om	Om	Om	Om	Om	Om	Om
98	24:51*‡	DB	Om	-	Om	-	SB	-	SB
99	24:52*	DB	Om	-	Om	-	Om	Om	Om
100	요1:27*‡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5)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01	요3:13*†	Om	Om	Om	Om	Om	Om	Om	Om
102	3:15	Om	Om	Om	Om	Om	Om	Om	Om
103	5:3	Om	Om	Om	Om	Om	SB	SB	DB
104	5:16*	Om	Om	Om	Om	Om	Om	Om	Om
105	6:11	Om	Om	Om	Om	Om	Om	Om	Om
106	6:22*	Om	Om	Om	Om	Om	Om	Om	Om
107	6:47*†	Om	Om	Om	Om	Om	Om	Om	Om
108	6:51*	Om	Om	Om	-	-	Om	Om	Df
109	7:46	Om	-	Om	-	-	-	-	Df
110	8:9	Om	Om	Om	Om	Om	-	Om	Om
111	8:9	Om	Om	Om	Om	Om	Om	Om	Om
112	8:10	Om	Om	Om	Om	Om	-	Om	Om
113	8:10	Om	Om	Om	Om	Om	-	Om	Om
114	8:59*†	Om	Om	Om	Om	Om	Om	Om	Om
115	9:6	Om	Om	Om	Om	Om	Om	-	Om
116	10:13	Om	Om	Om	-	-	-	Df	Df
117	10:26*	Om	Om	Om	Om	Om	Om	Om	Om
118	11:41	Om	Om	Om	Om	Om	Om	Om	Om
119	12:1	Om	Om	Om	Om	Om	Om	Om	Om
120	13:32*	Om	-	SB	-	-	Df	Df	SB/Df
121	16:16*	Om	Om	Om	Om	Om	Om	Om	Om
122	17:12	Om	Om	Om	Om	Om	Om	Om	Om
123	19:16	Om	Om	Om	Om	Om	Om	Om	Om
124	행2:30*	Om	Om	Om	Om	Om	Om	Om	Om
125	2:47	Om	Om	Om	-	-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6)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26	행3:11	Om	Om	Om	Om	Om	Df	Om	Om
127	7:37*	Om	Om	Om	Om	Om	Om	Om	Om
128	9:5	Om	Om	Om	Om	Om	Om	Om	Om
129	9:6*	Om	Om	Om	Om	Om	Om	Om	Om
130	10:6	Om	Om	Om	Om	Om	Om	Om	Om
131	10:12	Om	Om	Om	Om	Om	Om	Om	Om
132	10:21	Om	Om	Om	Om	Om	Om	Om	Om
133	10:32	Om	Om	Om	Om	Om	Om	Om	Om
134	13:42	Om	Om	Om	Om	Om	Df	Df	Df
135	15:18*	Om	Om	Om	Om	Om	Om	Om	Om
136	15:24	Om	Om	Om	Om	Om	Om	Om	Om
137	18:21	Om	Om	Om	Om	Om	Om	Om	Om
138	20:15	Om	Om	Om	Om	Om	Om	Om	Om
139	21:8	Om	Om	Om	Om	Om	Om	Om	Om
140	21:22	Om	Om	Om	Om	Om	Om	Om	Om
141	21:25	Om	Om	Om	Om	Om	Om	Om	Om
142	22:9	Om	Om	Om	Om	Om	Om	Om	Om
143	22:20	Om	Om	Om	Om	Om	Om	Df	Df
144	23:9*	Om	Om	Om	Om	Om	Om	Om	Om
145	24:6	Om	Om	Om	Om	Om	Om	SB	Om
146	24:8	Om	Om	Om	Om	Om	Om	SB	Om
147	24:26	Om	Om	Om	Om	Om	Om	Om	Om
148	26:30	Om	Om	Om	Om	Om	Om	Om	Om
149	28:16	Om	Om	Om	Om	Om	Om	Om	Om
150	롬1:16*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7)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51	롬8:1*	Om	Om	Om	Om	Om	Om	Om	Om
152	9:28	Om	Om	Om	Om	Om	Om	Om	Om
153	10:15	Om	Om	Om	Om	Om	Om	Om	Om
154	11:6	Om	Om	Om	Om	Om	Om	Om	Om
155	13:9	Om	Om	Om	Om	Om	Om	Om	Om
156	14:6*	Om	Om	Om	Om	Om	Om	Om	Om
157	14:21	Om	Om	Om	Om	Om	Om	Om	Om
158	15:24	Om	Om	Om	Om	Om	Om	Om	Om
159	15:29	Om	Om	Om	Om	Om	Om	Om	Om
160	고전6:20*	Om	Om	Om	Om	Om	Om	Om	Om
161	10:28*	Om	Om	Om	Om	Om	Om	Om	Om
162	11:24	Om	Om	Om	Om	Om	Om	Om	Om
163	15:54	Om	-	-	-	-	-	Df	-
164	갈3:1	Om	Om	Om	Om	Om	Om	Om	Om
165	엡3:14*	Om	Om	Om	Om	Om	Om	Om	Om
166	5:30*	Om	Om	Om	Om	Om	Om	Om	Om
167	빌3:16	Om	Om	Om	Om	Om	Om	Om	Om
168	3:21	Om	Om	Om	Om	-	Om	Om	-
169	골1:2*	Om	Om	Om	Om	Om	Om	Om	Om
170	1:14*†	Om	Om	Om	Om	Om	Om	Om	Om
171	3:6	Om	Om	SB	Om	Om	Om	-	-
172	살전1:1*	Om	Om	Om	Om	Om	Om	Om	Om
173	딤후3:3	Om	Om	Om	Om	Om	Om	Om	Om
174	6:5	Om	Om	Om	Om	Om	Om	Om	Om
175	6:7	Om	Om	Om	Om	Om	Om	Om	Om

표 2 구절 중 많은 부분을 삭제한 경우 - (8)

		WH	N	BS	NASB	NIV	개역	공동	표준
176	히2:7*	SB	Om	Om	-	Om	Om	Om	Om
177	3:6	SB	SB	Om	-	Om	-	Om	Om
178	7:21	Om	Om	Om	Om	Om	Om	Om	Om
179	8:12	Om	Om	Om	Om	Om	Om	Om	Om
180	10:30*	Om	Om	Om	Om	Om	Om	Om	Om
181	10:34	Om	Om	Om	Om	Om	Om	Om	Om
182	11:11	Om	Om	Om	Om	Om	Om	Om	Om
183	11:13	Om	Om	Om	Om	Om	Om	Om	Om
184	12:20	Om	Om	Om	Om	Om	Om	Om	Om
185	벧전1:22*	Om	Om	Om	Om	Om	Om	Om	Om
186	4:3	Om	Om	Om	Om	Om	Om	Om	Om
187	4:14*	Om	Om	Om	Om	Om	Om	Om	Om
188	5:2	Om	Om	SB	Om	-	Om	Df	-
189	벧후3:10	Om	Om	Om	Om	Om	Om	Om	Om
190	요일4:3*‡	Om	Om	Om	Om	Om	Om	Om	Om
191	5:13*	Om	Om	Om	Om	Om	Om	Om	Om
192	계1:8*‡	Om	Om	Om	Om	Om	Om	Om	Om
193	1:11*‡	Om	Om	Om	Om	Om	Om	Om	Om
194	1:11	Om	Om	Om	Om	Om	Om	Om	Om
195	5:14	Om	Om	Om	Om	Om	Om	Om	Om
196	11:1	Om	Om	Om	Om	Om	Om	Om	Om
197	11:17*‡	Om	Om	Om	Om	Om	Om	Om	Om
198	14:5*	Om	Om	Om	Om	Om	Om	Om	Om
199	15:2	Om	Om	Om	Om	Om	Om	Om	Om
200	21:24	Om	Om	Om	Om	Om	Om	Om	Om
계		193	191	185	185	180	178	170	173

표 2의 성경 구절 목록⁶⁸⁾

- (1) 마5:27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 (2) 마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 (3) 마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 (4) 마6:13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 (5) 마13:5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 (6) 마15:6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 (7) 마15:8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 (8) 마19: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것은 간음하는 것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 (9) 마19:20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므로”
- (10) 마20:7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적당한 것, 그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 (11) 마20:16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되니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 (12) 마20:22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 (13) 마20:23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게되지만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 (14) 마22:13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고 있으리라, 하니라.”
- (15) 마23:4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⁶⁸⁾ 각 구절에서 밑줄 친 부분은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나 현대 역본에서 삭제된 부분임.

하나로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 (16) 마23:5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 (17) 마25:13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 (18) 마26:3 “그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 (19) 마26:60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 (20) 마27:35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 (21) 마28:2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들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 (22) 마28:9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나? 하시매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 (23) 막1: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 (24) 막1:14 “그러нде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 (25) 막1:42 “그분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 (26) 막3:5 “그들의 마음이 강퍽한 것으로 인해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 (27) 막3:15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 (28) 막6:11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나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 (29) 막6:33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간 뒤 그들을 앞질러 그분께 같이 왔더라.”
- (30) 막6:36 “그들을 보내사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스스로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 (31) 막7:2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
- (32) 막7:8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 밖에도 그와 같은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하시고”
- (33) 막8:9 “먹은 자들은 사천 명쯤이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 (34) 막8:26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고을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 (35) 막9:38 “요한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를 막았나이다, 하였으니”
- (36) 막9:45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질퍽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 (37) 막9:49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 (38) 막10:7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 (39) 막10:21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 (40) 막10:24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이,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 (41) 막11:8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 (42) 막11:10 “주의 이름으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 (43) 막11: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 (44) 막12:23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
- (45) 막12:29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들 중의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 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 (46) 막12:30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 (47) 막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태우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하매”
- (48) 막13:11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무엇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 (49) 막13:14 “그러나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이다.”
- (50) 막14:19 “그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그분께, 그게 나니이까? 하고 말하기 시작하며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까? 하고 말하며”

- (51) 막14:2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 (52) 막14:68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소말이 울더라.”
- (53) 막14:70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며”
- (54) 막15:3 “수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 (55) 눅1:28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나?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며”
- (56) 눅1:29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 (57) 눅2:42 “그분께서 열두 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 (58) 눅4:4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59) 눅4:5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 (60) 눅4:8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61) 눅4:18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차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 (62) 눅5:38 “오히려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나니 그래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 (63) 눅6:45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 (64) 눅7:31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러즉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 (65) 눅8:43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하였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가”
- (66) 눅8:45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선생님께 물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 (67) 눅8:45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에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선생님께 물려들어

선생님을 믿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 (68) 눅8:48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 (69) 눅8:54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그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 (70) 눅9: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새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곳으로 가시니라.”
- (71) 눅9:54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 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 (72) 눅9:55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 (73) 눅9:56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 (74) 눅10:38 “한편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 (75) 눅1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76) 눅11:2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77) 눅11:4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하라.”
- (78) 눅11:11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들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 (79) 눅11:4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는 무덤 같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 (80) 눅11:54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 (81) 눅12:39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 (82) 눅17:9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 (83) 눅17: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을 내는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 (84) 눅18:24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 (85) 눅19:45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 (86) 눅20:13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할 수도 있으리라, 하였으니”
- (87) 눅20:23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 (88) 눅20:30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
- (89) 눅22:31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 (90) 눅22:64 “그분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그분께 물어 이르되,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고”
- (91) 눅22:6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나를 가계 하지도 아니하리라.”
- (92) 눅23: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였으므로”
- (93) 눅23:38 “또한 그분 위에 달린 글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혀 있더라.”
- (94) 눅24:1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 (95) 눅24:36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 (96) 눅24:42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별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 (97) 눅24:46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 (98) 눅24:51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 (99) 눅24:52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 (100) 요1:27 “그분은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 (101) 요3:13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 (102) 요3:15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103) 요5:3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량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으니”
- (104) 요5:16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 (105) 요6:11 “예수님께서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와 같이 그분께서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 (106) 요6:22 “그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탄 배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따로 간 것을 보았더라.”
- (107) 요6:47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 (108) 요6: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 (109) 요7:46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 (110) 요8:9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 (111) 요8:9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 (112) 요8:10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 (113) 요8:10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 (114) 요8:59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 (115) 요9:6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 (116) 요10:13 “삿꾼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삿꾼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 (117) 요10:26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 (118) 요11:41 “그때에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 (119) 요12:1 “그 뒤에 예수님께서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 (120) 요13:32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요,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 (121) 요16: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 (122) 요17:12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 (123) 요19:16 “그러므로 그때에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끌고 가니라.”
- (124) 행2:30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시라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 (125) 행2:47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 (126) 행3:11 “견지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오므로”
- (127) 행7:37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 (128) 행9:5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므로”
- (129) 행9:6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 (130) 행10:6 “그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해야만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 (131) 행10: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이 있더라.”
- (132) 행10:21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온 까닭은 무엇이나? 하니”
- (133) 행10:32 “그러므로 사람을 오히려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네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 (134) 행13:42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 (135) 행15:18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 (136) 행15:24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 (137) 행18:21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 (138) 행20:15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다음 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다음 날 밀레도에 다다랐으니”

- (139) 행21:8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일곱 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 (140) 행21:22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네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 (141) 행21:25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 (142) 행22:9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 (143) 행22:20 “또 주의 순교자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니다, 하니”
- (144) 행23:9 “큰 아우성이 생기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 (145) 행24:6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 (146) 행24:8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게 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게서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 (147) 행24:26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 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 (148) 행26:30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 (149) 행28:16 “우리가 로마에 다다르매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 (150) 롬1:1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 (151) 롬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 (152) 롬9:28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니라.”
- (153) 롬10: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구나! 함과 같으니라.”
- (154) 롬11:6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 (155) 롬13:9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 (156) 롬14: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 (157) 롬14: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 (158) 롬15: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리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귀므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며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 (159) 롬15:29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하노라.”
- (160) 고전6:20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161) 고전10:28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주의 것이니라.”
- (162) 고전11:24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 (163) 고전15: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 (164) 갈3:1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피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 (165) 엡3:14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
- (166) 엡5:30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 (167) 빌3: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 (168) 빌3:21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영어로는 that it may be가 생략됨)
- (169) 골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 (170) 골1: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 (171) 골3:6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
- (172) 살전1: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 (173) 딤후3:3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 (174) 딤후6:5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 (175) 딤후6:7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 (176) 히2:7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 (177) 히3:6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써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 (178) 히7:21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의해 맹세로 되셨느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맹세하셨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 (179) 히8:12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 (180) 히10:30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 (181) 히10:34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 (182) 히11:11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 (183) 히11:13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 (184) 히12:20 “(이는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작은 창으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
- (185) 벰전1:22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 (186) 벰전4:3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희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여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 (187) 벰전4: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 (188) 벰전5: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동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 (189) 벧후3:10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 (190) 요일4:3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 (191) 요일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 (192) 계1:8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 (193) 계1:11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 (194) 계1:11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 (195) 계5:14 “이에 네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 (196) 계11:1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 (197) 계11:17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 (198) 계14:5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 (199) 계15:2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 (200) 계21:24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사본들의 99%가 킹제임스 성경 지지

최근에 어떤 분이 신약 성경 사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인 전통 본문(Traditional text, 공인 본문, 다수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이 전체 사본의 99%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 달라고 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글을 적습니다.

사본(manuscript)이라는 말은 손으로 베껴 쓴 책이나 문서를 말하며 어떤 경우에는 필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고대 번역본(라틴어 역본 10,000개, 다른 역본 9,300개)을 포함해서 약 25,000개의 사본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비평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들이며 이 경우 신약 성경 사본의 수는 현재 약 5,800개 정도 됩니다.⁶⁹⁾

이런 사본들 가운데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본들이 발견됨에 따라 사본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사본은 크게 4종류로 나뉩니다.

1. 파피루스 사본
2. 그리스어 대문자(영철) 사본
3. 그리스어 소문자(커시브) 사본
4. 성구집 사본

여기서 파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사본은 성경의 본문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기록한 '연속 본문 형태의 사본'입니다. 반면에 성구집은 성구 목상집으로서 매일 혹은 매주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적혀 있는 '비연속 본문 형태의 사본'입니다.

그리스어의 경우, 초기에는 대문자만 쓰이다가 7-8세기경에 소문자가 정착되면서 9세기 이후에는 소문자가 대문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성구집의 경우 초기 것은 대문자로, 9세기 이후의 것은 소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이 둘을 모두 합쳐 그냥 성구집 사본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은 대개 벨럼이라 불리는 양피지 가죽에 책(codex)의 형태로 기록되었기에 코덱스(codex) 사본이라고 합니다. 성구집을 설명하면서 이야기 기했듯이,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의 경우도 대개 대문자 사본은 초기의 것이고 소문자 사본은 후기의 것입니다.

한편 파피루스 사본은 4세기 이전의 초기에 기록된 대문자 사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기록 재질이 다르므로 대문자 사본이라 하지 않고 그냥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⁶⁹⁾ https://en.wikipedia.org/wiki/Biblical_manuscript

합니다. 대부분의 파피루스 사본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고 영지주의 색채가 배어 있습니다.

무어맨 박사(Dr. Jack Moorman)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8월까지 발견된 그리스어 사본들의 수는 5,555개입니다.⁷⁰⁾

1. 파피루스 사본 124개
2. 대문자 사본 280개
3. 소문자 사본 2,808개
4. 성구집 사본 2,343개

현재는 이보다 조금 늘어났고 이것들의 최근 명단은 <위키백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⁷¹⁾

그런데 5,500여 개 사본 중에서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비평 본문(Critical text, 소수 사본)을 지지하는 것은 약 40개에 불과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며 사실 나머지는 여러 부분에서 이 둘을 지지할 뿐입니다.

독일의 알란트(알란트)와 같이 비평 본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증거에서 많은 증거를 만들어 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The constantly cited witnesses)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늘립니다.

‘네슬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성경’ 27권 혹은 28권에 보면, 알란트는 자신의 비평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1등급(꾸준히 늘 인용되는 사본들), 2등급(자주 인용되는 사본들), 3등급(가끔 인용되는 사본들) 증거 사본들이라는 기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27권 책들에 대해 1등급 증거들, 즉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이라는 사본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다음 그림은 2016년 3월,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성서 한국어 서문판>의 한국어 서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70) 「현대 성경들에서 사라진 것들」(*Missing in Modern Bibles*), 35쪽 이하. 이 책은 KeepBible.com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사이트의 우측 상단 상세 검색에서 ‘사본들의 압도적인 증거’라고 치면 관련 기사가 나오며 맨 밑에 PDF 파일이 있음).

71) 1. 파피루스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papyri

2. 대문자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uncials

3. 소문자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s_of_New_Testament_minuscules

4. 성구집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lectionaries

알란드의 정의에 따르면, 신약 성경의 한 책에 대해 1등급으로 분류된 사본은 다른 책에 대해서는 1등급 증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본이 마태복음에서만 전통 본문(다수 본문)과 10% 정도 다르고 - 10%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름 - 다른 책들에서는 전통 본문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본의 경우 마태복음에서만 전통 본문(다수 본문)과 10% 정도 다르므로 사본 전체로 보면 전통 본문과 다른 부분이 1%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란드는 이런 사본을 마태복음에 대한 1등급 증거라고 분류합니다.

26* 그리스어 신약성서 서문

a) 늘 인용되는 증거들
 b) 자주 인용되는 사본들
 c) 가끔 인용되는 사본들

다음 목록에는 늘 인용되는 증거들과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만 열거해 놓았다. 가끔 인용되는 사본들은 <부록 I>에 있는 사본 목록표에만 표시해 놓았다.

복음서의 본문비평에 늘 인용되는 증거들

고려되는 모든 파피루스 사본들:
 마태복음: P¹, P¹⁹, P²¹, P²⁵, P³⁵, P³⁷, P⁴⁴, P⁴⁵, P⁵³, P⁶², P⁶⁴⁺⁶⁷, P⁷⁰, P⁷¹, P⁷³, P⁷⁷, P⁸³, P⁸⁶, P⁸⁶, P⁹⁶, P¹⁰¹, P¹⁰², P¹⁰³, P¹⁰⁴, P¹⁰⁵, P¹¹⁰,
 마가복음: P⁴⁵, P⁸⁴, P⁸⁸,
 누가복음: P³, P⁴, P⁷, P⁴², P⁴⁵, P⁶⁹, P⁷⁵, P⁸², P⁹⁷, P¹¹¹;
 요한복음: P², P³, P⁶, P²², P²⁸, P³⁶, P³⁹, P⁴⁴, P⁴⁵, P⁵², P⁵⁵, P⁵⁹, P⁶⁰, P⁶³, P⁶⁶, P⁷⁵, P⁷⁶, P⁸⁰, P⁸⁴, P⁹⁰, P⁹³, P⁹⁵, P¹⁰⁶, P¹⁰⁷, P¹⁰⁸, P¹⁰⁹, P¹¹⁹, P¹²⁰, P¹²¹, P¹²².

대문자 사본들:
 마태복음: N(01), A(02), B(03), C(04), D(05), K(017), L(019), N(022), P(024), W(032), Z(035), Γ(036), Δ(037), Θ(038), 058, 067, 071, 073, 078, 085, 087, 094, 0102, 0106, 0107, 0128, 0148, 0160, 0161, 0170, 0171, 0204, 0234, 0237, 0242, 0249, 0271, 0275, 0277, 0281, 0293, 0298;
 마가복음: N(01), A(02), B(03), C(04), D(05), K(017), L(019), N(022), P(024), W(032), Γ(036), Δ(037), Θ(038), Ψ(044), 059, 067, 069, 072, 083, 087, 099, 0107, 0126, 0130, 0131, 0132, 0143, 0146, 0167, 0184, 0187, 0188, 0213, 0214, 0269, 0274, 0292;

문의 짜임새가 코이네(Koine) 본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본문사적으로 또는 주석적으로 흥미 있는 곳에서 코이네 본문과 다른 경우에만 제시된다. 사본의 짧은 토막에 나타나 있는 결함들(예를 들면 물로 생긴 얼룩, 희미해진 글씨, 필기 재료의 훼손)에 관해서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일일이 표시할 수 없으므로, 몇몇 경우에는 ‘늘 인용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III**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이 비평본의 본문과 일치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알란드의 ‘늘 인용되는 증거 사본들’ 설명>

이런 식으로 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 총 27권에 대해 1등급 증거를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 비평 본문 지지자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비평 본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본들의 수를 늘립니다.

그런데 기껏 이렇게 부풀려서 알란트와 그의 추종자들이 얻은 1등급 증거들의 수는 총 40개 정도입니다(단편 사본 말고 웬만한 양을 담고 있는 증거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책에 대해 한 사본이 전통 본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1등급이 되는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은 그들만의 비밀 리그에서만 운영됩니다.

알란트 등이 이런 방식으로 1등급 증거 사본들을 분류한 결과, 마태복음이 이런 증거 사본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스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성경’ 27권의 경우 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피루스 사본 18개
2. 대문자 사본 42개
3. 소문자 사본 19개
4. 성구집 사본 0개

여기서 파피루스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사본 42개와 소문자 사본 19개 역시 어떤 기준으로 - 전통 본문에서 몇 퍼센트 벗어나야 1등급 증거 자료가 되는지 여부 -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알려 드린 성구집 리스트(<위키백과>)를 보면 알지만, 성구집은 거의 100% 전통 본문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사본 학계에 다 알려진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란트 등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므로 이런 자료는 그냥 다 무시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알란트 등이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 기법을 사용해서 부풀려 만든 1등급 증거는 겨우 40-50개 정도이고 이는 전체 사본의 1%가 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소수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 사본들이 전체 사본의 1%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란트의 기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2016년 3월,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성서 한국어 서문판」을 사서 한국어 서문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천주교 소수 사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려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수 사본 지지자들이 추앙하는 바티칸 사본과 시네 사본은 자기들끼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⁷²⁾

<위키백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이 두 사본은 사복음서에서만 무려 3,036개나 서로 다릅니다(마태복음 656개, 마가복음 57개, 누가복음 791개, 요한복음 1,022개). 물론 이것 역시 이미 사본 학계에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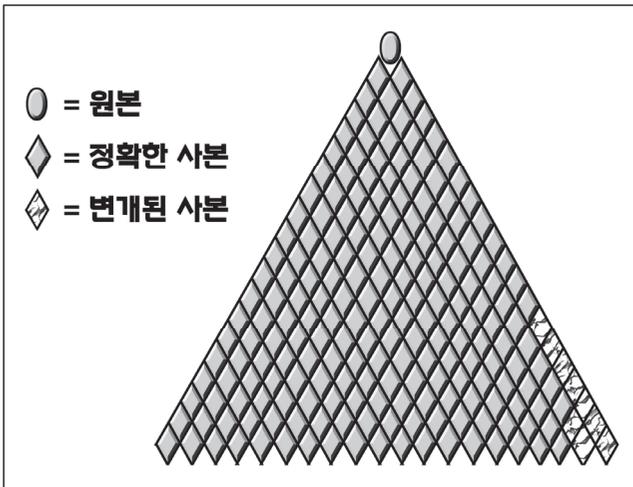
72) https://en.wikipedia.org/wiki/Comparison_of_codices_Sinaiticus_and_Vaticanus

소수 사본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본을 신뢰해야 한단 말입니까?

시내 사본은 특히 여러 곳에서 조작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내 사본 조작에 대해서는 이 책의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40여 개의 소수 본문을 제외한 99%의 안디옥 계열 사본들(다수 사본, 종교 개혁 사본, 보편적 사본, 비잔틴 사본, 전통 사본)은 어느 것을 보아도 본문이 일정합니다. 바로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과 루터 성경 등이 나왔고 이러한 다수 사본 성경들이 전 세계의 신학과 교리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원본, 정확한 다수 사본, 변개된 소수 사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조작

개역성경의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9-20절까지 없음.”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다. 다른 설명을 보면 “9-20절 단락은 아주 오래 된 사본들에는 빠져 있으며 이 부분은 2세기에 덧붙여졌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NIV, NASB 등 모든 현대 역본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현대 역본들의 주장이 사실이고 따라서 마가복음 16장이 8절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떨며 놀라서 급히 도망하고 두려움에 잠겨 숨어 지낸 셈이 된다(밑에 있는 8절 참조). 그러면 이게 과연 ‘복된 소식’, 즉 복음일까? 이것은 결코 사본학을 들먹일 문제가 아니다. 누구라도 상식을 가지고 20절 전체를 읽으면 자연스레 9-20절, 즉 마지막 12구절이 있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1-8절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 주자 그들이 놀라서 떨며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다. 9-12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록한다.

1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2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3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고 4 바라볼 때에 돌이 굴러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5 그들이 돌무덤으로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6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는데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7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므로 8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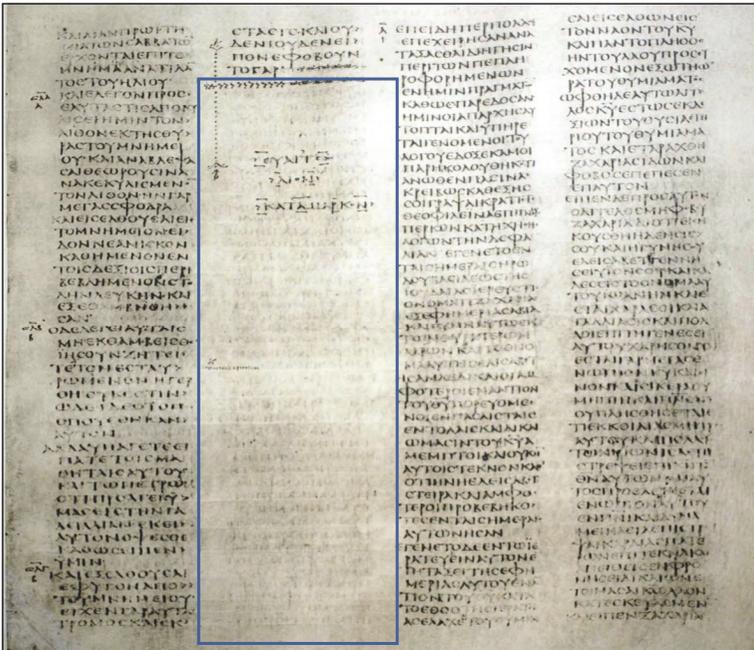
9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10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11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16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18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름들이 나오리라, 하시더라. 19 참으로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 20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사본들의 압도적 증거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을 포함하는 사본은 약 1,800개 이고 이 중에서 1,797개가 9-20절을 포함한다. 즉 현존하는 그리스 사본들의 99.8%인 절대 다수가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쯤 되면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도 절대 다수의 증거가 채택되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담은 성경이 바른 성경으로 인정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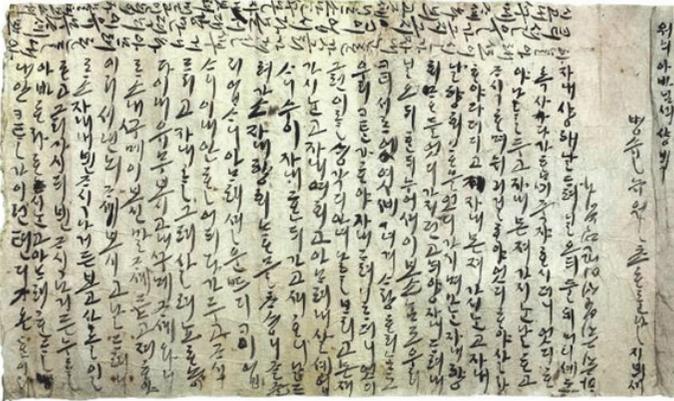
그런데 현대 역본 지지자들이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밑에 있는 시내 사본이다. 이 사진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9-20절은 분명히 원래 사본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지우고 그 위에 무언가를 기록하였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서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혹시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는 아닌가?⁷³⁾



<시내 사본 사기 조작: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73) 이 사진은 영어 Google에 가서 'Sinaiticus Mark 16'이라고 치면 이미지 섹션에서 누구라도 즉시 쉽게 찾을 수 있다.

성경과 고문서의 차이



<조선 시대 '원이 엄마의 편지'>

‘원이 엄마의 한글 편지’는 1998년 안동에 있는 고성 이씨(固城 李氏) 이응태(李應臺 1556-1586)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42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한 여성이 한글로 기록한 ‘러브레터’이다. 임신 중인 젊은 여인이 서른한 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종이 하나 가득 표현했다. 16세기 조선 여인의 가슴 뭉클한 이 사연은 ‘내셔널지오그래픽’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한다.⁷⁴⁾

이 한글 편지에는 42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여인의 애절한 감정이 종이 가득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보통의 한국인이 이 한글 편지 원문을 살펴보려 하면 글자를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대충은 읽고 대충은 이해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기껏해야 400년의 시차가 있을 뿐인데 당시 원이 엄마에게는 일상의 글이고 말이었을 것이 우리에게서는 사학과나 국문과 교수나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고문서를 해독하고 과거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어이고 말이며 글이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서 ‘원이 엄마의 편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리스어

74) 13장은 김재근 목사(전주소망침례교회)의 글이다.

로, 라틴어로 물러가며 그 언어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알 수 있는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다.

성경을 믿음이 아닌 학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신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400년 전에 한글 편지를 썼던 원이 엄마는 죽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다.

편지를 썼던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용했던 단어와 표현과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400년 전 중세 한글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3,500년 전에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말씀하신 원저자가 여전히 살아 계신다. 따라서 3,500년 전 언어를 연구하거나 2,000년 전 언어를 공부해야만 그분이 사용한 단어와 표현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옛날 성경에 써어 있는 것과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진짜 성경을 읽고 싶다면 고대 언어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성경인지를 분별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당시 사람들이 능히 읽을 수 있는 살아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보존이다.

400년 전에는 규방의 여인도 자유롭게 생생하게 사용하던 단어와 말과 글이 지금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다. 대개 생명 없는 종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계시를 특정 언어 - 예를 들어 라틴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등 - 에다 가뒀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면 언제나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하셨다. 3,500년 전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언어였다. 그들에게는 일상의 언어였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읽기만 해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 들었다.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단어를 찾아가면서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날 히브리어에만 권위를 두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자들도 아이들도 종들도 다 히브리어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글과 말로 성경을 주셨다.

2,000년 전 그리스어는 보통 사람의 언어였다. 하나님께서는 저잣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주셨다. 언어의 천재들만 그리스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대학교수들만 그리스어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누구라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율법 박사들만 그분의 말을 알아들은 것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만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부도 세리도 장애인도 바리새인도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했고 그분의 말을 알아들었다. 심지어 죄인과 창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다. 평생을 ‘개’같이 살았던

한 강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과 대화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분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일에서 전문가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저잣거리의 여인이나 뒷골목의 왈패들도 알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서 믿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언어로만 말씀하셨다. 라틴어 속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 있는 언어로 전달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종교 개혁이다.

고대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다. 물론 그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자신의 일상의 글과 말로 소유했던 사람은 존재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고대의 언어를 전공하고 중근동 언어를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섬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신이 아닌가? 수천 년 전에 어린이들과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 옛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은 결코 고대 언어 전문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음 없이 학문의 대상으로만 성경을 관찰하게 되면 ‘고대 언어와 역본’ 얘기로만 가득 차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은 그것이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언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들으면서 알았던 바로 그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어를 들으면서 알았던 바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는 재정의 하거나 재번역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과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미 400년 전에 끝마치셨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온갖 종류의 비난과 공격과 모함에 대항하며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해 왔으며, 불신자들에 의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틀렸음을 입증해 왔다.

구약 시대에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최근에 나온 대다수 역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주교회의 산물이다.

비슷한 시기의 두 문서가 있다. 그중 하나인 ‘원이 엄마의 편지’는 읽기도 힘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책들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과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이다.

고대 언어를 해석하는 사전들 - 원어로 된 성경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개는 사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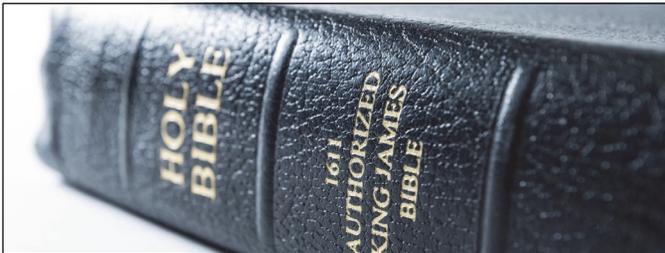
- 에서 찾아낸 단어 몇 개로 신비로운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여기저기서 찾아낸 단어 몇 개를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껏 쪽쪽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다. 지금 나와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쪽쪽 읽을 수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들(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단어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에 따라, 원어의 모든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영어와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영어라는 만국의 공통어로 마지막 시대에 온 인류를 위해 표준 잣대로 하나님이 주신 '보존된 성경'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 문법에 맞게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하면서 읽기 쉽게 정확히 번역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우리 민족 누구나 복음을 듣고 궁극적으로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시4:3).

나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본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받은 소명을 확인한다는
평계로 긴 시간을 - 당사자에게겐 징그럽도록 긴 시간이다 - 고민하고 갈등했던 기억이
엇그제 일 같다.⁷⁵⁾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벧후1:10).

지금 되짚어 보면 그저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었다. 당시에 나는 거의
매일 밤을 뜬눈으로 보내는데 옆의 아내는 천하태평하게 잠만 잤다. 시간만 나면
온갖 곳을 찾아다니면서 소명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 그래도 점집/무당집은
안 찾고 교회/사역자/기도원만을 찾고 또 찾았다. 묻고서 답을 얻고 그곳을 나설
때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는 “신학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또다시 의심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말 그대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시간의 반복이었다.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므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시73:22)

어쨌든 적지 않은 시간을 반항하고 투쟁하며 보내다가 결국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여러 가지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신8:5).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시57:7).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치렀기에 그 이상의 고통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염원이다.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나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⁷⁵⁾ 이것은 네이버 청지기 카페(<http://cafe.naver.com/tenjaga/1682>)를 운영하는 목사님의
글이다. 이 글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 의심 없이 공부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개역성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손에 잡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비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읽고 차츰 깨달으면서 온 몸과 마음에 의심과 의문이 밀려들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발견하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옳으니라(잠8:9).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정신적 고통과 갈등은 신학교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고민 속으로 다시 나를 몰아갔다.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해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시 119:28).

가족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 이때 간첩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 약 1년간을 혼자 몰래 숨겨 두고 도둑질하듯이 흠정역 성경을 읽으면서 흠정역 성경을 읽는 것을 누가 알까 봐 무척 겁을 냈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렇다고 어디에다 내놓고 속 시원히 물어볼 수도 없고 매일매일을 진퇴양난 속에서 지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 지르고픈 이발사가 바로 나왔다. 아파 요즈음 세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지나는 사람들은 잘 안다. 불온서적이나 금서라고 리스트에 오른 책을 소지하거나 만났을 때의 심정을!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뉘이시니이다 (시73:26).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교단 신학교 출신자가 사역을 하려면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개역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코스가 아닌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이걸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흠정역 성경이 전혀 흠잡을 데 없이 - 흠, 흠이다 -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나의 양심의 소리에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딤후1:15). 하지만 나의 이성은 늘 양심의 반대편에서 아래처럼 끊임없이 맞붙을 질러 댔다.

아니야! 잘 생각해 봐. 세상 교회가 모두 개역성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려면 당연히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역성경을 써야지. 그러면 신경 쓸 일 없이 모든 것이 무난할 텐데 왜 그러니(갈5:17)? 왜 굳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려운 사역을 하려고 해. 또 확인도 검증도 안 된 길을 골라서 가려고 하니?

개인적으로 나의 유일한 남동생은 장로 교단의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단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흠정역이고 동생은 개역이다. 아이고, 무슨 신파극도 아니고 생각하면 머리에 쥐난다!

이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문제는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신도 없었고(암3:3) 고민으로 다가왔다(마10:36).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다.

이쯤에서 흥정역 성경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그만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마저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전15:10).

이제부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흥정역 성경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밝히려 한다. 여기서 흥정역 성경의 정통성/우수성/정확성 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할 것이다. 진심으로 독자가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킹제임스 성경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을 내서 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관련 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당연히 흥정역을 반대하는 글도 찾아 읽으면서 서로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렘29:13).

세상에는 많은 성경들이 성경이란 이름을 걸고 교회와 교인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성경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마5:3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순수한 성경과 인간들이 이익과 목적을 위해 어떤 기교를 부려 만든 성경은 전혀 같을 수 없다. 이 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여기서 물러서서 다른 일을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6).

웃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다음 단추부터는 무조건 잘못된다. 즉 어떤 이유든 인간들이 손을 대서 고친 성경은(고후2:11) - 성경의 단 한 글자라도 고의로 고쳤다면 - 진리의 성경이 될 수 없다. 그 성경은 그저 그런 인간의 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모든 말을 줄이고 지금부터는 왜 내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택하고 전혀 후회 없이 외길을 가는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세 가지 이유를 공개하려 한다. 이유가 엄청 많지만 지면 관계로 이 정도만 쓰려 한다.

1. 흥정역 성경의 기본 정신이 나의 온 마음을 강타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기본 정신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진이 우수하다든가 혹은 성경 번역을 위해 많이 준비했다든가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까지 내가 세상의 성경들을 여러모로 접하면서 - 대략 20~30가지 - 세상의 일반적인 성경들에서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내용을 발견했다. 그것은 흥정역 성경이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을 절대자(전능자)로 대접한다는 점이다.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약4:10).

이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상 모든 성경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창조자 하나님과 아울러 우리 주님에 대한 대접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두 성경을 펴 놓고 어떤 페이지를 비교하면서 읽어 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흥정역 고후5:15, 21).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개역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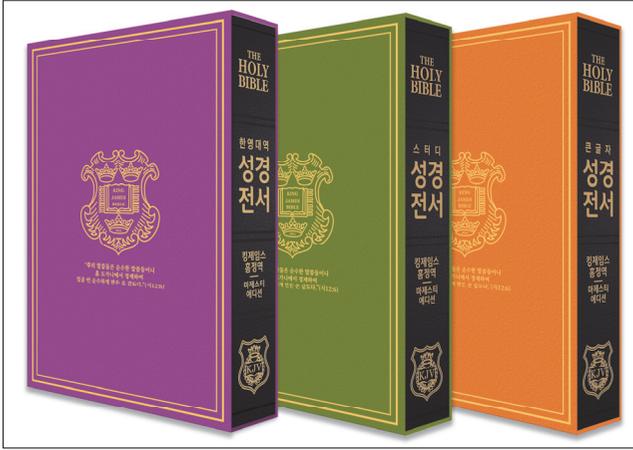
영역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는 극존칭을 사용한다. 세상 성경과 달리 흥정역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깎듯한 극존칭으로 대우를 해 드리고 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안 그런가? 영적 아버지께는 대충 해도 되는가? 독자는 독자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대놓고 말하는가? 내가 늘 말하듯이 그저 그런 절간의 똥초들도 - 모두 지옥에 갈 인생들이다 - 자기 동료를 부를 때는 높여서 '스님'이라고 한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주님이신 그분께 의도하든 안하든 '님'자도 붙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성경들이 하는 일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잠9:10)

주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나 찾아보라! 다들 그냥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한다. 독자는 이게 그저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흥정역 요4:1)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2021>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개역 개정판)

이런 번역은 늘 아기 예수만 들먹이는 로마 카톨릭 집단이 의도한 것이다(시2:4). 이러니까 설교나 기도하면서 사역자고 교인이고 누구나 겁도 없이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호칭을 따구 쏟아 낸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존칭으로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배밭 근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살전5:22).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을 보고 그때 결심을 하였다.

네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전5:2).

2. 흠정역 성경은 기절할 정도로 쉽다

나도 개역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다. 완독을 몇 번 했다는 식의 자랑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이 읽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약 4:16).

그런데 개역성경을 가지고 완독을 하든지, 부분적으로 읽든지 짜증 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솔직히 개역성경은 내켜서 읽었다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읽었다.

“거 참, 성경이 진짜 어렵구네! 이걸 보통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구네!”라고 말하며 더 읽거나 무언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접은 적이 매우 많다. 명색이 목사인데도 말이다. 성경이 어려우니 성경의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을 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역성경은 읽은 내용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앞뒤 문맥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며 개별 단어는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단순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역을 하면서도 늘 관련 주석 책을 달고 살았다. 물론 나의 무식도 여기에 일조했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쓰셨을까? 그리고 그 어려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만난 뒤 그것을 읽어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엄청난 의심을 했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도대체 성경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다. 독자도 당장 구해서 한번 읽어 보면 내 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살전5:21).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주석 책을 한 권도 사지 않는다. 물론 살 돈도 별로 없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굳이 주석 책을 봐야 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간혹 흠정역을 읽으면서 당장 풀리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성경에서 성경을 연결시키면서 해답을 찾아 주시고 아둔한 나를 깨닫게 하신다(시32:8).

그렇다!

하나님께서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게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지 어떤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이런 당연한 생각이 떠오르자(고전1:26-29) “옳거니, 이게 진짜 성경이구네!”라는 감탄사와 함께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빠져들어 갔다. 반면에 이를 악용한 로마 카톨릭교회는 오직 교회와 사제에게 성경 독점권을 준다. 물론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벧후1:20-21). 그런데 ‘영적’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좀 그렇다. 즉 ‘영적인 것 = 어렵다’는 선입관으로 인해 성경은 난해한 책이고 누구나 해석해 볼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대개 단정한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이기 전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성경 기록의 일차적 목적이 교리에 관한 분별이다(딤후3: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doctrine)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⁷⁶⁾(흠정역)

76)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말은 ‘교리’(doctrine)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말을 개역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개역 개정판)

그런데 교리 부분을 먼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라. 성경 해석은 언제나 문자적인 해석이 먼저이고 - 이진 상식이다 - 그 뒤에 문자적 해석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을 뒤바꾸는 것이 자기 위주의 해석이고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다.

나의 글들을 읽으면 모든 글은 거의 예외 없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진행된다. 그런데 내가 인용한 말씀의 영적 뜻은 이렇다고 하면서 추가 설명하면서 올린 문장이 몇 개나 되나 한번 찾아보라! 찾으면 선물을 주겠다. 물론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1%도 안 된다. 이것을 위해 영적 해석에 매달려야 하나? 그러므로 내가 인용한 말씀을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이면서(롬12:3) 슬슬 읽어 가면 된다. 복잡한 세상에서 굳이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이건 무얼 말하는 걸까?” 등 쓸데없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으면서 가면 된다. 성경을 어렵게 읽고, 어렵게 해석하는 짓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그때 바로 올라오는 뜻을 받아들이면 된다.

성경을 영적(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잘난 인간들의 못된 버릇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 어리석은 무리들이여! 성경이 어려우면 좋아할 사람은 오직 샅꾼 목사들과 신학자들밖에 없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러나 흥정역 성경은 내용이 평이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므로 성경을 마음먹고 대하면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경의 대부분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이 말씀을 연결시켜 주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고전2:13).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안 할 수 없다(요일2:27). 의심하면 직접 읽어 보고 아니면 나에게 항의하기 바란다.

오히려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신30:14).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가야 할 목회 방향도 결정하는 행운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얻었다(고전2:13).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쪽으로 끝없이 전진할 것이다(딤후3:14)!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교훈’으로 바꾸어 버렸다.

찬양하리라(시56:10).

3.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개정된 적이 없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첫 출판 후 지금까지 철자법 등의 변화로 인한 교정(정정)만 몇 번 했다. 이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참고로 개정(revision)은 성경의 본문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교정 혹은 정정(correction)은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것은 개정과는 전혀 다르다.

세상 교회에서 대부분 쓰고 있는 개역성경은 본문을 바꾸는 일, 즉 성경 개정을 휴지로 코 푸는 일처럼 쉽게 해 왔다(수십 번씩이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요즘 세상 모든 교회에서는 핏대를 올리면서 개역 개정판을 사라고 선전하고 거의 반강제로 팔고 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은 개역성경을 개정한 것이다. 분명히 그들 스스로 개정이라고 토를 달았다.

개역 개정판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개정한 것을 밝혀 놓았다.

개역성경을 7만 군데 이상 고쳐서 시대에 맞게 내놓았다.

“새 시대에 맞게 고쳤다.”는 말은 예전의 개역성경은 내용이 부족한 구시대 성경이라 첨단을 달리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

이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고치고 조정한다는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그러면 개역성경을 과연 올바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나?

집에서 쓰는 걸레도 7만 군데를 고치면 더 이상 걸레가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다. 내 말이 틀렸는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고쳤는가?

무엇을 근거로 고쳤는가?

다음번에 70만 군데를 고친 개정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

걸레는 강력 하이타이로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을 매우려고 붙인 것이 그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마9:16).

반면에 영국에서 1611년에 처음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약 4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다. 정말 미칠 정도로 너무 좋아
츄추고 싶다!

물론 몇 번의 교정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정이지 개정이 아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우리말 흠정역 성경도 몇 차례 교정은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흠정역 성경의 가치를 모른다면 가서 밭 댕고 자는 게 좋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네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잠23:9).

성경을 떼대로 뜯어고치는 인간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기록을 닫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신다. 우리 모두 똑똑히 한 자 한 자 읽고 마음 판에 새겨야
한다(잠3:3).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여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계
22:18)

위의 말씀으로는 뭔가 2% 부족한가?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9).

이쯤에서 일단 이번 글은 마무리하련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
119:103)

그러저럭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에게 남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욥34:21).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신실한 종이었고(잠20:6)
청지기 사역의 바탕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었다고 기억되기 원한다(고전4:2).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시4:3).



용어 정리

성경 이슈를 논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책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외에 더 필요한 것들은 독자께서 시간을 내서 조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⁷⁷⁾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 파피루스(Papyrus): 파피루스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필기 용도로 사용되던 종이와 비슷한 매체로서 사초과(莎草科, Cyperaceae)에 속하는 동일한 이름의 파피루스(Cyperus papyrus) 식물의 잎으로 만들어졌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파피루스 식물은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필기 용도로 쓰기 위해 자루나 줄기를 모았고 가운데 수(髓) 부위를 얇고 긴 조각으로 잘라 압착하여 말린 뒤 매끄럽고 얇은 필기 용지를 만들었다. 파피루스는 풀처럼 생긴 수생 식물로서 목본성의 무딘 3각형 줄기를 가지며 깊이가 90cm 정도인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서 4.6m 높이까지 자란다. 지금도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것을 연못에 관상용으로 심거나 온실에서 기르곤 한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 줄기를 돛·천·방석·밭줄·종이를 만드는 데 썼다.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주요한 문방구였는데 후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도입하였고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문과 법률 공문서를 기록하는 데도 쓰였다.

플리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파피루스로 종이를 제조하는 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줄기 속의 섬유 층을 제거하고 세로로 길쭉한 조각으로 잘라 이들을 나란히 놓은 다음 그 위에 다른 조각들을 직각으로 교차시킨다. 이렇게 2층으로 쌓은 시트를 풀이 죽게 압축시킨다. 말리는 동안 아교 같은 수액(樹液)이 시트를 서로 접착시킨다. 마지막으로 시트를 망치로 두드린 다음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순백색을 띠며 잘 만들어진 것은 반점·얼룩 및 다른 결함 등이 없다. 두루마리의 경우 시트를 풀로 붙여 만드는데 대개 하나의 두루마리에 시트가 20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파피루스는 8-9세기에 다른 식물 섬유로

⁷⁷⁾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와 맨 끝에 있는 추천 참고 도서를 참조하기 바람.

종이를 제조하기 전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필기 용도로 사용하였다. 3세기경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파피루스가 이미 벨럼이라 불리는 저렴한 양피지로 대체되기 시작했지만 12세기경까지는 책이나 공문서를 만들기 위해 간간히 쓰였다.

양피지 사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파피루스 사본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초기에 신약 성경은 이런 종이 위에 필사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발견한 파피루스 조각 사본들은 1, 2, 3, 4, 5, 6, 7 등의 번호가 매겨졌으며 그 안에는 신약 성경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파피루스 사본 중 많은 수가 교회 역사의 첫 3세기(주후 100-3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벨럼(Vellum): 글이 기록된 고급 가죽(양피지). 벨럼은 주로 양·염소·송아지 등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여 만든 서사(書寫) 재료이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BC 2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 페르가뭄(지금의 터키 베르가마)에서 양피지가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짐승의 가죽이 필기 재료로 쓰인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가죽을 좀 더 철저하게 세척하고 늘리고 문지르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필사지의 양면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두루마리 사본이 철을 한 책자(코덱스)로 대체되었다. 처음에는 송아지나 새끼 염소의 가죽 또는 사산되었거나 갓 태어난 송아지나 양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벨럼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서 이 말은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최고급 양피지를 일컫는 데 쓰이게 되었다.

AD 6세기에 대부분의 초기 사본들에 사용되었던 벨럼은 질이 좋았다. 이후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양의 불량품이 시장에 나왔으나 서유럽에서 많은 필사본이 만들어졌던 12세기까지는 부드럽고 유연한 벨럼이 유행하였다. 초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진한 자줏빛 염색을 하고 금·은으로 글씨를 새긴 호화스러운 형태의 양피지가 만들어졌는데 제품은 그의 잘 알려진 시구에서 이러한 관행을 쓸모없는 사치라 비난했다. 자줏빛 염색은 그 후에 사라졌지만 금·은 그리고 다른 색조로 양피지 사본에 '윤을 내는' 관행은 중세에도 크게 유행하였다. 오늘날 양피지 혹은 벨럼이라는 용어는 주로 목재 펄프 및 제지용 님마로 제조하여 특수한 마감 처리를 한 일종의 고급 종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벨럼 중 어떤 것들은 족자처럼 말할 수 있었으므로 '두루마리'(scroll)라고 불리며 또 어떤 것은 마치 책처럼 장(p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덱스'(codex)라고 불린다. 현존하는 성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두 개의 '코덱스'는 '바티칸 코덱스'(Vaticanus)와 '시내 코덱스'(Sinaiticus)이다. 이들은 보통 '바티칸 사본'(B 사본) 그리고 '시내 사본' 혹은 '알레프 사본'(Aleph)이라 불리는데 여기서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다.

● 자필 원본(Autographs): 글자나 음표 등을 작가가 직접 손으로 쓴 원고.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영어의 'autograph'는 사람이 손으로 쓴 서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골동품으로서 지니는 가치나 부수적인 가치 이외에도 자필 원고는 원고의 초기 초안이거나 또는 수정본일 수 있고 작성 단계상 귀중한 증거나 작품의 마지막 수정판의 귀중한 증거를 제공한다.

본서는 성경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필 원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원본'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다 소실되어 현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 사본(Manuscripts): 이것은 성경의 구절이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파피루스나 벨럼에 기록된 문서이다. 신약 성경 사본이든 구약 성경 사본이든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중 일부분만을 담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단지 몇 구절만 담고 있다.

- 사본들의 계열(Families of manuscripts): 현재 네 종류의 사본 계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독일어 루터의 성경 등은 '시리아 계열'(Syr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으며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개역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 우리말 개역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등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계열'(Alexandrian family) 혹은 '이집트 계열'(Egypt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다. 또 다른 계열로는 '구 라틴어 사본들'을 포함하는 '서방 계열'(Western family)과 '카이사르 계열'(Caesarian family)이 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계열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해 주는 사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924년에 스트리트(B. H. Streetr)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의 사본학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계열이다.

- 본문(Texts):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필사본 자료를 모아 구성한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본문'이라는 단어는 어떤 종류의 문서든지 그 문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지칭하며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어로 편집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본문을 만든 유명한 사람들로는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엘제비어, 베자, 밀, 펠, 왈튼, 트레겔레스, 티센도르프, 그리스바흐, 알포드, 메츠거, 알란드(알란트), 네슬레,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등을 들 수 있다.

신약 성경 본문 중에서 시리아/비잔틴 '다수 사본'에서 나온 본문은 보통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라 불린다. '공인 본문'은 어떤 공적인 단체가 그 성경을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인 본문'을 '표준 원문'(標準原文)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거나 선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따라 알란드, 네슬레 등이 천주교의 이집트

‘소수 사본’에서 만든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런 본문으로부터 부패한 현대 역본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성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과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 간의 대립이며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본문과 로마 카톨릭 본문 간의 대립이다.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NIV, NASB, RSV,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본, 한글개역성경, 한글표준새번역, 한글공동번역 등은 모두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나왔으므로 문체와 표현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잘못된 점들에서는 궁극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 역본(Versions): 이것은 누군가가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의미한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고딕, 페르시아, 콥틱(에티오피아) 언어 등으로도 번역되었다. ‘역본’은 사실 ‘성경기록’(Scripture)을 ‘옮겨 놓은 것’(Translation)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Version’이란 단어는 원래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역표준역(RSV)과 미국표준역(ASV) 등은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영어 역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ASV와 RSV는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다수 사본’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수 사본’으로부터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출판된 영역 성경으로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이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이 권위를 부여했다고 해서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이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중국말의 영향으로 ‘왕이 친히 제정한 성경’이라는 의미의 흥정역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임스가 승인한 54명의 학자들 가운데 47명이 7년 동안 세 곳에서 여섯 개 조로 나뉘어 원어로 된 본문과 과거의 여러 역본들을 사용하여 작업했다. 그 결과 등장한 킹제임스 영역 성경은 영어 문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300년 이상 표준 영어 성경으로 널리 수용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본상의 권위와 문체의 수려함 등에서 다른 모든 역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외적으로 드러난 우수성 몇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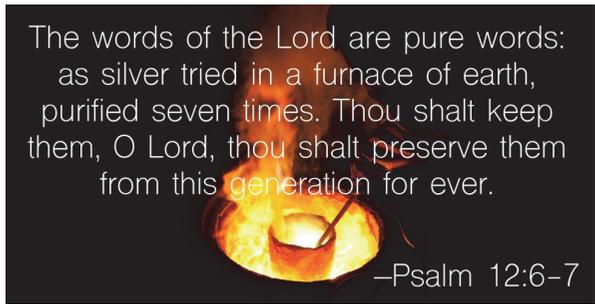
- (a) 부흥과 영혼 구원: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구원받게 된 영혼들과 선교 사역의 양은 그 외 다른 어떤 성경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많다.
- (b) 물질적 번영: 영국, 독일, 미국의 역사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 본문’을 귀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복의 역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될 때 재난이 닥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c)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의 열매: 만일 독자가 이성적이라면 로마 카톨릭교회

의 지배하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남유럽, 필리핀 등을 살펴보기 바란다. 이 국가들 모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채를 짊어진 나라들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지하자원이 많고 땅도 비옥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이교 사상)과 신학(바르지 못한 성경)이 나라를 지배하므로 번영을 이룰 수가 없다.

또한 새로운 역본들의 근거가 된 ‘소수 사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들의 대부분은 - 네슬레, 알란드, 메츠거, 웨스트코트, 호르트, 라이트푸트 등 - 참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그들은 이미 161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 등을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로마 카톨릭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⁷⁸⁾

로마 카톨릭교회의 열매들은 이미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며 카톨릭교회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올바른 본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들은 부패된 계통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와 이집트 계열의 사본들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 개정(Revisions): 성경 본문을 바꾸는 것.
- 교정, 정정(Correction):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로서 ‘개정’과는 전혀 다른 것임.



78)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등을 참조하기 바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ק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ת

히브리어 구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BIBΛΟΣ γενέσ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βίδ, υἱοῦ Ἀβραάμ. Ἀ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보존됨**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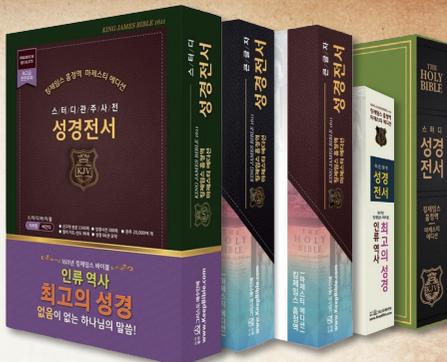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